

연구보고서 2018-23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변수정 · 조성호 · 이지혜

【책임연구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23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저자 변수정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현대아트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청년들이 삼포(연애, 결혼, 출산)에서 오포(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칠포, 팔포에 이르기까지 점차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는 결혼과 출산도 포함되어 청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혼인을 감소, 초혼 연령 증가, 출산을 감소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기혼가정의 임신·출산 지원과 양육 지원에 집중하였으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과 주거 지원 정책이 추가되는 등 정책 대상과 내용이 확대된 것이다. 즉,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의 장애 요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년층의 경우 성인기로의 이행 단계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주거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으며 기존 연구들도 주로 청년 주거문제 자체에 대한 연구나 주거와 출산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고, 주거 특성과 결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 간의 연계가 여전히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단 결혼을 해야 그 후에 출산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주거특성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결혼을 하고자 하는 미혼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 그

방향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완화하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주거문제로 인해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이 결혼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변수정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고, 조성호 부연구위원, 이지혜 전문연구원이 연구진으로 함께하였다. 연구 진행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본원의 이상립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영란 연구위원과 익명의 평가위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전문가들에게 특히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별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청년 주거 지원 정책	21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3
제2절 청년의 주거 및 결혼 관련 현황 변화	44
제3절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현황	66
 제3장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 및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81
제1절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과 미혼 이유	83
제2절 미혼 청년의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91
제3절 소결	102
 제4장 미혼 청년의 현재 주거 실태와 결혼 시 희망 주거특성	105
제1절 미혼 청년의 현재 주거 실태	107
제2절 미혼 청년의 결혼 시 희망 주거특성	129
제3절 소결	189

제5장 미혼 청년의 주거 지원 정책 관련 인지와 욕구 195

제1절 주택공급방식 주거 지원 정책 관련 인지와 욕구 197

제2절 금융 지원 방식 주거 지원 정책 관련 인지와 욕구 210

제3절 주거 지원 정책과 결혼 221

제4절 소결 230

제6장 미혼 청년의 주거특성과 결혼의 연관성 분석 233

제1절 기술통계 및 전체 분석 결과 236

제2절 성별 분석 결과 242

제3절 지역별 분석 결과 244

제4절 경제수준별 분석 결과 247

제5절 소결 250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55

제1절 결론 257

제2절 정책적 제언 269

참고문헌 277

부 록 283

표 목차

〈표 1-1〉 조사 내용	18
〈표 1-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표 2-1〉 청년 주거 관련 선행연구	30
〈표 2-2〉 종속변수가 결혼 의향인 선행연구	38
〈표 2-3〉 전체 가구 중 청년가구 비율	47
〈표 2-4〉 청년가구 가구의 일반적 특성	48
〈표 2-5〉 청년가구의 가구주가 된 기간	49
〈표 2-6〉 청년가구의 주택 유형	50
〈표 2-7〉 청년가구의 주택 내 위치	51
〈표 2-8〉 쪽방 거주 청년가구	51
〈표 2-9〉 청년가구의 주택 구조	52
〈표 2-10〉 청년가구의 주택 사용 면적	52
〈표 2-11〉 청년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53
〈표 2-12〉 청년가구의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54
〈표 2-13〉 청년가구가 가구주가 된 이후 한 번이라도 자가주택 마련 경험	55
〈표 2-14〉 청년가구가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자가주택 마련 방법	55
〈표 2-15〉 청년가구가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자가주택 마련까지의 기간	56
〈표 2-16〉 청년가구의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7
〈표 2-17〉 청년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7
〈표 2-18〉 청년가구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58
〈표 2-19〉 청년가구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58
〈표 2-20〉 청년가구가 내 집을 꼭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59
〈표 2-21〉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60
〈표 2-22〉 청년가구에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1순위	60
〈표 2-23〉 청년가구에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2순위	61
〈표 2-24〉 청년가구 주거 지원 프로그램 이용률	62

〈표 2-25〉 만 18~49세 미혼인구의 변화(1990~2015년)	65
〈표 2-26〉 대학생,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정책	75
〈표 2-27〉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지원 정책(2018. 1. 29. 시행)	77
〈표 3-1〉 결혼 의향	84
〈표 3-2〉 현재 미혼인 가장 주된 이유	87
〈표 3-3〉 미혼 남녀의 현재 미혼인 가장 주된 이유	89
〈표 3-4〉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 하는 경우 중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	90
〈표 3-5〉 결혼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령에 대한 남녀 비교	92
〈표 3-6〉 결혼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본인의 월평균소득	93
〈표 3-7〉 결혼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상대방의 월평균소득	95
〈표 3-8〉 결혼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상황(1순위)	97
〈표 3-9〉 현재 이성교제 여부	98
〈표 3-10〉 현재 이성교제 상대와 결혼 계획	100
〈표 3-11〉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 중 신혼집 마련과 관련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	102
〈표 4-1〉 현재 부모님과 동거 여부	108
〈표 4-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	109
〈표 4-3〉 부모님과 비동거 중인 청년의 현재 거주 주택 유형	111
〈표 4-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명의	112
〈표 4-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점유 형태(주택 명의가 본인인 경우)	114
〈표 4-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와 전세보증금(주택 명의가 본인인 경우)	115
〈표 4-7〉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보증금과 월세(주택 명의가 본인인 경우)	115
〈표 4-8〉 현재 거주하는 주택비용 마련 주체(주택 명의가 본인이며 점유 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	117
〈표 4-9〉 현재 거주하는 주택 월세 비용 지원 여부(주택 명의가 본인이며 점유 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인 경우)	118
〈표 4-1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여부(주택 명의가 본인인 경우)	119

〈표 4-1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는 경우, 매달 지불하는 이자 및 상환액(주택 명의가 본인인 경우)	121
〈표 4-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여부	122
〈표 4-1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 본인 명의 자가 주택비용 마련 주체	123
〈표 4-14〉 주택 임차료, 대출금 이자 및 상환액 지불 부담 정도	125
〈표 4-15〉 주택 임차료, 대출금 이자 및 상환액 지불 부담 정도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126
〈표 4-16〉 주택 관련 비용 부담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127
〈표 4-17〉 주택 관련 비용 부담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128
〈표 4-18〉 신혼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	130
〈표 4-19〉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	132
〈표 4-20〉 신혼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133
〈표 4-21〉 미혼 여성과 남성의 신혼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2순위)	135
〈표 4-22〉 신혼집 마련 시 각 항목별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정도	137
〈표 4-23〉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 시 각 항목별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정도 ...	138
〈표 4-24〉 희망하는 신혼집 주택 유형	140
〈표 4-25〉 미혼 남녀의 희망하는 신혼집 주택 유형	141
〈표 4-26〉 미혼 남녀의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 주택 유형	143
〈표 4-27〉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혼집 주택 유형 비교	145
〈표 4-28〉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혼집 주택 유형 비교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145
〈표 4-29〉 희망하는 신혼집 점유 형태	146
〈표 4-30〉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 점유 형태	148
〈표 4-31〉 미혼 남녀의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 점유 형태	150
〈표 4-32〉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혼집 점유 형태 비교	151

〈표 4-33〉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혼집 점유 형태 비교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152
〈표 4-34〉 신혼집 마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	153
〈표 4-35〉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	154
〈표 4-36〉 현실적으로 신혼집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	156
〈표 4-37〉 미혼 남녀의 현실적으로 신혼집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	158
〈표 4-38〉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신혼집 비용과 현실적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신혼집 마련 비용 비교	160
〈표 4-39〉 신혼집 마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161
〈표 4-40〉 신혼집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의향	162
〈표 4-41〉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의향	163
〈표 4-42〉 신혼집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164
〈표 4-43〉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165
〈표 4-44〉 신혼집 마련에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 현재 준비되어 있는 정도	166
〈표 4-45〉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에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 현재 준비되어 있는 정도	167
〈표 4-46〉 신혼집 마련에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 현재 준비되어 있는 정도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169
〈표 4-47〉 신혼집 마련에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 현재 준비되어 있는 금액	170
〈표 4-48〉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에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 현재 준비되어 있는 금액	171
〈표 4-49〉 신혼집 마련 시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비용 부담 비율	173
〈표 4-50〉 지금 결혼한다면 신혼집 마련 준비 정도	174
〈표 4-51〉 지금 결혼한다면 신혼집 마련 준비 정도(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	175

〈표 4-52〉 결혼 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비용 지원 및 상속 기대	176
〈표 4-53〉 결혼 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비용 지원 및 상속 기대	178
〈표 4-54〉 결혼 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비용 지원 및 상속 기대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179
〈표 4-55〉 신혼집 마련 시 부모님으로부터의 주택비용 지원 및 상속이 차지하는 비율 ...	180
〈표 4-56〉 내 집 마련(자가 소유)의 적절한 시기	181
〈표 4-57〉 미혼 남녀의 내 집 마련(자가 소유)의 적절한 시기	183
〈표 4-58〉 내 집 마련(자가 소유)의 적절한 시기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184
〈표 4-59〉 내 집 마련(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186
〈표 4-60〉 미혼 남녀의 내 집 마련(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187
〈표 4-61〉 내 집 마련(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189
〈표 5-1〉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 방식 지원 정책) 인지 여부	198
〈표 5-2〉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 방식 지원 정책) 필요성	199
〈표 5-3〉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 방식 지원 정책) 이용 경험	200
〈표 5-4〉 결혼 시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 방식 지원 정책) 이용 의향	201
〈표 5-5〉 결혼 시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 방식 지원 정책) 이용 의향 없는 이유	203
〈표 5-6〉 청년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 방식 지원 정책) 인지 여부	204
〈표 5-7〉 청년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 방식 지원 정책) 필요성	205
〈표 5-8〉 청년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 방식 지원 정책) 이용 경험	207
〈표 5-9〉 결혼 시 신혼부부 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 방식 지원 정책) 이용 의향	208
〈표 5-10〉 결혼 시 신혼부부 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 방식 지원 정책) 이용 의향 없는 이유	210
〈표 5-11〉 주택자금대출 방식 지원 정책(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인지 여부	211
〈표 5-12〉 주택자금대출 방식 지원 정책(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성	213

〈표 5-13〉 주택자금대출 방식 지원 정책(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 경험	214
〈표 5-14〉 결혼 시 주택자금대출 방식 지원 정책(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 의향	215
〈표 5-15〉 결혼 시 주택자금대출 방식 지원 정책(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 의향 없는 이유	217
〈표 5-16〉 주거 지원 정책 인지, 필요성, 이용 경험 및 이용 의향 비교	219
〈표 5-17〉 주거 지원 정책 인지, 필요성, 이용 경험 및 이용 의향 비교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220
〈표 5-18〉 주거 지원 정책 중 청년들의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 유형	222
〈표 5-19〉 주거 지원 정책 중 청년들의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 유형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223
〈표 5-20〉 청년들이 모여 사는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면 이용할 의향	224
〈표 5-21〉 신혼부부가 모여 사는 신혼부부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면 이용할 의향	225
〈표 5-22〉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청년들 결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	226
〈표 5-23〉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청년들 결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228
〈표 6-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237
〈표 6-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241
〈표 6-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녀 구분	243
〈표 6-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역 구분	246
〈표 6-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부모님 주관적 경제상황 구분	249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16
[그림 2-1] 지역별 전체 가구 중 청년가구 비율	47
[그림 2-2] 청년가구의 주택 유형	50
[그림 2-3] 청년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54
[그림 2-4]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변화	63
[그림 2-5] 평균 초혼 연령 변화	63
[그림 2-6] 연령별 혼인율(2017년)	64
[그림 2-7] 만 18~49세 미혼인구의 변화(1990~2015년)	66

Abstract <<

Housing Characteristics and Marriage Intentions among the Never-Married in Korea

Project Head · Byoun, Soo-Jung

Adequate housing is a basic human right and an important determinant of quality of life. Recently, young people in Korea tend to postpone or give up marriage because of housing issues. Little research, however, had documen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housing and marri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real situations of current housing among young single people and also to examine the degree to which housing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marriage intentions of young single adults. And it seeks to identify differences in gender, living regions, economic status in terms of relationships between housing characteristics and marriage intentions. By doing so, the finding of this study will help suggests directions of policies to improve the housing conditions for young people who want to get married.

For the study, we conduct online survey of unmarried people's real current housing situations and their needs of future house they will prepare when they get married and of housing policies.

Co-Researchers: Cho, Sungho · Yi, Jihye

2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The study finds that many of young people have marriage intentions. Of course, burden from cost for current housing is related to marriage intentions among young people. However, conditions of housing for marriage are more associated with marriage intentions of young people. And we also figure out those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istics of current or future housing and marriage intentions varies by gender, regions, and economic status.

Finally, this study provides some suggestions to improve housing policies for young people. In particular, providing policy and programs targeted at and tailored for young people who have marriage intention but cannot get married because of conditions could help get rid of barriers to marriage. Further, government needs to provide housing supports with more diverse method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주거 마련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아직 실증적으로 분석되어 증명된 바가 드물며, 그 분석이 가능한 자료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미혼 청년의 주거 관련 특성의 변화를 기존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보다 면밀하게 주거와 결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미혼 청년의 현재 주거 실태와 향후 결혼 시 마련하고자 하는 주거와 관련된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와 결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만큼 결혼 시 기대하는 주거에 대한 조건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아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조건 등에 대한 파악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거, 특히 결혼 시 주거 마련 등과 관련되어 있는 성별, 지역,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미혼 청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조사에 참여한 미혼 청년 중 많은 비율이 결혼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 남성의 결혼 의향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때 여성은 결혼하

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미혼인 경우가 많고, 남성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상황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결혼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높아 남녀의 차이가 분명했다. 상황적 요인 때문에 결혼 지연이나 포기가 일어나는 경우, 그중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 청년들 중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청년 중 주택 명의가 본인인 경우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전세, 자가 순이었다. 청년 스스로 완벽하게 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현재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시 마련하는 주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1순위에서는 주택가격이었고, 그다음이 주택위치, 점유 형태, 거주환경, 주택 유형, 주택상태 및 구성, 교통환경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때 주택가격과 유형, 점유 형태는 오히려 타협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나타나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결혼 시 희망하는 주거 형태로 청년들은 아파트를 희망하지만 그중 절반 정도만 희망하는 유형 그대로 아파트를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응답해 희망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과 희망 사이의 괴리는 주택 점유 형태와 적절한 신혼집 비용에서도 여전히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결혼하고 싶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결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룹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정책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지원 방식에 대해 이용 의향이 골고루 높게 나타나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높은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결혼 의향이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미혼의 경우에는 방식과 관계없이

주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결혼 시 이용하려는 욕구도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지원의 큰 방식인 주택 지원과 금융 지원은 비슷하게 청년의 결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결혼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높게 나타나 정부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주거와 관련된 특성에서는 주로 현재의 주거 상태와 관련된 요인보다는 앞으로 결혼 시 마련할 주거에 대한 조건들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인구가 신혼집으로 생각하는 조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주거 관련 특성과 결혼의 연관성에서 여성 결혼 의향은 남성의 결혼 의향보다 주거 관련 변수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부모님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의 주관적 경제수준과 결혼 의향이 관련이 있어 남녀 사이의 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내 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집값이 높아 내 집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가장 집값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신혼집 유형과 비용 등 신혼집 마련에 대한 조건이 결혼 의향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결혼의 조건이 다른 조건인 경우보다 주거 마련이 해결되면 결혼하겠다는 그룹의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나 정책적인 측면이나 가족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결혼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중간이라고 생각한

청년 그룹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그룹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았고 주거 마련 해결이 결혼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그룹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주거와 관련된 특성들이 매우 다양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그룹에 대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니즈 파악이 필요하며, 이때 지역적인 조건이나 개인적인 조건 등 다차원적으로 조건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존 주거 지원 정책 방식이 모두 중요하게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에서 더욱 강화해야 하는 부분과 지원 시 완화해야 할 기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주거 관련 정책들을 알기 쉽고 접근 가능하도록 정리해 대상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결혼을 할 마음이 있지만 상황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우의 미혼인구에 대한 이해와 특성 파악을 통해 상황에 알맞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꾸려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받는 등의 경직된 대상자 선정은 시대에 알맞게 검토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미혼 청년, 주거 특성, 결혼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삶의 활기로 가득 차 있을 것만 같은 시기인 청년(靑年)을 대표하는 단어가 ‘포기(拋棄)’가 되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삼포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오포(연애, 결혼, 출산+인간관계, 주택구입)(국립국어원, 2015), 팔포로 포기의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중 과거에는 생애 과업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결혼이 포함되어 있어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 되었다. 이에 더해 우리 사회는 결혼과 출산 사이의 연결고리가 매우 강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결혼 지연, 포기가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즉, 청년 세대가 당면한 문제는 그 자체로의 문제뿐 아니라 혼인을 감소, 초혼 연령 증가, 출산을 감소까지 이어져 청년들의 포기 현상은 사회의 많은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으로 이행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었다.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처음 정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결혼 후에 임신과 출산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제1차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06, 2010)에서는 기혼 및 양육 지원에 집중했다. 하지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만혼과 비혼에서도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발견하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5).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결혼 의향이 높은데 조건 및 상황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과 함께 혼인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통계청, 각 연도) 결혼 의향이 결혼으로 이행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 주고 있다.

미혼인구가 결혼 이행 전에 갖는 결혼 의향은 어느 정도 연령까지는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의향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선택이 사실상 어려운 시점에서 결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나타나는 비자발적 의향일 수 있다(Stein, 1981; 임선영, 박주희, 2014에서 재인용).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결혼 이행이라는 것이 과거와 달리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선택이 되면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혼 의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결혼 의향을 가지고 있느냐 포기하느냐 등 결혼 의향 자체 또한 결혼 이행만큼 결혼 경향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결혼 이행과 더불어 결혼 의향 파악도 중요하며, 이러한 의향 파악은 미혼인구의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견해 및 가치관을 알아보는 것보다 실제 의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 데 보다 유용할 수 있다(권소영 외, 2017).

청년들이 결혼 의향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또는 결혼 이행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다양한 이유 중 무엇보다 취업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주거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또는 포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낮은 혼인 비율과 주거 사이의 관계가 직접 밝혀지기보다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집값이 지적되면서 주거특성과 출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e.g., 배호중, 한창근, 2016; 이상포, 노정현, 2017)가 먼저 이루어졌다. 이제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거환경 마련은 신혼집을 얻는 결혼 단계에서부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상이 파악되

면서 주거특성과 결혼 사이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해 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주거문제(43.1%), 고용문제(37.8%), 자녀양육문제(9.2%), 결혼비용문제(8.9%) 순으로(보건복지부, 2015) 나타나 청년들의 결혼에 있어 주거환경 마련이 고용 상태와 함께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주거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있다거나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서나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그동안 많지 않았다. 주거문제가 결혼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서 연구가 풍부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청년 주거는 그 자체의 문제에 대해 논의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즉, 주거문제로 결혼이 어려워진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많지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거나 정확하게 주거문제와 결혼 사이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들여다 본 실증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회현상을 논함에 있어 그동안 부족했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여전히 결혼 지원 정책으로의 주거 지원을 놓고 결혼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결혼을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처럼 모두를 대상으로 결혼 지원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결혼을 하고자 하지만 상황적 제약 때문에 결혼으로 이행을 못 하는 인구에 대한 지원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결혼 의향이 있는 인구에 대해 주거문제와 같이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 결혼으로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은 기존의 주거 지원 정책에서 연장된 내용으로 주거 지원 정책은 일정기간 이어져 왔지만, 이렇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된 기간은 그리 오래되

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주거 지원 정책들은 다소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개선 사항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미혼 청년의 현재 주거 상황과 결혼 시 마련하고자 하는 주거에 대한 희망 등 주거 관련된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주거와 결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만큼 결혼 시 마련하고자 하는 주거에 대한 기대 조건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아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에 대한 조건을 파악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주거는 그 특성상 거주하는 지역과 경제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청년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희망하는 주거특성과, 그 특성과 결혼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봄에 있어 지역별, 경제적 수준별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결혼 시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욱 부과되는 경향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러한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청년층의 현재 주거특성과 앞으로 결혼 시 마련하고자 하는 주거특성을 파악하고, 그 주거특성과 결혼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연관성은 성별, 지역,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미혼 청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주거문제가 결혼 지연이나 포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집중해 기본적으로 미혼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과 수행 방법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청년 주거문제 자체에 대한 연구, 주거-결혼에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2차 자료를 활용해 청년의 주거와 관련된 현황의 변화를 살펴본다. 2차 자료는 우리나라의 주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조사인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청년의 주거 현황과 관련된 특성의 변화를 파악한다.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대상이 만 19~39세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 중 미혼 청년의 주거환경, 주택 점유 상황, 주거에 대한 견해 등 주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특성들을 알아본다. 청년의 주거뿐 아니라 결혼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기간 혼인율이나 미혼율의 변화 등 결혼 관련 특성에 대한 변화도 간략히 살펴본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현재 증가하고 있는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 내용을 현재 시점에서 정리한다.

본 연구는 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미혼 청년 개인이 가진 조건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현재 평균 초혼 연령에 가까운 연령 집단의 특성을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차 자료로 주거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료 안에서 결혼에 대한 내용이 함께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 직접 온라인 조사를 설계해 실시한다. 그 결과를 제3장부터 제6장을 통해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미혼 청년의 결혼과 관련된 결혼 의향, 미혼의 이유, 결혼의 조건 등을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이어지는 제4장에서는 현재 미혼 청년의 주거 실태와 향후 결혼 시 희망하는 주거 관련 특성이 어떠한지 알아본다. 또한 제5장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경험과 정책적 욕구도 파악한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주거특성과 결혼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이용해 결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해 주거와 관련된 여러 특성과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이 성별, 계층별, 지역별로 상이한지 그룹별로 나타나는 특성과 차이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과 관련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연구 방법

제2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 검토에서는 문헌연구 검토 과정을 통해 청년 주거에 대한 연구와 주거-출산 및 결혼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만 19~39세 청년 중 미혼이면서 부모와 실제 동거하지 않는 가구주인 경우의 특성 파악을 위해 기존의 2차 자료를 활용한다.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 주거와 결혼 사이 관계를 알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필요한 요인들을 위주로 온라인 조사 방법을 이용한다.

본 연구의 조사는 제한적인 시간과 예산, 복잡한 질문의 특성으로 온라인 조사가 적합한 조사 방법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조사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온라인 조사의 활용과 발달로 패널을 관리함에 있어 최대한 패널 자체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집·관리하고 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단일 패널로 최대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조사업체의 패널을 활용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그럼에도, 패널에 포함된 사람들의 특성이 조사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

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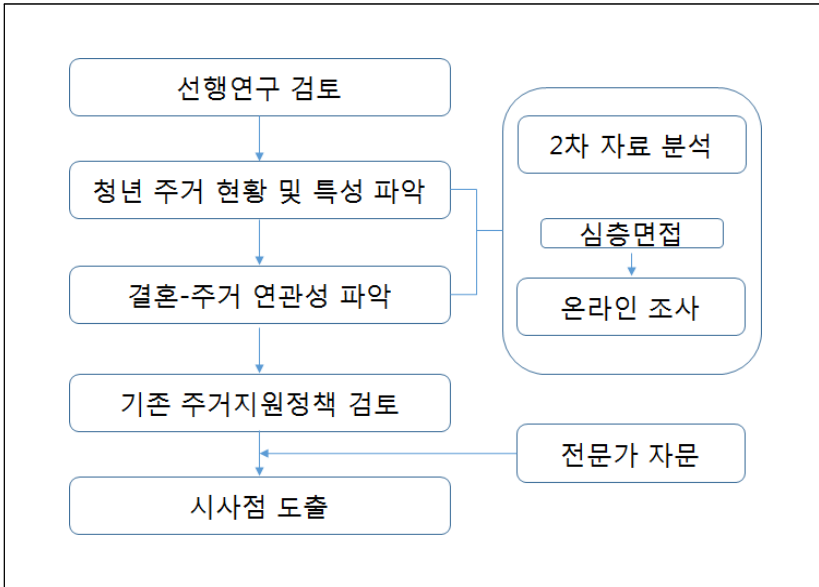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는 청년의 결혼 의향과 결혼과 관련된 주거특성 등을 알아보는 조사인 만큼 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 혼인연령을 반영한다. 2017년 통계청에서 제공한 평균 초혼 연령인 남성 만 33세, 여성 만 30세를 기준으로 저연령, 고연령 각 10%씩을 제외한 80%에 해당하는 연령대인 남성 만 27~39세, 여성 만 25~35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주거와 결혼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동안 연구가 부족하고 직접 조사가 된 경우도 드물다. 또한 결혼에는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얹혀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요인이 포함된 설문이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활용해 설문 내용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진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설문 내용 구상을 진행한다. 온라인 조사에 대한 자세한 개요는 아래 설명한다. 이렇게 완성된 설문지는 조사 시행 전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승인 결과를 받은 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주거 정책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가. 미혼 청년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개요

2차 자료 활용으로 미혼 청년의 주거와 관련된 특성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결혼과 주거에 대한 질문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부재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 생성과 분석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5세에서 39세 이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2017년 남성과 여성 각각의 초혼 연령 분포를 기준으로 상위, 하위 10%를 제외한 연령대를 조사 대상자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서 남성은 만 27~39세, 여성은 만 25~35세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조사 대상은 총 3002명으로 통계청

의 「2015년 인구총조사」 상 시도, 성, 연령대로 비례 배분을 적용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1.79\%$ 포인트이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2015년 인구총조사」 분포 반영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중치(weighting)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W_{ij} = \frac{N_{ij}}{n_{ij}}$$

- i: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i = 1(서울), 2(부산), ..., 17(제주))
- j: 성별*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j = 1(27~29세), 2(30~32세), 3(33~35세), 4(36~39세), 5(25~27세), 6(28~29세), 7(30~32세), 8(33~35세)]²⁾
- N_{ij} : i 시/도, j 성별*연령 그룹 내의 인구비례 배분 수
- n_{ij} : i 시/도, j 성별*연령 그룹 내의 조사된 응답자 수
- W_{ij} : i 시/도, j 성별*연령 그룹 내의 가중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이성교제 및 결혼 의향, 주거 현황, 희망하는 신혼집과 정책육구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남자와 여자의 결혼 평균 연령의 차이가 있어 연령대를 성별로 구분해 설계함. 1~4는 남자에 해당하며, 5~8은 여자에 해당함.

18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표 1-1〉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결혼 의향, 미혼 이유 및 결혼의 조건, 이성교제	· 미혼인 이유 및 결혼을 못 하는 이유 중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 · 결혼 의향 및 적정 결혼 연령 · 결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견해 · 이성교제 여부 및 교제 상대와의 결혼 의향 · 교제 상대의 취업현황 및 경제상황 등
주거 현황	· 부모님과 동거 여부 및 함께 살고 있는 사람 · 주택 유형 및 명의, 점유 형태 등 · 주택 관련 비용(시가 또는 임차비용, 대출 및 상환액 등) · 주택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 (부모님과 비동거인 경우) 부모님의 거주지 및 주택 관련 사항 · 부모님 소유 주택 현황 및 부모님 경제수준 등
희망하는 신혼집	· 결혼 시 주거 마련에 있어 고려 사항 · 결혼 시 희망하는 주거특성과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주거의 유형, 점유 형태 · 결혼 시 주거 마련에 드는 적정 비용과 실제 비용 및 부담 의향, 준비 상황 · 결혼 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비용 지원 및 상속에 대한 기대 · 내 집 마련에 대한 견해 등
주거 관련 정책욕구	·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정부 주거 지원 정책(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이용 경험, 이용 의향 등 · 청년이나 신혼부부 특화 주택단지 이용 의향 · 청년들의 결혼에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 등
응답자 특성	· 성별 · 학력 · 연령 · 취업 여부 및 취업 관련 특성 · 거주지역 · 소득 및 재산, 부채, 경제수준

주: 본 조사에서 '부모님'은 부모님 또는 길러주신 분을 의미함.

나. 미혼 청년 온라인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중 남성이 56.9%, 여성이 43.1%이며, 연령은 남성은 27세에서 39세까지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이며 여성은 25세에서 35세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동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88%였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전문)대학 재학 중인 경우가 11.2%였으며 (전문)대학 졸업이 74.9%, 대학원 석사 재학 이상이 13.9%였다. 취업 중인 경우가 85.1%였으며 소득수준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41.7%로 가장 많았고 100만~200만 원 미만도 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수

입이 없는 경우는 9.3%였다.

〈표 1-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성별	100.0			(3,002)		
남성	56.9			(1,708)		
여성	43.1			(1,294)		
연령(만)	전체 (100.0)	남 (100.0)	여 (100.0)	전체 (3,002)	남 (1,708)	여 (1,294)
25~26세	11.4	-	26.5	(343)	-	(343)
27~29세	32.7	32.3	33.2	(982)	(552)	(430)
30~32세	25.0	26.5	23.0	(750)	(453)	(297)
33~35세	20.1	22.1	17.3	(602)	(378)	(224)
36세 이상	10.8	19.0	-	(325)	(325)	-
거주지	100.0			(3,002)		
동부	88.0			(2,642)		
읍면부	12.0			(360)		
교육 수준	100.0			(3,002)		
(전문)대학졸업 미만	11.2			(335)		
(전문)대학졸업	74.9			(2,248)		
대학원석사재학 이상	14.0			(419)		
취업 여부	100.0			(3,002)		
취업	85.1			(2,554)		
미취업	14.9			(448)		
월평균소득	100.0			(3,002)		
수입 없음	9.3			(279)		
1~100만 원 미만	5.0			(151)		
100만~200만 원 미만	25.0			(750)		
200만~300만 원 미만	41.7			(1,253)		
300만~400만 원 미만	12.8			(385)		
400만 원 이상	6.1			(184)		

주: 1)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제 2 장

이론적 검토 및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청년의 주거 및 결혼 관련 현황 변화

제3절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현황

2

이론적 검토 및 <<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제1절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청년 주거특성, 그리고 주거와 결혼 간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한다. 우선 청년 주거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청년 주거와 결혼 사이 연관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선행연구 검토 단계 이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은 청년이 누구인가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에 대한 범위가 매우 다르게 적용되고, 각 법·제도마다, 또는 각 조사마다 다양한 청년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 간단히 청년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면서 본 연구에서의 청년 범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청년의 정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청년의 연령 범위는 몇 세일까. 법률에서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년의 주거만큼이나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청년 고용과 관련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나타난 청년을 살펴본다.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제2조에서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

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어 큰 범위에서 보면 15~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에 살펴볼 청년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수의 연구(i.e., 권현주, 이현정, 2015; 김동원, 배민경, 박승훈, 2016; 문소희, 이현정, 2017; 이현정, 2015a; 이현정, 2015b)가 20~34세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청년과 시작 연령은 다르지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 자료인 청년패널조사의 표본연령은 15~29세이고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는 대상 청년 연령을 15~39세로 좀 더 넓은 범위로 설정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시스템 홈페이지; 김기현 외, 2016). 청년의 고용·실업 문제는 청년 주거 또는 결혼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청년의 범위를 39세까지 넓게 보는 현상이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도 연구 대상 기준이 39세까지만 경우(i.e., 이무선, 2017; 이태진 외, 2016; 정희주, 오동훈, 2014)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청년 시작 연령에 있어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이나 조사에서 15세부터 청년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청년 주거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20세부터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대상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주거복지 로드맵 중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청년이다(국토교통부, 2017b, 2017c). 선행연구의 대상 연령 중 청년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와 청년의 범위가 비슷하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알아보고 정책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년 대상 주거 정책의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청년이 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는 측면에서 최근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대에 집중된 청년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 대상 연령 기준을 근거로 하여 만 19세에서 39세 중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결혼에 좀 더 가까운 연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여성과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남성: 만 33세, 여성: 만 30세)을 기준으로 분포비율을 고려해 여성은 만 25~35세, 남성은 만 27~39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2. 청년 주거 관련 선행연구

청년에게 있어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면서 청년 주거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의 청년 주거 관련 연구를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주거비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주거특성이나 실태 또는 주거 점유 형태 관련 연구들이 있다.

먼저, 청년 주거의 현실을 보여 주는 연구로 청년 주거특성이나 실태 분석 연구들이 있다. 이현정(2015a)은 청년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주거 실태를 비교하였다. 이때 지역은 수도권, 5대 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012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가구 중 가구주가 20~34세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전세, 월세 임차가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5대 광역시나 기타 지역보다 수도권 거주 청년가

구의 주거 빈곤과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소득이 220만 원 이하 가구에서는 주거 빈곤의 특성과 주거비 부담이 심한 특성을 보였다. 청년 임차가구의 30% 이상이 주거비 해결을 위해 가족 지원을 받고 있어 이는 청년의 문제가 결국 부모 세대 노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까지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청년 주거특성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연구로는 권현주와 이현정(2015)이 2012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군집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의 임차가구의 주거관을 주택 소유 희망, 주택투자, 임차, 지원필요 등의 그룹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주택투자자와 주택 소유를 희망하는 그룹은 가까운 미래에 집을 살 가능성이 높고, 지원이 필요한 그룹이 주거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청년의 주거문제를 복지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이태진 외, 2016)에서는 청년층의 빈곤과 주거 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을 포함해 분석하였다. 그중 청년 주거 관련 선행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빈곤문제와 주거 실태 부분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해 19~34세 청년에 대한 주거 실태를 분석하였다. 청년층과 노인의 상대빈곤율을 비교하면 청년층의 빈곤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빈곤을 경험하는 청년은 여전히 많고, 미혼이면서 남성인 경우 빈곤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실업인 청년의 빈곤율이 높고, 일하는 청년 중에서는 임시 및 일용, 자영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가 상용직인 청년보다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에 따라서는 혼자 사는 청년의 경우 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청년 1인가구는 청년가구 중 다른 유형과 비교해 상용직 비율이 낮고, 자영업자의 비율은 높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빈곤할 위험이 높은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주거 빈곤과 연관 지어 보면, 청년가구주 가구는 가구 점유 형태

에서 월세의 비중이 높았고, 특히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보증부 월세가 58.32%, 월세는 3.97%로 나타나 월세 지출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가구주 가구를 빈곤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로 나누어 보면, 빈곤한 그룹에서는 RIR 20% 이상인 가구가 73.33%, RIR 30% 이상의 경우는 60.22%로 나타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태진 외, 2016).

청년의 주거 실태를 보여 주는 연구 이외에 청년 주거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주거비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주거비용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수도권과 광역권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알아본 연구가 있다(김동원, 배민경, 박승훈, 2016). 이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20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과 광역권을 비교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를 포함한 광역권으로 구분하였다. 주거비 부담을 알아보는 지표로는 소득대비 임대료를 나타내는 RIR(Rent to Income Ratio) 지표를 활용하였다. RIR을 기준으로 30% 미만은 주거비 부담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중간은 RIR 30~50%, 주거비 부담이 매우 극심한 그룹은 RIR 50% 이상으로 나누어 수도권과 광역권은 비교했다. 그 결과, 수도권과 광역권 모두에서 RIR 30% 미만인 경우가 5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역권에서는 50% 이상인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고 수도권에서는 30~50% 수준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수준인 RIR 50% 이상인 가구는 2006년에서 2014년에 이르면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낮아져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높은 주거비가 필요한 지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

비 부담 능력을 파악한 연구(배병우, 남진, 2013)에서는 대학생의 주거 부담 수준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유 형태가 전세일수록, 주거 유형은 기숙사인 경우 주거비 부담 능력이 높아졌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출신 학생보다는 비수도권 지역 학생일수록 주거 부담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해 역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사회진출초기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실태를 알아본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사회초년생이 스스로 주거비를 부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진출한 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주거비 부담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절반 이상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정, 2015b).

최근에는 문소희와 이현정(2017)이 청년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에 따라 주거 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20세에서 34세 사이 중 1인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총 1129가구를 분석한 결과, 대상 가구의 27.4%가 주택 보증금 지불을 위해 가족 지원을 받고 있었다. 가구소득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본인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 작은 가구'로 나누고 가족 지원 여부로 나누어 교차해 네 그룹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중 '본인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는 39.4%로 나타났고 가족 지원을 받고도 본인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는 11.4%로 나타났다. 이 11.4%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많고 네 그룹 중 주거면적은 가장 작았다. 가족 지원과 본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주거환경을 가진 그룹으로 나타났다. '본인 주거비 부담이 작은 가구'도 소득이 높아서라기보다 부담이 작은 만큼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즉, 지하 또는 반지하, 옥탑방, 비주택 거주

등에 거주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가족 지원을 받지 않고 주거부담이 작은 가구’는 전체 대상 중 44.5%로 네 그룹 중 주거비가 가장 낮고, 주거면적은 작은 경향을 보였다. 주거 형태도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 등으로 나타나 주거 수준을 낮추고 주거비 자립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거나 부담이 작으면 그만큼 주거환경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타협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주거실태·특성 및 주거비 외의 연구로는 청년의 주거 점유 형태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국복지패널 제7차 자료(2011년)를 활용해 청년가구의 주택점유 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정희주, 오동훈, 2014)에서 20~30대 청년가구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서울에 비해 인천·경기,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가계소득 중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인 슈바베지수가 높을수록 전세보다 자가 형태의 주거를 점유할 확률이 높아졌다. 자가와 월세를 비교해 보면, 가구주 연령, 주택 관련 부채액, 주거비 마련 경로, 슈바베지수, 거주지역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월세 형태로 생활하는 가구가 전세나 자가로 주거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 제10차 자료를 활용해 더욱 최근에 이루어진 점유 형태 연구(이무선, 2017)에서는 20~30대 청년 1인가구가 자가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연령, 주택으로 인한 부채액, 주거비 마련 경로, 슈바베지수, 거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 부채가 낮을수록, 주거비 마련 방법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마련한 경우, 슈바베지수가 높을수록, 지역은 인천·경기지역 또는 비수도권 지역보다는 서울인 경우 자가보다 월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자가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슈바베지수, 거주지역이었는데, 상세히 보면 가구주의 나이가 어릴수록, 슈바베

지수가 낮을수록, 인천·경기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비해 서울인 경우 자가보다 전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연령과 주거지역은 자가 대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슈바베지수는 월세를 선택할 때와는 반대로 슈바베지수가 낮을수록 자가보다는 전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점유 형태가 월세인 청년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이무선, 2017).

〈표 2-1〉 청년 주거 관련 선행연구

분야	연구	활용 자료	대상 기준	지역 구분
주거 특성 및 실태	이현정(2015a)	2012 주거실태조사	20~34세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5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 그 외 지역
	권현주, 이현정(2015)	2012 주거실태조사	20~34세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5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 그 외 지역
	이태진 외(2016)	2005~2015 한국복지패널조사 2006~2015 가계동향조사	19~39세	-
주거 비용	배병우, 남진(2013)	설문조사	대학생	-
	김동원 외(2016)	2006~2014 주거실태조사	20~34세	-
	이현정(2015b)	설문조사	20~34세	-
	문소희, 이현정(2017)	2014 주거실태조사	20~34세	- 서울 - 인천, 경기 - 광역시 - 그 외
점유 형태	정희주, 오동훈 (2014)	2011 한국복지패널조사	20~39세	- 서울 - 인천, 경기 - 비수도권
	이무선(2017)	2015 한국복지패널조사	20~39세	- 서울 - 인천, 경기 - 비수도권

3. 청년 주거와 결혼의 연관성 관련 선행연구

청년 주거 관련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최근 청년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청년 주거 자체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청년 주거와 결혼 간의 연관성을 직접 살펴본 연구가 적어 선행연구 검토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으로 이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미혼인 인구가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 주거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선행연구 고찰에서도 결혼 의향과 결혼 이행에 관한 선행연구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저출산 현상과 연관 지어 주거와 출산 관계를 다룬 연구들 사이에서 주거가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들은 몇몇 존재하지만, 주거-결혼 의향 사이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아래 이어지는 결혼 의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거-결혼 의향 연관성 연구 이외에도 본 연구의 연관성 분석 모형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결혼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결혼 의향 관련 선행연구

결혼 의향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결혼 의향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의에 따라 결혼을 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결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혼이 선택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결혼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고 결국 결혼을 비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의향이란 처음에는 선택의 의미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연령대에서는 결혼의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Stein, 1981; 임선영, 박주희, 2014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혼인 청년 중 남녀 각각 초혼 연령의 최빈값을 기준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결혼 의향을 알아보며, 현재 시점에서의 결혼 의향이 아니라 미혼 남녀가 현재와 더불어 앞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의미하는 결혼 의향으로 정의한다.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는 주거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연령이 변함에 따라 결혼 의향도 달라진다. 2016년 여성가족패널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미혼 여성 전체 중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3.9%,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3.5%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19~29세 미혼 여성 중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1.0%, 30~39세 그룹에서는 55.6%, 40~49세 그룹은 36.2%, 그리고 50세 이상에서는 7.7%로 나타나 39세가 지나면 결혼 의향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또한 학력에 따라서도 결혼 의향이 달랐는데, 최종학력이 중졸 이하인 그룹에서는 4.0%, 고졸인 그룹에서는 33.9%, 전문대졸 이상의 그룹은 48.5%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보면, 중졸 이하인 그룹은 52.6%, 고졸인 경우는 37.7%,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 그룹은 31.5%로 나타나 미혼 여성 그룹 내에서도 연령별, 학력별 결혼 의향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고용상태나 직종, 직장 유형에 따라서도 결혼 의향에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중인 20~44세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에 대한 질문에 미혼 남성 652명 가운데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 78.0%, 비정규직 69.5%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인 경우 결혼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반해, 미혼 여성 816명이 응답한 결혼 의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보면, 정규직 66.8%, 비정규직 63.1%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남성과 비교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미혼 여성 결혼 의향은 오히려 직종 및 직장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가 사무직 67.6%, 관리직 및 전문직 66.3%, 서비스판매직 58.8%, 기타 54.3% 순으로 나타났고, 직장별로는 대기업 78.4%, 중소기업 67.1%, 공무원 및 공공기관 66.1%, 개인사업체 5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성은 고용 안정성이 결혼 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은 직종이나 직장 유형 등 남성과 달리 결혼 의향이 하는 일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삼식 외, 2015).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 이외에 최근에는 가치관의 변화로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가치관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진미정과 정혜은(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에 동의할수록, 전통적인 성 역할 태도에 동의할수록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외의 변수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취업 중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결혼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김혜영과 선보영(2011) 연구에서는 결혼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평균 초혼 연령을 넘긴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종은 화이트칼라보다는 블루칼라인 경우,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낮아서 연령, 직종, 학력에 따라서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상황이 결혼 의향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결혼이 계층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더

해 결혼이나 가족가치관, 결혼 연령에 대한 규범,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일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 일-가족양립에 대한 생각 등이 결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결혼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일수록, 자녀관이 전통적인 여성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결혼 의향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결혼 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일수록,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결혼 후 상황 변화에 대한 여러 기회비용이 결혼 의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선희(2012)의 연구에서도 미혼 여성이 가진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미혼 여성의 연령, 소득, 고용상태가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더해 결혼 및 부부 관계에 대한 가치관들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변화하는 가치관이 결혼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시에, 결혼에 있어서 과거보다 더욱 중요시되는 측면이 있다면 본인의 혹은 상대방의 경제적인 조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경제적인 조건에 주거 마련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고선강과 어성연(2013)은 30대 미혼 남녀의 경제적 자원이 결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경제자원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인 경우 부모 등의 주택 소유 여부가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부모 등의 주택 소유와 결혼 의향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남성 그룹에서는 취업 중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자원과 결혼 의향의 연관성이 특히 미혼 남성 사이에서 두드러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근로소득 또한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남성과 여성 사이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개인근로소득을 상·중·하, 그리고 소득이 없는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상'인 그룹에 속한 여성은 소득 '중·하' 그룹에 속한 여성과 비교해 결혼 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았고, 남성의 경우는 소득 중·하 그룹이 소득이 없는 그룹과 비교해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즉, 소득이 높은 여성이 비혼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탁현우(2017)의 연구 결과에서도 남녀 공통적으로 연령, 소득, 비혼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 등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혼의 이유가 일-가정양립 때문이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와 결혼하기 이른 나이나 결혼적령기가 지났거나 등 시기와 관련된 이유인 경우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주거비를 제외한 예상 결혼비용이 높아질수록 결혼 의향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치관 및 경제적 특성 이외에 가족의 지지 및 지원 등과 결혼 의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박주희(2016)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와 결혼 의향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사회적 지지 중 가족들이 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지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대학생의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할 때 특히 가족 지원 여부가 여성의 경력유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사회 구조에 따라 가족지원에 대한 기대 또한 결혼 의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최근 권소영 외(2017) 연구에서는 만 25~34세 청년 742명의 자료를 분석해 사회경제적 특성과 함께 세대관계의 특성이 결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성교제 여부와 교육연수는 남녀 모두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쳤고, 고용지위는 여성,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남성의 결혼 의향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세대관계 특성으로 살펴본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에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남녀 모두의 결혼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부모가 성인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부모와의 애정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은 경향은 여성 청년에게서만 나타났다. 반면, 남성 청년은 청소, 빨래, 식사준비, 심부름, 병간호 등 도구적 지원을 부모에게 덜 제공할수록 결혼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의 정서적·도구적·경제적 자원이 결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세 가지 하위 자원 중 경제적 자원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선영, 박주희, 2014). 높은 결혼비용과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결혼을 생각함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함께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혼 지원 정책의 만족도가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평균초혼연령 이상의 취업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알아본 연구(박주희, 2017)에서는 결혼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이성 간의 만남의 장 제공,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의 간접적 결혼 지원 정책과 신혼부부 주택 마련 지원,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휴가제도, 결혼자금융자,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 등 직접적 결혼 지원 정책이 결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규직이며 소득이 높고 직접적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남성의 경우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결국 결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용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가족건강성, 이성교제 관계의 질,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결혼 의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원아름, 박정윤, 2016)에서는 가족건강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현재 이성교제 상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결혼 의향이 있을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혼 의향에 대한 연구 중 미혼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결혼 의향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5년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활용해 결혼 의향을 분석한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상황, 가족특성, 동거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 의향이 낮았다. 성별로 남녀 그룹을 분리해 분석하면, 취업 여부가 남성의 결혼 의향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여성 모델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은 동거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결혼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 모델에서는 유의미한 설명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김중백(2013)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비교해 여성의 결혼 의향이 낮고, 여성은 본인이 가진 개인의 지위, 배경, 특성에 따라 결혼 의향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취업 여성보다는 취업을 한 여성들이 결혼 의향이 낮은 경향이 있고, 자녀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혼 의향의 차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주희, 2016)에서도 볼 수 있는데,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남자 대학생은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반면, 여대생의 경우에는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결혼 의향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 결혼 의향에 대한 뚜렷한 성별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가치관의 영향도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달리 나타났는데, 남자 대학생은 자녀에 대한 가

치관이 전통적일수록 결혼 의향이 높고, 여성은 자녀관의 영향보다는 결혼에 대한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결혼 의향 자체가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결혼 의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2〉 종속변수가 결혼 의향인 선행연구

연구	활용 자료	분석 대상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김정석 (2006)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만 20~44세 미혼 남녀 2670명	인구학적 특성 - 성, 교육수준, 거주지역, 연령, 취업 여부 경제적 상황 - 개인 부채 유무 가구 및 가족특성 - 단독가구 여부, 아버지 생존 여부, 어머니 생존 여부, 부모 이혼 경험 여부, 형제자매 이혼 경험 여부 성과 결혼에 대한 태도 - 성관계와 동거에 대한 개방성	
진미정, 정혜은 (2010)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20~44세 미혼 남녀 5984명	가족 가치관 - 결혼 필요성, 자녀 필요성, 자녀의 정서적 가치, 성분업적 역할규범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취업 여부
김혜영, 선보영 (2011)	설문 (대면) 조사	20~44세 미혼 여성 750명	인구사회학적 특성 - 연령, 교육수준, 직종, 월평균소득 가치관 특성 - 낭만적 결혼관, 도구적 결혼관, 결혼 연령 규범, 양성평등 의식, 자녀관 결혼사회구조 인식 특성 - 미혼자에 대한 긍정적 시각, 미혼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정적 태도, 직장 만족도 정책 개입 효과 - 간접적 지원 정책, 직접적 지원 정책	
문선희 (2012)	여성 가족 패널 2차년도	20~44세 미혼 여성 857명	결혼가치관 가족가치관 가족 내 역할 가치관 부부관계 가치관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 고용상태

〈표 2-2〉 계속

연구	활용 자료	분석 대상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고선강, 어성연 (2013)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30~39세 미혼 남녀 668명	가구소득 주택 소유 개인근로소득수준 부모 경제적 지원	연령 교육수준 정규직 여부 부모 동거 부모 결혼 상태 형제자매 결혼 상태 출생 순위 공평양육 자녀 필요성
김중백 (2013)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20~44세 미혼 남녀 3314명	가족배경변수 - 부모 동거 여부, 부모 이혼 여부, 출생 순위 사회경제적 지위변수 - 교육수준, 취업 여부, 가구수입, 부모의 경제적 지원 결혼가치관변수 - 부부간 성역할, 자녀의 가치에 대한 가치관	
임선영, 박주희 (2014)	설문 조사	서울 및 수도권 거주 30대 이상 미혼 남녀 300명	가족가치관 - 결혼관, 성역할 태도, 자녀관 부모의 자원 제공 - 정서적 자원, 도구적 자원, 경제적 자원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부모 동거 여부
박주희 (2016)	설문 조사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 남녀 대학생 427명	가족가치관 - 결혼관, 성역할 태도, 자녀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 비공식적 지지 자원(가족 및 가까운 타인) 에 대한 기대, 공식적 지지(사회기관 서비스 지지 및 전문가 지지)에 대한 기대	연령 가족 형태 부모 결혼생활 미래소득기대 종교
원아름, 박정윤 (2016)	설문· 온라인 조사	이성교제 중인 미혼 남녀 411명	가족건강성 이성교제 관계의 질 결혼이미지	연령 성별 학력 종교 유무 부모 결혼 형태 가족 유형 출생 순위 가정 월평균소득 직업 유무

〈표 2-2〉 계속

연구	활용 자료	분석 대상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권소영 외 (2017)	온라인 조사	만 25~34세 미혼 남녀 742명	사회경제적 특성 - 교육연수, 본인 근로소득, 부모소득, 고용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관계 특성 - 부모 동거 여부, 부모 경제적 지원 빈도, 부모 도구적 지원 빈도, 자녀 경제적 지 원 빈도, 자녀 도구적 지원 빈도,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부모와 애정	연령 현재 이성교제 여부
박주희 (2017)	설문 조사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초혼평균연 령이상 미혼 남녀 취업자 300명	결혼 지원 정책 만족도 - 간접적 결혼 지원 정책(결혼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이성 간의 만남의 장 제공, 결혼준비 교육 프로그램 제공) 만족도 - 직접적 결혼 지원 정책(신혼부부 주택 마련 지원,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휴가제 도, 결혼자금융자, 직장-가정 양립을 위 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 만족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규직 여부 근무기간 근무시간
탁현우 (2017)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복지 실태 조사	20~44세 미혼 남녀 2382명	인구통계학적 변인 - 성별, 연령, 학력 경제상황 - 주택 소유 형태, 월평균소득, 재산 고용상황 - 근무기간, 취업 여부, 직장 유형, 정규직 여부, 주당 근로 시간 결혼비용 - 주거비 제외한 예상 결혼비용 비혼 이유 - 가치관, 경제, 결혼제도 및 출산 부담, 시기, 일-가정양립, 기타	

주: 연구 내에 다수 분석 모델이 있는 경우 결혼 의향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을 기준으로 정리.

나. 결혼 이행 관련 선행연구

결혼이나 출산 등 과거에는 당연한 생애과업으로 여겨졌던 일이 현재는 선택의 문제로 바뀌는 현상에 있어서 주거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주거문제는 청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대안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청년층은 형성해 놓은 자산이 많지 않아 현재 수입이 있더라도 턱없이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용으로 인해 출산은 물론 결혼 이행조차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이다.

특히 주거문제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에 따라 주거문제가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논의되면서 주택 관련 이슈와 출산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먼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고 신혼생활을 시작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출산 시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신혼 초기에 가진 주택자산과 첫 자녀 출산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배호중, 한창근, 2016) 결과에서는 주택 점유 형태가 자가인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부부보다 첫째 자녀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과 출산 간의 관계를 거시적·미시적인 차원에서 각각 살펴본 연구(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 2016)에서는 한 지역의 주택 매매 혹은 주택 전세 가격은 결국 가구의 주거비 부담으로 연계되어서 그 지역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적 차원에서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해당 가구의 출산을 미루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지역의 주택가격, 가구가 부담하는 주거비 모두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과 신혼부부의 출산 결정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이상포, 노정현, 2017)에서는 소득이 높고 자산을 축적하는 부부일수록, 그리고 주거 점유 형태가 전세나 월세인 경우보다는 자가인 경우, 즉 주거안정성이 확보된 부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부부에 비해 출산을 결정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금액이 많은 신혼부부일수록 출산계획

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출산에 앞서 이행하는 결혼 또한 주거문제로 인해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주거와 결혼 사이의 연관성 연구에 의하면, 주거비용이 증가할수록 청년층의 가구 형성은 감소한다는 결과(정의철, 2012)나 결혼 시 주거 점유 형태가 전세나 월세인 경우가 자가인 경우에 비해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이삼식, 최효진, 2012)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청년문제와 주거문제가 동시에 더욱 심화되면서 주거문제로 인한 결혼 지연 및 포기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거문제와 결혼 사이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최근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중 주택가격이 혼인 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강정구, 마강래, 2017)에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18세 이후부터 초혼까지 걸린 미혼 유지 기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주택가격이 초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높은 주택가격이 초혼까지 걸리는 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조건이 초혼 시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경제수준이 남성의 초혼 시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미혼 유지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4.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주거문제가 출산 이행에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사회 현상을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

하다. 하지만 주거문제 해결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접근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결혼이라는 의식을 거쳐야만 출산 이행이 자연스러운 사회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결국은 결혼-출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조건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 지원 또한 적절치 않다. 다만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그 장애를 청년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적절한 접근은 주거환경은 인간에게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사회구성원 누구나 그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려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더욱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이 청년층에게는 이루지 못할 일처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보고, 주거문제와 결혼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년의 주거문제나 비용문제에 대한 연구가 청년 주거 연구에서 주를 이루었고, 자료의 한계로 주거문제와 결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드물다. 현재의 주거 상태도 중요하지만, 결혼과 관련된 주거특성으로 향후 결혼 시 마련하고자 하는 주거 관련 특성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의 주거 부담뿐 아니라 결혼 시 주거를 생각할 때 마주하게 되는 한계를 함께 알아보고 그러한 특성들이 결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미혼 청년 인구를 중심으로 다루며, 미혼인구를 다루기 때문에 결혼 의향을 알아본다. 그리고 결혼과 주거가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주거 연관성은 성별과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와 비교해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결혼 시 주거 마련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이 주도적인 경우가 전통적인 성 역할로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에 따라 남성이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으로 인해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김승권 외, 2012; 정윤탈, 이훈희, 김학만, 2012)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것은 결혼-주거라는 주제의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도 결혼 의향 자체가 성별에 따라 다르고,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남성과 여성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분석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주거 마련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청년 스스로 해결하기에 무리가 있는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의 지원과 자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강정구, 마강래, 2017). 이에 경제적으로 구분을 해서 주거-결혼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과정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해,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보았듯이 청년 주거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주거비용이 매우 높아 더욱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거비용에는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 여러 주거 관련 연구에서 지역별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e.g., 김동원, 배민경, 박승훈, 2016; 이현정, 2015a; 문소희, 이현정,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혼-주거 연관성을 알아봄에 있어 지역을 고려해 그 특징을 파악한다.

제2절 청년의 주거 및 결혼 관련 현황 변화

본 절에서는 연구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인 청년 주거와 결혼과 관련된 현황과 변화를 기존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우선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2차 자료를 활용해 전반적인 현황과 시계열적인 변화를 함께 알아본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어떠한 경향이 있는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년가구의 주거 관련 현황 변화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현재 청년의 주거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청년이 부모님 또는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 주거환경이 청년 자신이 마련하는 경우보다 부모님이나 보호자에 의한 주거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청년이 주거 독립을 한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 주거 현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현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의 주거환경, 점유 상황과 특성 등 그 현황을 변화와 함께 알아본다.

이러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조사의 경우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2년 단위로, 2017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7d). 주요 조사 항목은 주택 마련 관련 사항, 주택 및 주거환경 관련 사항, 이사경험 및 이사의향과 이사계획 관련 사항, 주거의식 관련 사항, 주거 지원 프로그램 정책 평가 및 정책 수요, 그리고 일반적인 가구 특성 및 가구주 특성이다(국토교통부, 2017d).

본 연구에서는 주거실태조사 중 청년가주구 가구를 발췌하여 활용하였으며, 청년가주주 가구는 연령이 만 19~39세인 가구주이며,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주민등록상 같이 있는 경우는 포함하였으나, 실제 동거 여부에서 동거하는 경우는 제외)이다.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혼인상태를 별도로 묻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 사항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이 동거가구원이나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없고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냐는 질문에 무응답인 경우이다. 일부 연도의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에 혼인상태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만 포함하였다. 그리고 일부 연도의 경우 가구주가 된 배경에 ‘결혼을 통하여 가구주가 되었다’는 항목도 있는데 이 경우도 제외하였다.

청년가구주의 가구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친인척, 친구, 비동거 부모와 비동거 조부모이다. 다만 ‘친구’는 2016년에만 별도로 있고 그전에는 ‘기타’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타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기타 가구원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켜 2016년 이전 자료에서는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가구원 정보를 중심으로 청년가구주 가구를 선정하였는데, 201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는 개별 가구원 정보가 없고 ‘세대구성’과 ‘혼인상태’가 있어 미혼이면서 세대구성이 ‘단독세대’, ‘친구 등 비혈연 가구로 구성’, ‘본인+친척’, ‘형제/자매’, ‘본인+조카’인 경우는 포함하고 ‘부부만 거주’, ‘2세대(부부, 자녀가 함께 거주)’, ‘부부+조카’, ‘조부모와 손자녀가 거주’ 등 부부나 손자녀가 포함된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위에 해당하는 청년가구주 가구를 발췌한 후 각 연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년가구 일반 현황

전체 가구 중 분석 대상 청년가구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9.8%가 청년가구였으며, 수도권이 11%로 청년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광역시(9.5%), 도 지역(8.2%) 순이었다.

2008년부터 지난 10년 정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체 가구 중 청년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혼인 연령의 증가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3〉 전체 가구 중 청년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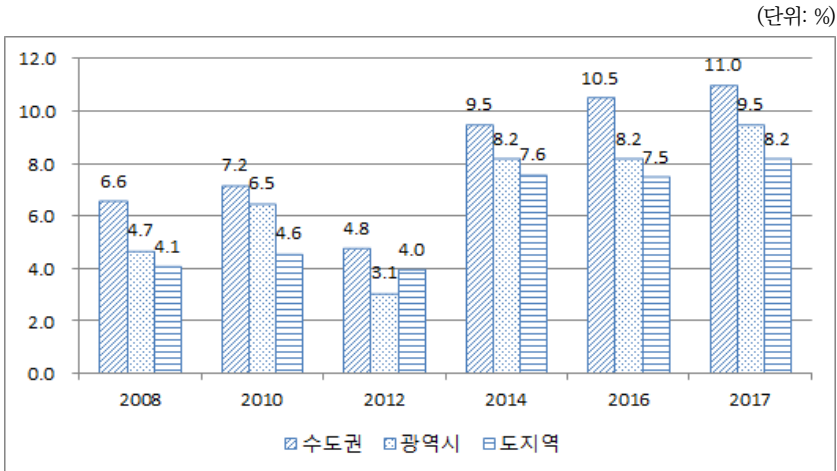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전체	5.4	6.2	4.2	8.6	9.1	9.8
수도권	6.6	7.2	4.8	9.5	10.5	11.0
광역시	4.7	6.5	3.1	8.2	8.2	9.5
도 지역	4.1	4.6	4.0	7.6	7.5	8.2

주: 세종시는 충남(도 지역)에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그림 2-1〕 지역별 전체 가구 중 청년가구 비율



주: 세종시는 충남(도 지역)에 포함하여 분석.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청년가구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2017년 기준 남성이 62.2%로 여성 37.8%에 비해 많았고 연령은 25~29세가 32.5%, 19~24세 26.7%, 30~34세 21.8%, 35~39세가 19.0% 순으로

평균 28.61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 졸업 이상이 각각 절반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67.3%, 비취업인 경우는 32.7%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정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이 55% 전후로 나타나다가 2017년에 60%를 넘었다. 연령은 대체로 평균 28~29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많았으나 2017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취업 여부는 취업인 경우가 70~80%대로 비취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다. 학력과 취업 여부의 전반적인 추이는 대학 졸업 이상과 취업자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2-4〉 청년가구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세)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성별						
남성	56.2	58.8	55.5	56.8	54.2	62.2
여성	43.8	41.2	44.5	43.2	45.8	37.8
연령						
19~24세	22.9	18.4	22.9	23.7	28.3	26.7
25~29세	37.0	33.4	32.2	34.0	27.3	32.5
30~34세	24.4	28.1	29.8	23.2	24.5	21.8
35~39세	15.6	20.1	15.1	19.1	19.8	19.0
평균 연령(세)	28.55	29.50	28.80	28.94	28.70	28.6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7.9	44.6	39.7	41.6	42.3	50.1
대학 졸업 이상	52.1	55.4	60.3	58.4	57.7	49.9
취업 여부						
취업	74.1	81.7	78.4	75.8	73.1	67.3
비취업	25.9	18.3	21.6	24.2	26.9	3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취업 여부는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소득을 얻는 일을 하였거나 무급으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함.

2) 2012년 자료에는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소득을 얻는 일을 하였거나 무급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어 가구주 직업 문항을 기준으로 취업 여부 변수 산출. 직업에 '무직', '학생'인 경우 비취업으로 간주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2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된 기간이 2012년 3.4년 정도에서 2014년 3.5년, 2016년 3.82년, 2017년 3.89년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년의 가구 독립이 약간씩 빨라지고 있는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5〉 청년가구의 가구주가 된 기간

(단위: %, 년)

구분	2012	2014	2016	2017
1년 미만	22.8	27.1	20.2	19.6
1~2년 미만	15.5	16.2	18.9	20.3
2~3년 미만	14.8	11.1	12.0	12.0
3~5년 미만	20.0	16.0	16.1	14.8
5~10년 미만	17.3	19.7	20.4	20.9
10년 이상	9.7	9.9	12.5	12.3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기간(년)	3.41	3.50	3.82	3.89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나. 청년가구의 주택 환경

청년가구의 주택 유형을 알아보면, 과거에서부터 다가구단독주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의 주택 유형은 2014년까지는 아파트인데, 2016년 조사에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17년에는 고시원 항목이 처음 생겼는데, 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합한 비율이 20% 정도로 다가구단독주택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특히 아파트가 줄어들고 고시원과 같은 비교적 열악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청년이 늘고 있어 최근 주거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자립기반이 약한 청년층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 청년가구의 주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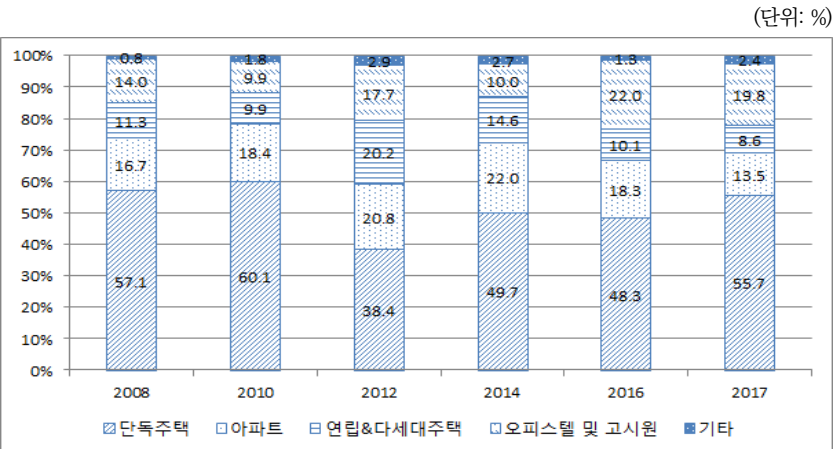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일반단독주택	6.0	9.8	9.4	3.3	2.4	1.3
다가구단독주택	49.4	46.0	29.0	45.2	42.4	50.9
영업겸용단독주택	1.7	4.3	-	1.2	3.5	3.5
아파트	16.7	18.4	20.8	22.0	18.3	13.5
연립주택	1.7	2.3	2.1	2.0	1.1	0.8
다세대주택	9.6	7.6	18.1	12.6	9.0	7.8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0.5	1.5	2.2	0.9	0.8	2.4
오피스텔	14.0	9.9	(주택 이외 거처)	10.0	22.0	11.6
고시원	-	-		-	-	8.2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0.3	0.2	17.7	0.1	0.0	0.0
기타	0.0	0.1	0.7	1.7	0.5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고시원 항목은 2017년 처음 생겼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그림 2-2〕 청년가구의 주택 유형



주: 단독주택은 일반, 다가구, 영업겸용 단독주택을 포함하며 기타에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과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과 '기타'가 포함됨. 2012년에는 오피스텔과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이 '주택 이외의 거처'로 합쳐져 있어 이 항목을 오피스텔 및 고시원으로 하고 기타에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과 '기타'를 포함하였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청년가구 주거환경 중 하나인 주택 내 위치와 쪽방 거주 여부를 함께 살펴보면, 주택이 지하나 옥상에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쪽방에 사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청년가구의 주택 내 위치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지상	93.7	91.6	96.1	95.7	95.1	96.0
반지하	5.4	6.6	2.0	3.7	4.5	3.5
지하	1.1	1.0	1.9	0.4	0.2	0.3
옥상(옥탑)	0.0	0.8	0.0	0.2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그러나 주택 내 위치와 쪽방 거주 여부를 각각 살펴보면, 주택 내 위치는 과거에 비해 약간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쪽방 거주 여부는 매우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

〈표 2-8〉 쪽방 거주 청년가구

(단위: %)

구분	2014	2016	2017
쪽방	1.6	0.8	3.0
쪽방 아님	98.4	99.2	97.0
계	100.0	10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14년, 2016년, 2017년).

청년가구의 주택이 원룸형인지의 여부를 보면, 2017년에는 원룸형이 65% 정도 되지만, 2008년에는 원룸형이 아닌 경우가 60%에 가깝게 나타나 최근으로 올수록 원룸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증가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작은 규모의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9〉 청년가구의 주택 구조

(단위: %)					
구분	2008	2010	2014	2016	2017
원룸형	43.4	43.9	59.8	60.7	64.6
원룸형 아님	56.6	56.1	40.2	39.3	3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청년가구주가 거주하는 주택 면적을 보면, 17~34㎡ 미만(대략 6~11평 미만)인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서 원룸형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과 함께 원룸 형태에 적절한 11평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평균 사용 면적도 2008년에 비해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원룸형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 면적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공간 평균이 10평 이내로 줄어들어 매우 작은 규모의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2-10〉 청년가구의 주택 사용 면적

(단위: %,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17㎡ 미만	4.6	7.6	9.9	12.7	8.6	16.6
17㎡~34㎡ 미만	58.5	51.9	49.3	48.5	52.7	52.3
34㎡~50㎡ 미만	18.5	19.0	16.0	19.6	24.1	20.3
50㎡~67㎡ 미만	13.4	14.4	14.1	10.1	11.0	6.7
67㎡ 이상	4.9	7.0	10.7	9.2	6.6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면적(㎡)	37.32	36.83	39.06	37.19	36.46	32.10

- 주: 1) 2008년, 2010년은 주택 사용 면적은 무응답이나 주택총면적이나 대지총면적, 분양면적에는 응답한 경우 값을 대체하였음.
 2) 2014년 원자료에는 면적을 평수로 응답한 경우 ㎡로 환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제시하였으나(예를 들어 15평인 경우 3.3을 곱하면 49.5㎡로 환산되어야 하나, 원자료에는 50으로 환산되어 있음), 본 분석 시에는 소수점을 첫째자리까지 1평당 3.3을 곱하여 환산하였음.
 3) 2012년 원자료에는 면적이 소수점 이하 제시 없이 ㎡로만 제공하고 평수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 원자료대로 분석하였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다. 청년가구의 주택 점유 상황

다음으로 청년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보증금 있는 월세가 50~60%대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까지 더해 보면 2012년 이후 월세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점유 형태는 전세이다. 자가인 경우는 대체로 5~6%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택 점유 형태의 경향을 보면, 월세가 증가하고 전세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경향과도 관계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청년층의 특성인 약한 자립기반으로 인해 주택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1〉 청년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자가	6.7	5.9	4.7	6.4	9.0	6.2
전세	31.7	27.2	18.3	23.1	21.5	15.6
보증금 있는 월세	48.9	56.6	57.8	61.4	54.7	58.5
보증금 없는 월세	3.0	4.8	11.2	4.0	6.1	10.2
사글세 또는 연세	6.2	2.4	4.4	1.8	3.3	4.7
무상	3.6	2.9	3.6	3.2	5.3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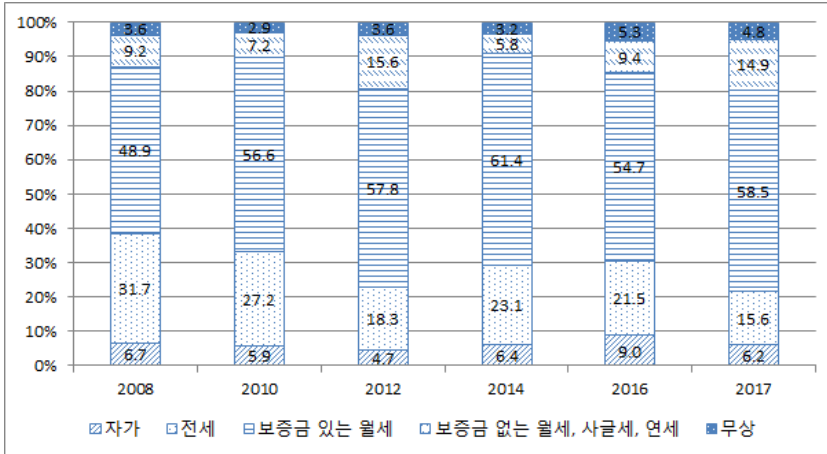
주: 2008년과 2010년에는 '연세' 대신 '일세'가 있었으나, 두 해 모두 '일세'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없었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54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그림 2-3] 청년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주택 점유 형태별로 주택가격 및 임대료를 살펴보면, 사글세나 연세를 포함한 월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가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은 2008년에 비해 2017년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도 보증금과 월세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청년가구의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단위: 만원)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주택가격(자가)	11,998	14,557	14,763	17,473	19,439	20,034
전세보증금	4,077	5,182	7,283	6,641	7,388	8,044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899	906	929	1,016	1,189
	월세	30	30	32	36	37
월세(사글세 또는 연세 포함)	22	37	29	31	29	29

주: 1) 주택가격 및 임대료는 당시 가격을 의미함.

2) 2012년은 주택 점유 형태가 연세인 경우 별도로 임대료를 묻지 않아 월세에 월세와 사글세만 포함되고 연세는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청년가구주가 된 이후 자가주택을 소유했는지 알아본 결과, 자가주택을 마련한 경험이 있는 청년가구주는 10% 내외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17년에는 7.7%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2-13〉 청년가구가 가구주가 된 이후 한 번이라도 자가주택 마련 경험

(단위: %)

구분	2008	2010	2014	2016	2017
마련한 적 있음	8.9	10.9	10.1	11.0	7.7
마련한 적 없음	91.1	89.1	89.9	89.0	9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08년 자료는 '가구주가 된 이후 주택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에 '① 집을 산 적이 있다(구입, 분양, 신축 등)'와 '② 집을 상속, 증여받은 적이 있다' 응답인 경우 '마련한 적 있음'에, '③ 집을 사거나 상속, 증여받은 적이 없다' 응답인 경우 '마련한 적 없음'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자가주택을 마련한 경험이 있는 청년가구주의 경우 마련 방법을 알아본 결과, 기존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신규 분양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증여나 상속으로 자가주택을 마련한 경우도 2016년에 13.3%로 나타났다. 추이를 보면, 신규주택 분양 또는 구입, 증여나 상속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기존주택 구입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14〉 청년가구가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자가주택 마련 방법

(단위: %)

구분	2008	2010	2014	2016
신규주택 분양 또는 구입(재건축 포함)	83.9	17.7	13.8	11.5
기존주택 구입		63.9	68.4	75.2
개인주택을 신축		1.1	0.5	0.0
증여나 상속	16.1	17.3	16.2	13.3
기타	-	0.0	1.1	0.0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청년가구주 중 자가주택을 마련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가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알아본 결과, 0개월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 처음 가구주가 되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로 2~3년 정도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청년가구가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자가주택 마련까지의 기간

(단위: %, 개월)

구분	2008	2010	2014	2016	2017
0개월	46.4	40.5	53.9	39.2	45.0
1~12개월	10.5	10.6	15.5	20.4	19.9
13~72개월	32.1	31.9	22.8	16.1	18.5
73개월 이상	11.1	16.9	7.9	24.3	1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기간	28.98	34.86	24.69	36.12	33.34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라. 청년가구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견해

청년가구가 본인이 생활하는 주택에 대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는 ‘보통’이라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해당연도에는 대체로 만족이 46.9%, 보통은 40.2%로 나타났다. 최근으로 올수록 ‘매우 만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만족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16〉 청년가구의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매우 불만족	2.7	2.8	0.5	1.1	0.4	0.8
약간 불만족	21.6	17.9	11.0	14.3	9.3	10.9
보통	-	-	40.2	-	-	-
대체로 만족	73.7	76.3	46.9	76.9	74.1	76.3
매우 만족	2.0	2.9	1.4	7.7	16.2	1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점수	2.75	2.79	3.38	2.91	3.06	3.00

주: 2012년은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으로 하여 평균 산출.
그 외는 매우 불만족 1점, 약간 불만족 2점, 대체로 만족 3점, 매우 만족 4점으로 하여 평균 산출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청년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주택에 대한 만족도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대체로 만족하고 있고 최근에 ‘매우 만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2-17〉 청년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매우 불만족	1.6	1.9	0.1	0.9	1.0	1.0
약간 불만족	21.8	21.0	6.4	20.4	11.2	10.7
보통	-	-	48.0	-	-	-
대체로 만족	74.5	73.4	43.2	73.5	75.8	76.3
매우 만족	2.1	3.7	2.2	5.2	11.9	1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점수	2.77	2.79	3.41	2.83	2.99	2.99

주: 2012년은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으로 하여 평균 산출.
그 외는 매우 불만족 1점, 약간 불만족 2점, 대체로 만족 3점, 매우 만족 4점으로 하여 평균 산출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 청년가구주에게 물어본 결과, ‘꼭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율이 2010년을 제외하고는 60% 내외로 나타났으며, ‘내 집을 꼭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지만, 2014년과 2016년의 결과를 보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어 시기마다 사회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등 사회적 상황에 의해 비교적 빠르게 영향을 받아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18〉 청년가구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7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	75.2	56.3	63.5	59.2	63.7
보통	-	28.2	-	-	-
내 집을 꼭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24.8	15.5	36.5	40.8	3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12년은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통’은 보통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집을 꼭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앞서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청년 가구주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세나 월세의 경우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이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집에서 사는 것이 주거안정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9〉 청년가구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구분	2010 ¹⁾	2014 ¹⁾	2016	2017
주거안정 차원	90.7	92.8	94.2	88.0
주택을 통한 자산증식	8.5	7.2	4.1	9.7
역모기지 등 노후생활자금 활용가능	-	-	1.7	2.2
기타	0.8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선택지가 2010년, 2014년에는 ‘역모기지 등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이 꼭 있어야 한다’ 항목은 없었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그러면 반대로 청년가구주가 ‘꼭 내 집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 변화를 보면, ‘소요자금이 너무 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최근으로 올수록 가장 많고, 그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내 집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은 과거에는 가장 많았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소요자금이 너무 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증가하는 반면 ‘내 집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없다’는 응답은 줄고 있어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인해 너무 높은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을 갖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을 마련하고 싶어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택 보유 의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표 2-20〉 청년가구가 내 집을 꼭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구분	2010	2014	2016	2017
소요자금이 너무 들기 때문	34.7	37.5	39.1	53.6
주택이 더 이상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	21.6	18.5	23.0	20.1
내 집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 없음	42.8	44.0	37.9	26.3
기타	0.8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현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약간 많았으나 2017년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2-21〉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단위: %)

구분	2008	2010	2014	2016	2017
필요하다	54.7	60.5	55.2	50.3	45.5
필요하지 않다	45.3	39.5	44.8	49.7	5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가구의 경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1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은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 보조금 지원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월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반면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에 대한 욕구는 감소하고 있어 월세마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2〉 청년가구에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1순위

(단위: %)

구분	2008	2010	2014	2016	2017
월세 보조금 지원	13.8	13.9	14.3	16.9	24.5
전세자금대출 지원	36.7	44.8	38.6	33.9	30.7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	25.1	20.0	19.2	17.3	15.5
주택개량·개보수 자금대출 지원	1.2	0.5	0.8	1.6	0.6
주택개량·개보수 현물 지원	-	-	1.3	0.2	-
단기공공임대주택 공급 ¹⁾	3.6	2.5	5.6	5.0	9.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2.5	13.3	16.1	15.5	12.8
공공분양주택 공급	7.2	4.7	2.8	7.5	5.7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²⁾	-	-	1.3	2.0	1.2
기타	0.0	0.3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2008년과 2010년에는 ‘단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신 ‘분양전환임대주택공급’이 있었음. ‘단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에 분양전환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20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 결과를 여기에 표기함. 2017년에는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임.

2) 2017년에는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등’임.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 지원에서 2순위로 나타난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나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 분양주택 공급 등이었다. 2순위에서는 1순위보다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에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표 2-23〉 청년가구에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2순위

(단위: %)

구분	2008	2010	2014	2016	2017
월세 보조금 지원	6.3	5.9	6.8	7.8	8.0
전세자금대출 지원	20.7	18.0	17.3	18.1	24.0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	22.4	18.6	18.7	20.6	12.6
주택개량·개보수 자금대출 지원	3.0	2.1	2.3	1.7	2.5
주택개량·개보수 현물 지원	-	-	1.0	3.7	
단기공공임대주택 공급 ¹⁾	7.7	9.4	9.9	8.0	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3.3	22.8	20.1	16.1	17.2
공공분양주택 공급	25.0	20.2	12.5	12.6	19.8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²⁾	-	-	11.3	9.3	7.1
기타	1.5	3.0	0.0	2.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2008년과 2010년에는 '단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신 '분양전환임대주택공급'이 있었음. '단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에 분양전환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20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 결과를 여기에 표기함. 2017년에는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임.

2) 2017년에는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등'임.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청년가구주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을 알아본 결과, 매우 낮은 비율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 지원이나 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은 결혼 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재 미혼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에서는 이용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2-24〉 청년가구 주거 지원 프로그램 이용률

(단위: %)

구분	2016	2017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	1.9	2.0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	0.7	1.3
공공임대주택	1.4	2.5
주거급여	0.8	0.8

주: 전체 청년가구 중 해당 프로그램 이용 가구 비율임.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2016년,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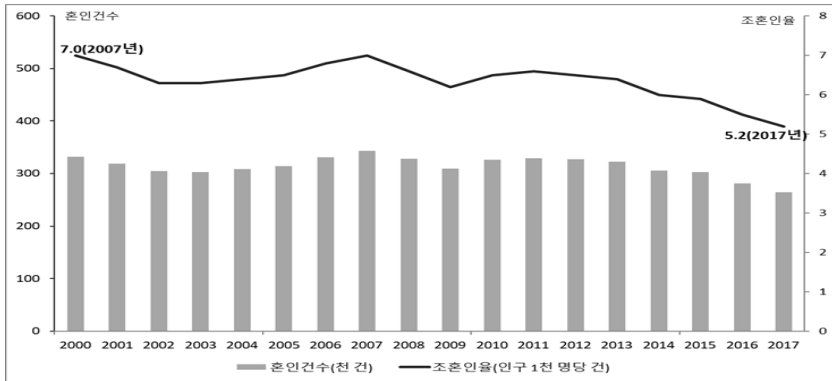
이렇게 2차 자료인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미혼 청년들, 특히 청년가구주인 경우 전반적인 특성과 그 특성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실태조사를 활용해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의향 등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거와 결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 자료 활용으로는 미혼 청년의 주거 현황과 관련된 보다 큰 경향과 상황의 변화를 알아보는 측면에 도움을 받고, 보다 면밀한 주거와 결혼 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사를 설계해 직접 자료를 생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관련 요인과 결혼 관련 요인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기존 자료의 부재로 분석 가능한 자료 생성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점을 활용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에 대한 개요는 제1절 연구방법 부분에 소개해 두었다.

2. 청년층의 결혼 관련 현황 변화

청년층의 혼인 지연과 포기 등으로 혼인은 감소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혼인건수의 변화를 보면, 2000년 33만 2090건에서 2017년 26만 4455건으로 절대적인 수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혼인건수를 인구에 비례해서 보기 위해 인구 1천 명당 혼인건

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을 보면, 2000년 7.0전에서 2017년 5.2건으로 감소해 혼인율의 확연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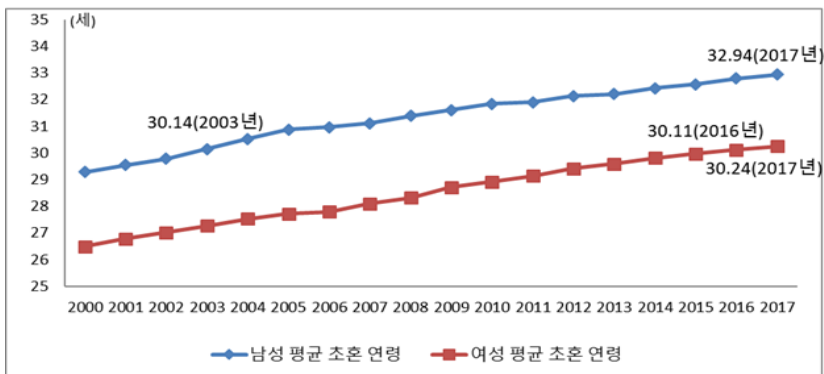
[그림 2-4]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변화



자료: 인구동향조사: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통계청, 2000~2017).

또 다른 현상인 평균 초혼 연령의 상승도 계속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평균 초혼 연령은 2000년 29.28세에서 2003년에는 30세를 넘어섰고 (30.14세), 2017년에는 32.94세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2-5] 평균 초혼 연령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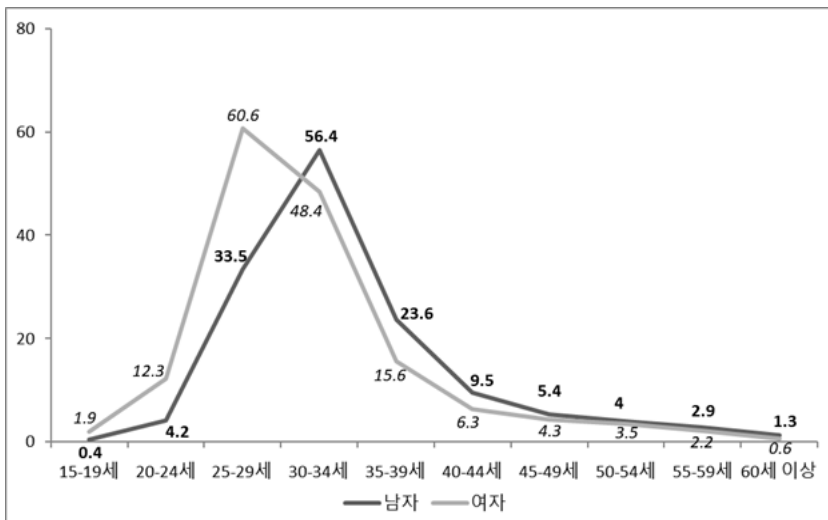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향조사: 혼인통계 (통계청, 2000~2017).

여성의 경우는 2000년 26.69세에서 2016년에는 30세를 넘어섰고 (30.11세), 2017년 현재 30.24세의 평균 초혼 연령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지속적으로 평균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다.

연령별 혼인율을 보면, 혼인율 감소와 평균 초혼 연령 상승의 결과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은 30~34세 연령 집단이 혼인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25~29세 연령 집단에서 혼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가장 높은 혼인율을 보이는 그룹이 25~29세로 60.6건이다. 남성은 혼인율이 가장 높은 30~34세 그룹에서 56.4건의 혼인율을 보이고 있어 혼인 연령 상승과 혼인율 감소가 같이 나타나는 효과를 보여 준다.

[그림 2-6] 연령별 혼인율(2017년)

(단위: 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건)



자료: 통계청(2018. 3. 21.). 2017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이렇게 혼인건수의 감소와 평균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미혼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만 18~49세 인구 중 미혼인구 비율을 알아보면, 1990년에는 비율이 35.2%에서 2015년에는 46.7%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도의 미혼인구 자료는 다른 해 자료와 달리 만 15세부터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어 만 18~24세 카테고리를 제외한 1990년부터 2015년의 미혼인구 변화를 연령별로 본다. 만 25~29세 미혼인구는 1990년 39.6%에서 2015년 83.9%로 미혼의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초혼 연령이 포함된 만 30~34세 그룹을 보면, 1990년에는 9.7%인 비율이 2015년에는 46.9%로 네 배 이상 큰 폭으로 미혼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다음 연령 그룹인 만 35~39세 미혼인구도 15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 청년층에서 미혼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5〉 만 18~49세 미혼인구의 변화(1990~2015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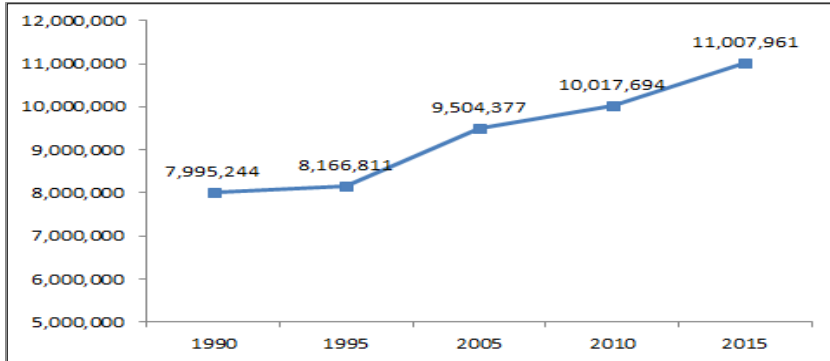
구분	1990		1995		2000 ¹⁾		2005		2010		2015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18~24세	5,721,668 (6,226,945)	91.9	5,355,886 (5,799,773)	92.3	7,270,902 ¹⁾ (7,539,770)	96.4	4,755,577 (4,907,926)	96.9	4,352,865 (4,434,013)	98.2	4,637,857 (4,714,376)	98.4
25~29세	1,718,045 (4,333,500)	39.6	1,947,586 (4,137,913)	47.1	2,278,879 (4,096,978)	55.6	2,591,335 (3,671,847)	70.6	2,743,190 (3,538,949)	77.5	2,539,393 (3,024,909)	83.9
30~34세	407,860 (4,207,714)	9.7	557,047 (4,230,239)	13.2	797,870 (4,093,228)	19.5	1,237,923 (4,096,282)	30.2	1,469,486 (3,695,348)	39.8	1,693,003 (3,607,875)	46.9
35~39세	99,612 (3,201,210)	3.1	206,369 (4,133,864)	5.0	313,708 (4,186,953)	7.5	535,108 (4,112,785)	13.0	806,770 (4,099,147)	19.7	988,968 (3,774,150)	26.2
40~44세	32,419 (2,539,269)	1.3	70,768 (3,071,101)	2.3	149,966 (3,996,336)	3.8	250,616 (4,123,041)	6.1	424,288 (4,131,423)	10.3	715,644 (4,207,927)	17.0
45~49세	15,640 (2,176,890)	0.7	29,155 (2,464,295)	1.2	61,132 (2,952,023)	2.1	133,818 (3,900,899)	3.4	221,095 (4,073,358)	5.4	433,096 (4,259,407)	10.2
계	7,995,244 (22,685,528)	35.2	8,166,811 (23,837,185)	34.3	10,872,457 (26,865,288)	40.5	9,504,377 (24,812,780)	38.3	10,017,694 (23,972,238)	41.8	11,007,961 (23,588,644)	46.7

주: 1) 자료상 연령 구분의 한계로 15~24세에 해당하는 수치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7] 만 18~49세 미혼인구의 변화(1990~2015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제3절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현황³⁾

본 절에서는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청년들의 주거환경 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정책에 청년층을 특화해 추가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청년의 주거문제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정책적 내용 또한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재 주거 지원에서 청년층을 위한 특별 정책, 또는 지원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하는 주요 정책들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청년층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3) 본 절의 모든 내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거복지 사용설명서' 중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마이홈(www.myhome.go.kr)과 주택도시보증기금(nhuf.molit.go.kr)에 제시된 상세 내용을 참고해 정리함. 별도의 자료출처가 없는 경우 위의 자료임. 정책 내용 전달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된 내용과 동일한 표현 사용함.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주거복지 로드맵에 제시된 청년층 대상과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 청년층 대상 주거 지원 정책

청년층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은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이 주 대상이고, 그 내용으로는 주택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과 금융 지원,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된다.

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주택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에는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공지원주택, 대학생 기숙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지원 형태에 청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1) 행복주택

청년층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을 보면 입주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청년이고, 그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그리고 사회초년생은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본인은 80% 이하)의 소득기준에 해당될 때 입주대상이 된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45㎡ 이하 규모의 주택에 시세의 70% 내외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이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2)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 입주대상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해당된다.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이 1순위 대상이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가구의 대학생이고, 그 외 일반가구의 대학생은 3순위가 된다.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의 준비생이고 1순위, 2순위, 3순위는 대학생의 조건과 동일하다. 규모 85㎡ 이하(1인가구 경우 6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역별 일정 전세금(수도권 80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그 외 지역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세임대를 지원한다.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 시 상향조정 가능)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청년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를 우선하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가구에 대해 특별공급이 이루어진다. 시세 대비 70~85%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나. 금융 지원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청년이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으

로 2018년에 마련된 것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 기능을 갖는 통장이다(국토교통부, 2017b, p. 15). 만 19~29세 청년 중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연 600만 원 한도) 납입이 가능하다. 이때 금리는 1년 이하 2.5%, 1~2년은 3.0%, 2년 이상은 3.3%가 적용되는데 우대금리는 10년간 적용된다.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2)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연소득 합산 5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25세 미만 무주택 청년 단독세대주⁴⁾가 대상이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고 대출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3500만 원(임차보증금의 70%)이며 소득에 따라 연 2.3~2.7%의 대출 금리가 발생한다. 대출은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해 대출기간이 최장 10년이 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24개월 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우대형에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에 대한 청년층 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취업준비생이 우대 대상인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그리고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4) 예비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급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 필요)하도록 개선(국토교통부, 2018b)

이 4000만 원 이하인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이 대출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5%이고 대출 한도는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인 경우 대출 대상 주택이 된다. 대출 기간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지원과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간 대출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없다.

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기 때문에 청년층이 포함된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은 100㎡ 이하)로 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고 2억 원 이내이고, 대출에 대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25~3.15%의 금리가 적용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서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 조건이 구분되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대상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은 70㎡ 이하)이면서 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다.

2.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정책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전용 금융 지원 순으로 알아본다.

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주택

1)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영구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다. 여기에 무주택세대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우선공급의 대상이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과 같이 국민임대주택도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전용면적 50㎡ 이하는 5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다. 2017년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는 가구당 소득이 341만 9110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동일순위에서는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2)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 내용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에 대한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8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대해 80% 비율로 공급하고 있다.

3) 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5년·10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한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동일순위 경우에는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은 공급물량의 30%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4) 신혼전용 매입임대

기존 매입임대 사업에 2018년에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신규로 도입 하였다(국토교통부, 2017b, p. 19).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80% 이하(50% 이하 우선공급)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입주대상으로 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시 9회 추가 연장이 가능해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이 될 수 있다.

5)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국토교통부, 2016, p. 7).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는 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만 40세 미만이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신혼부부가 입주대상이다. 혼인기간은 7년 이내이고 예비신혼부부 또한 해당된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 5000만 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만~30만 원 수준이고 10년간 임대료를 고정으로 유지한다(국토교통부, 2017a, p. 2).

6)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50% 이하 우선공급)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가 입주대상이다. 시세의 30~50%로 거주 가능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임대가 가능하다.

7) 공공지원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가 입주대상이고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8년 거주 가능하다.

나.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가 입주대상이다. 공급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입주 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양형과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형이 있다. 초기부담은 분양형은 주택가격의 30% 수준이고 임대형은 주택가격의 10~15%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설계가 이루어지고 타운 안에는 육아 및 교육 부문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다. 분양주택 특별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맞벌이120%) 이하 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가 대상이다. 공공분양주택 중에서는 30%, 민간분양주택 중에서는 20% 비율로 신혼

부부에게 특별공급이 이루어진다. 입주순위는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해 선발한다.

라. 신혼부부 전용 금융 지원

1)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 60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이며, 금리는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8b).

2)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시가 5억 원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대출 한도는 2억 2000만 원(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2억 4000만 원)이며,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8b).

〈표 2-26〉 대학생,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정책

구분	개요	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¹⁾ 의 자격)	임대 기간
임대 주택	행복 주택	-대학생 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계층(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 신혼부부 계층(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대상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및 부모 또는 해당세대 소득과 자산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 -해당(연접지역) 소재 대학 재학/졸업/근무/거주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인 경우	취준생 4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6년, 무자녀 신혼부부 6년, 1자녀 이상 신혼부부 10년 ²⁾ (2년 단위 계약체결)
	영구 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에 대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 유자녀 무주택세대원 수급자 신혼부부에 대해 일부 우선공급 ³⁾	50년 (2년 단위 계약체결)
	국민 임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 일정 소득 및 자산 이하, 청약저축 등 기준 충족, 임신 포함 유자녀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일부 우선공급(혼인기간별 우선순위 다름)	30년 (2년 단위 계약체결)
	5년·10년 공공 임대	임대무기기간(5년,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일정 소득 및 자산 이하, 청약저축 등 기준 충족, 임신 포함 유자녀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일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범위, 민간은 10%) *맞벌이인 경우 소득기준 다소 완화	5년, 10년 (2년 단위 계약체결)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구 뉴스테이)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8년 거주보장,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일반공급 시세 대비 90~95% 수준으로 임대(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계층에는 특별공급 시세 대비 70~80%) 무주택자 우선이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계층(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 등)에 특별공급	8년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세대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매입하고 고정적인 임대료(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50% 수준으로 1억~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는 20만~30만 원 수준)로 임대주택 공급 일정 소득 및 자산 이하(맞벌이인 경우 소득기준 완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70%) 또는 일반인(30%)	최장 10년 (2년 단위 계약체결)

〈표 2-26〉 계속

구분		개요	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¹⁾ 의 자격)	임대 기간
전세 주택	장기 전세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 시중 시세의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	일정 소득 및 자산 이하, 청약저축 등 기준 충족, 임신 포함 유자녀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일부 우선공급(혼인기간별 우선순위 다름)	20년
	청년 전세 임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 지역 5500만원 한도에서 임대(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내 해당액)	대학 소재지 이외 시군 출신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우선순위에 따라 소득기준 달라짐	최대6년 (2년 단위 계약 체결)
	신혼 부부 전세 임대		일정소득 이하, 무주택 (예비)신혼부부(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우선순위 다름)	20년 (2년 단위 계약 체결)

주: 1)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신혼부부임.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4) 대학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리.

자료: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2018. 63 20. 인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14호. 2018. 5.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2017a). 보도자료(10년간 임대료 상승 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실시).

〈표 2-27〉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지원 정책(2018. 1. 29. 시행)

구분	대상	대출대상 주택기준	대출 금액	대출 기간	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기준)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은 무소득자 및 부모소득 6000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은 부부 합산소득 4000만 원 이하 및 취업 5년 이내	임차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한도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2회차 연장부터 10% 상환)	연 1.5%
청년층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의 70%, 2000만 원 한도	2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연 2.3~ 2.7%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비도시 지역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1억 7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 3000만 원 한도	2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연 1.2~ 2.1%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중 시가 5억 원 이하	2억 원 이내 (DTI 60%, LTV 70% 이내)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연 1.70~ 2.75%

자료: 국토교통부(2018a). 보도자료(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3. 최근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 변화

주거 정책은 전통적으로 저소득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 이 대상이 청년층의 일부인 신혼부부로서 확대되었으며(주로 자녀출산과 연계되어) 최근에는 혼인과 관계없는 청년층까지도 확대되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신혼부

부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중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생이 추가되고 취업준비생 등이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어 왔다(임덕영 외, 2017). 전세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행복주택을 통해서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행복주택도 국정과제에서는 ‘주거안정 대책 강화’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거 관련 국정과제를 2개 포함시켰는데 하나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으로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부담 경감을 별도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취약가구’로 구분하여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고 2018년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별도로 발표하였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청년층의 경우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 실(청년주택 25만 실과 기숙사 5만 명)을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새로 도입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기존의 월세 자금대출 지원도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거정보 및 교육에 대한 부분도 강화되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및 출산에 초점을 맞추어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20만 호 공급을 발표하였으며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임대주택의 규모 확대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 그리고 새로운 자금지원 방식 도입이다(국토교통부, 2017b, 2017c).

그리고 올해 7월에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청년의 경우 기존 청년주택 25만 실과 기숙사 5만 명에서 청년주택 27만 실과 기숙사 6만 명으로 확대하였고 금융 지원에 있어서도 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설하고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대출금리 우대 등을 확대하였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20만 호에서 23만 5000호로, 공공지원지원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는 내용을 새로 도입하였다.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7만 호에서 10만 호로 확대하였으며 금융 지원에 있어서도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이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새로운 주거 지원 정책 대상으로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은 근로능력이 있고 성인으로 이행기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 지원 정책에서 관심이 없었으나(박미선, 2017b) 최근 이들의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 확대된다면 기존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또 다른 잔여적 대상자 추가에 그칠 우려도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배려층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임덕영 외, 2017).

제 3 장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 및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제1절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과 미혼 이유

제2절 미혼 청년의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제3절 소결

3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 및 <<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본 연구에서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결혼과 관련된 결과를 분석한다. 조사 개요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제1장 서론의 2절 연구방법에 제시되어 있다.

제1절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과 미혼 이유

1. 결혼 의향

본 조사에 참여한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을 알아본 결과, 현재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36.6%, 현재 결혼 의향은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42.3%로 전체 78.9%가 결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앞으로도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경우와 아직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0.4%, 10.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결혼 의향은 성별, 연령, 취업 여부, 이성교제 여부,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현재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2%였으나 여성은 29.1%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도 앞으로도 결혼 의향은 없다'는 비율이 남성은 7.8%였고, 여성은 13.8%로 남성과 비교해 높은 비율로 나타나 미혼인구 중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연령대의 남녀 사이에 결혼의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평

균 초혼 연령 미만과 이상 그룹에서 현재 결혼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나 모르겠다’는 비율이 평균 초혼 연령 미만 그룹은 9.1%인데, 평균 초혼 연령 이상 그룹은 13.1%로 평균 초혼 연령이 지난 연령대 그룹이 오히려 결혼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1〉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현재, 결혼할 의향이 있다	현재는 없지만 언젠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	현재도 앞으로도 결혼할 의향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모르겠다)	계	(명)
전체	36.6	42.3	10.4	10.7	100.0	(3,002)
성별($\chi^2=68.7^{***}$)						
남성	42.2	40.4	7.8	9.6	100.0	(1,708)
여성	29.1	44.8	13.8	12.3	100.0	(1,294)
연령($\chi^2=13.0^{**}$)						
평균 초혼 연령 미만	36.5	43.8	10.6	9.1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36.7	40.2	10.0	13.1	100.0	(1,224)
거주지($\chi^2=8.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7.0	42.6	10.1	10.2	100.0	(1,656)
광역시	36.4	44.3	8.6	10.7	100.0	(598)
그 외 시도	35.6	40.0	12.5	11.9	100.0	(748)
취업 여부($\chi^2=81.5^{***}$)						
취업	39.5	41.6	9.0	9.9	100.0	(2,554)
미취업	20.0	46.6	18.1	15.3	100.0	(448)
이성교제 여부($\chi^2=390.7^{***}$)						
이성교제 상대 있음	54.8	35.3	4.8	5.1	100.0	(1,343)
이성교제 상대 없음	21.9	48.0	14.9	15.3	100.0	(1,659)
부모님 경제수준($\chi^2=33.3^{***}$)						
상	39.4	46.8	8.3	5.4	100.0	(329)
중	37.0	42.4	9.8	10.9	100.0	(2,275)
하	32.0	38.0	15.5	14.5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또한 현재 ‘결혼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취업을 한 경우 39.5%인 반면, 미취업인 경우는 20.0%로 나타났고, 결혼 의향이 전혀 없는 비율은 취업인 경우 9.0%, 미취업인 경우 18.1%로 차이를 보였다. 결혼 의향은 현재 이성교제 여부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예상할 수 있듯이 교제 상대가 있는 경우는 현재 결혼할 의향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는 아니더라도 결혼 의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더하면 이성교제 중인 미혼은 90.1%가 결혼 의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제 상대가 없는 경우는 현재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가 21.9% 정도로 나타나 현재 교제 상대의 유무는 현재 결혼 의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부모님 경제수준이 낮다고 지각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결혼 의향이 낮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의 분석에서 이 결혼 의향에 따른 차이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때 현재 결혼 의향이 있거나 현재는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결혼 의향 있는 그룹으로 묶고, 현재도 앞으로도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그룹은 결혼 의향 없는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2. 미혼 이유

미혼 남녀에게 현재 미혼인 가장 주된 이유를 물은 결과, 약 40%는 ‘현재 결혼은 하고 싶지만 학업이나 취업 또는 집 마련 문제 등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약 30%는 ‘아직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23.6%의 응답자는 ‘결혼은 하고 싶으나 적절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미혼으로 남아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5.3%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주된 이유는 성별, 연령, 취업 여부, 이성교제 여부,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인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직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는 이유는 남성의 경우 47.2%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29.8%로 나타났다. 여성은 오히려 ‘아직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미혼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과 남성의 미혼 유지 이유가 매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인 그룹과 이상인 그룹 모두 ‘상황으로 인해 결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평균 초혼 연령을 지난 그룹은 32.2%가 결혼할 상대를 만나지 못한 것을 미혼의 이유로 꼽았다.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취업한 청년의 경우 28.1%였고, 미취업인 청년의 경우는 37.7%로 나타났다. ‘결혼하고 싶으나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취업한 경우 25.9%, 미취업인 경우 10.6%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으나 상황상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취업한 경우 39.0%, 미취업인 경우 43.9%로 나타나 취업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 미혼의 이유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미혼인 주된 이유는 이성교제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와 높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제 상대가 있는데 미혼인 이유는 여러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58.6%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교제 상대가 없는 경우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37.8%, ‘적절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가 33.5%,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가 24.4%로 다양한 이유로 현재 미혼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른 결과를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결혼할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는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이 다른 그룹과 비교해 결혼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현재 미혼인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아직)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혼은 하고 싶지만 적절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학업, 취업, 집 마련 문제 등)	기타	계	(명)
전체	29.5	5.3	23.6	39.7	1.9	100.0	(3,002)
성별($\chi^2=163.2^{***}$)							
남성	21.4	4.0	25.4	47.2	2.0	100.0	(1,708)
여성	40.2	7.0	21.3	29.8	1.6	100.0	(1,294)
연령($\chi^2=148.1^{***}$)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9.8	8.3	17.8	42.1	2.0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9.1	0.8	32.2	36.2	1.6	100.0	(1,224)
거주지($\chi^2=5.9$)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9.0	5.3	23.4	40.3	1.9	100.0	(1,656)
광역시	28.5	5.1	22.7	41.3	2.3	100.0	(598)
그 외 시도	31.3	5.3	24.9	37.0	1.4	100.0	(748)
취업 여부($\chi^2=64.6^{***}$)							
취업	28.1	4.9	25.9	39.0	2.2	100.0	(2,554)
미취업	37.7	7.6	10.6	43.9	0.2	100.0	(448)
이성교제 여부($\chi^2=509.8^{***}$)							
이성교제 상대 있음	19.2	6.8	11.6	58.6	3.7	100.0	(1,343)
이성교제 상대 없음	37.8	4.1	33.4	24.4	0.4	100.0	(1,659)
부모님 경제수준($\chi^2=29.7^{***}$)							
상	29.5	6.4	28.3	33.3	2.5	100.0	(329)
중	29.0	5.6	24.2	39.5	1.7	100.0	(2,275)
하	32.4	2.2	16.8	46.3	2.3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남성과 여성 사이 큰 차이를 보이는 미혼인 이유를 성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평균 초혼 연령을 넘긴 남성은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직 상

황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평균 초혼 연령이 넘는 여성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아 평균 초혼 연령을 넘어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유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남성과 여성 모두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미혼인 이유는 '결혼은 하고 싶지만 적절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로 나타나 상대를 못 만나는 것이 공통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 남성 중 현재 이성교제 상대가 있는 경우는 67.2%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미혼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이성교제 상대가 없는 남성은 35.2%가 '아직 적절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를 미혼의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성교제 중인데도 26.2%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미혼의 이유이고, 이성교제 상대가 없는 여성은 54.5%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현재 교제 상대가 있는 미혼 남녀는 그 비율에 차이는 있었지만 미혼인 이유에 있어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현재 교제 상대가 없는 미혼 남녀는 미혼인 이유에서 다른 패턴을 보였다.

성별 차이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을 보면, 미혼 남성은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 미혼인 이유에 차이가 있는 반면, 미혼 여성은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성은 57% 이상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미혼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성은 부모님의 경제수준별 모든 그룹에서 상황에 따른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여성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미혼이라는 이유가 모든 그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남녀 사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3〉 미혼 남녀의 현재 미혼인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아직)결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혼은 하고 싶지만 적절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직 상황이 여러 없어서 (학업, 취업, 집 마련 문제 등)	기타	계	(명)
미혼 남성	21.4	4.0	25.4	47.2	2.0	100.0	(1,708)
연령($\chi^2=60.1^{***}$)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2.2	6.2	20.2	48.9	2.5	100.0	(1,005)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0.1	0.9	32.9	44.8	1.4	100.0	(703)
취업 여부($\chi^2=41.9^{***}$)							
취업	20.4	3.4	27.8	46.1	2.4	100.0	(1,450)
미취업	27.0	7.2	12.2	53.6	0.0	100.0	(258)
이성교제 여부($\chi^2=266.3^{***}$)							
이성교제 상대 있음	12.6	5.1	10.9	67.2	4.2	100.0	(690)
이성교제 상대 없음	27.3	3.3	35.2	33.6	0.6	100.0	(1,018)
부모님 경제수준($\chi^2=31.6^{***}$)							
상	21.6	5.9	31.8	37.8	2.9	100.0	(176)
중	20.8	4.2	26.5	46.7	1.8	100.0	(1,312)
하	24.6	1.4	13.6	57.7	2.7	100.0	(219)
미혼 여성	40.2	7.0	21.3	29.8	1.6	100.0	(1,294)
연령($\chi^2=96.8^{***}$)							
평균 초혼 연령 미만	39.5	11.1	14.6	33.3	1.4	100.0	(773)
평균 초혼 연령 이상	41.3	0.8	31.2	24.7	2.0	100.0	(521)
취업 여부($\chi^2=27.3^{***}$)							
취업	38.2	6.8	23.5	29.7	1.8	100.0	(1,104)
미취업	52.2	8.1	8.4	30.8	0.5	100.0	(190)
이성교제 여부($\chi^2=310.0^{***}$)							
이성교제 중	26.2	8.6	12.4	49.5	3.3	100.0	(652)
이성교제 중 아님	54.5	5.3	30.4	9.8	0.0	100.0	(642)
부모님 경제수준($\chi^2=5.5$)							
상	38.7	7.1	24.2	28.1	2.0	100.0	(152)
중	40.2	7.6	21.0	29.6	1.6	100.0	(963)
하	41.9	3.3	20.8	32.3	1.7	100.0	(17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현재 미혼인 여러 가지 이유 중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 하고 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중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본 결과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68.5%였다. 결혼은 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응답한 1192명 중에서 30% 정도 응답자가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60~80%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5.3%는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80~9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약 19%는 미혼인 이유 중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90~100%라고 응답해, 결혼하고 싶지만 상황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경우 비교적 많은 경우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표 3-4〉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 하는 경우 중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90% 미만	90~100%	계	(명)	평균
전체	9.1	16.8	29.9	25.3	18.9	100.0	(1,192)	68.5
성별($\chi^2=0.7$)								
남성	9.1	16.4	29.7	25.9	19.0	100.0	(806)	68.7
여성	9.1	17.6	30.6	24.1	18.7	100.0	(386)	68.0
연령($\chi^2=0.5$)								
평균 초혼 연령 미만	8.9	17.4	29.8	25.2	18.7	100.0	(749)	68.4
평균 초혼 연령 이상	9.2	15.8	30.2	25.5	19.4	100.0	(444)	68.6
거주지($\chi^2=14.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8	15.7	31.1	24.3	21.1	100.0	(668)	69.7
광역시	8.5	16.5	27.8	28.6	18.5	100.0	(248)	68.9
그 외 시도	12.6	19.5	28.9	24.9	14.1	100.0	(277)	64.9
취업 여부($\chi^2=62.9^{***}$)								
취업	7.2	14.3	30.8	27.4	20.3	100.0	(995)	70.5
미취업	18.3	29.4	25.9	14.7	11.7	100.0	(197)	58.1
부모님 경제수준($\chi^2=15.5$)								
상	13.8	14.7	37.6	19.3	14.7	100.0	(109)	64.8
중	9.4	17.0	29.6	25.2	18.8	100.0	(898)	68.2
하	4.3	16.8	27.0	29.7	22.2	100.0	(185)	71.9
상속 기대 여부($\chi^2=22.1^{***}$)								
기대함/이미 받았음	16.0	16.0	27.7	26.2	14.2	100.0	(255)	64.4
기대 없음/안 계심	7.1	17.0	30.6	25.1	20.2	100.0	(937)	69.6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부모님으로부터 주거와 관련된 상속을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을 못 하는 미혼 중 주거문제의 비율이 90~100%를 차지하는 경우를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기대하거나 이미 상속을 받은 그룹의 비율(14.2%)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비율(20.2%)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혼하고 싶지만 상황 때문에 못 하는 미혼인구 중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은 상속을 기대하거나 이미 받은 그룹은 64.4%이고, 그렇지 않은 그룹은 69.6%로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 자체가 상황에 의해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혼 이행에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미혼 청년의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결혼을 한다면 몇 살 정도에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결혼을 할 것인지 결혼의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알아보았다. 우선 결혼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령을 알아봄에 있어서 본 연구 대상의 연령이 남성은 만 27~39세, 여성은 만 25~35세이기 때문에 성별에 대해서는 두 그룹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미혼 남성이 결혼하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만 32.7세이고 여성이 생각하는 결혼 적절 연령은 만 31.4세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결혼 연령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1.3세 정도였고, 차이 검정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대상은 인구동향조사 혼인 통계 자료 중 초혼 연령 분포에서 상하 10%를 제외한 연령구간에 해당하는 미혼 남녀인데, 이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적절한 결혼 연령은 실제 평균 초혼 연령과 비교해

여성의 경우가 조금 더 차이가 난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중 남성이 응답한 결혼 적정 연령 만 32.7세는 2017년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인 만 32.9세와 크게 차이하지 않았지만, 여성이 응답한 결혼 적정 연령 만 31.4세는 실제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인 만 30.2세보다 약간 높은 연령을 결혼 적정 연령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결혼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령에 대한 남녀 비교

구분	M(SD)	t
남성(1,708)	만 32.7세(2.85)	10.769***
여성(1,294)	만 31.4세(3.58)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결혼을 한다면 자신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200만~400만 원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남성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월평균소득이 300만~400만 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200만~300만 원 구간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남성은 18.6%, 여성은 7.8%로 남성이 결혼에 있어서 본인 수입에 대한 조건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거주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수도권은 200만~300만 원 구간도 높은 비율을 보이기는 했지만, 300만~400만 원 구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광역시와 그 외 시도에서는 300만~400만 원 구간보다는 200만~300만 원 구간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취업 여부와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현재 소득과 결혼하기 적절한 소득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자신의 현재 소득수준이 결혼하기 적절한 소득수준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각 구간마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하

지만 200만 원 미만의 소득자 그룹에서는 본인의 현재 소득보다 높은 200만~300만 원 구간이 결혼하기 적절한 소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만~300만 원 사이의 소득자 그룹은 현재 본인의 소득과 같은 구간을 결혼하기 적절한 소득으로 꼽은 비율이 47.3%로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39.6%는 300만~400만 원을 선택해 현재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미혼인구의 경우는 현재 본인의 소득보다 좀 더 높은 소득이 있을 때가 결혼하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른 결과에서는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부모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6〉 결혼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본인의 월평균소득

(단위: %, 명)

구분	소득 상관없음	1~ 200만 원 미만	200만~ 300만 원 미만	300만~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계	(명)
전체	4.9	6.6	40.1	34.5	13.9	100.0	(3,002)
성별($\chi^2=296.4^{***}$)							
남성	5.9	3.5	29.9	42.2	18.6	100.0	(1,708)
여성	3.6	10.7	53.5	24.4	7.8	100.0	(1,294)
연령($\chi^2=33.6^{***}$)							
평균 초혼 연령 미만	4.4	6.1	42.7	35.5	11.3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5.6	7.3	36.3	33.1	17.7	100.0	(1,224)
거주지($\chi^2=67.7^{***}$)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3	5.0	35.8	39.1	15.8	100.0	(1,656)
광역시	6.0	7.5	44.6	29.4	12.4	100.0	(598)
그 외 시도	5.2	9.2	46.1	28.5	11.0	100.0	(748)
취업 여부($\chi^2=14.8^{**}$)							
취업	4.4	6.3	39.9	35.2	14.3	100.0	(2,554)
미취업	7.6	8.5	41.3	30.8	11.8	100.0	(448)
현재 본인 월평균소득($\chi^2=978.7^{***}$)							
소득 없음	9.9	8.1	42.6	27.0	12.4	100.0	(279)
1~200만 원 미만	6.4	17.2	48.8	20.6	7.1	100.0	(902)
200만~300만 원 미만	2.7	1.4	47.3	39.6	9.0	100.0	(1,253)
300만~400만 원 미만	4.4	0.0	10.0	61.4	24.3	100.0	(385)
400만 원 이상	5.4	1.2	7.5	23.9	62.0	100.0	(184)

〈표 3-6〉 계속

구분	소득 상관없음	1~ 200만 원 미만	200만~ 300만 원 미만	300만~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계	(명)
부모님 경제수준($\chi^2=28.1^{***}$)							
상	4.6	4.9	34.5	34.1	22.0	100.0	(329)
중	4.7	6.8	40.4	35.4	12.6	100.0	(2,275)
하	6.3	6.5	42.8	29.8	14.8	100.0	(398)

주: 1)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이번에는 결혼을 한다면 본인이 아닌 상대방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남성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소득은 200만~300만 원 구간이 약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생각하는 상대방 소득은 300만~400만 원 구간이 44.3%, 400만 원 이상이 약 30%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상대방의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다는 응답도 19%에 가깝게 나타나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전 질문인 결혼 시 본인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응답에서 남성은 스스로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번 질문인 상대방의 소득에 대해서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이 응답한 비율은 75%에 가깝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여성 본인이 결혼 시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2%이고, 남성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5% 정도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이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본인 또는 상대의 소득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일수록 결혼에 적절한 상대방 소득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소득도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대부분 상대방 소득을 200만~300만 원 사이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미혼 그

룹은 상대방의 소득이 300만~400만 원 정도여야 한다는 비율이 27.8%로 가장 높았고, 400만 원 이상을 기대한다는 비율도 25.8%로 본인의 소득이 높은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상대의 소득도 높게 기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400만 원 이상의 그룹은 소득이 없는 그룹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소득이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6.2%로 다른 그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7〉 결혼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상대방의 월평균소득

(단위: %, 명)

구분	소득 상관없음	1~ 200만 원 미만	200만~ 300만 원 미만	300만~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계	(명)
전체	12.0	10.8	37.0	25.8	14.4	100.0	(3,002)
성별($\chi^2=1166.2^{***}$)							
남성	18.7	17.9	48.8	11.9	2.6	100.0	(1,708)
여성	3.0	1.5	21.3	44.3	29.9	100.0	(1,294)
연령($\chi^2=31.9^{***}$)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0.3	10.2	40.6	25.6	13.3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4.4	11.8	31.6	26.2	16.0	100.0	(1,224)
거주지($\chi^2=78.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1.7	7.6	34.6	28.8	17.3	100.0	(1,656)
광역시	12.7	13.5	38.8	22.9	12.0	100.0	(598)
그 외 시도	11.9	15.8	40.8	21.7	9.9	100.0	(748)
취업 여부($\chi^2=8.3$)							
취업	11.5	10.8	36.6	26.7	14.3	100.0	(2,554)
미취업	14.5	10.9	38.6	21.0	15.0	100.0	(448)
현재 본인 월평균소득($\chi^2=71.1^{***}$)							
소득 없음	16.5	11.3	39.8	19.7	12.7	100.0	(279)
1~200만 원 미만	11.5	13.9	35.8	24.6	14.2	100.0	(902)
200만~300만 원 미만	9.4	10.4	39.2	27.8	13.2	100.0	(1,253)
300만~400만 원 미만	15.9	7.4	36.0	26.1	14.5	100.0	(385)
400만 원 이상	16.2	5.3	24.9	27.8	25.8	100.0	(184)
부모님 경제수준($\chi^2=15.6^*$)							
상	12.7	9.1	32.1	29.1	17.0	100.0	(329)
중	11.3	11.4	38.3	25.1	13.9	100.0	(2,275)
하	15.1	9.1	33.5	27.2	15.1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앞서 결혼 의향에서 ‘현재도 앞으로도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현재, 결혼할 의향이 있다’와 ‘현재는 없지만 언젠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고 답한 269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결혼할 생각인지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결혼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 1순위로 꼽은 응답을 분석해 보면,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본인 또는 상대의 직장이 안정되면’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7.3%로 나타났다. 그다음 ‘어느 정도 결혼 자금이 모이면’이 21.0%, ‘결혼생활을 위한 주거 마련이 해결되면’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하기에 적절한 상황은 성별, 연령, 거주지, 취업 여부, 결혼 의향,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라 모두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이라는 응답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지만, 남성은 ‘본인이나 상대의 직장이 안정되면’이라는 응답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의 그룹에서는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이라는 응답이 4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 그룹의 결혼의 조건은 ‘직장이 안정되면’이 53.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취업한 그룹은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이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미혼인구는 ‘직장안정(28.5%)’과 ‘결혼자금마련(28.9%)’이 비슷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결혼의 조건이었으나, 이성교제 상대가 현재 없는 그룹은 ‘결혼할 사람이 생길 때’가 결혼하기 적절한 때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45.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다음이 ‘직장안정(26.2%)’으로 나타나 일단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것이 매우 큰 부분이고 그 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때 비로소 결혼 생각을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지하는 그룹은 ‘직장안정’과 ‘결

혼할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지하는 그룹은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응답 비율도 높지만 '결혼자금 모아면', '주거 마련이 해결되면'이라고 응답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 경제적인 조건을 더욱 채워야 하는 상황과 아닌 상황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8〉 결혼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상황(1순위)

(단위: %, 명)

구분	본인(또는 상대의 직장이 안정되면	어느 정도 결혼자금이 모이면	결혼생활을 위한 주거 마련이 해결되면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결혼하기에 적절한 나이가 되면	기타	계	(명)
전체	27.3	21.0	16.4	33.2	1.3	0.8	100.0	(2,690)
성별($\chi^2=49.9^{***}$)								
남성	29.8	20.1	19.1	29.4	1.1	0.4	100.0	(1,575)
여성	23.8	22.2	12.7	38.4	1.7	1.2	100.0	(1,115)
연령($\chi^2=83.7^{***}$)								
평균 초혼 연령 미만	32.0	22.4	16.1	27.0	1.8	0.8	100.0	(1,589)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0.6	19.0	16.8	42.0	0.7	0.8	100.0	(1,101)
거주지($\chi^2=28.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4.6	22.8	16.6	34.3	1.0	0.7	100.0	(1,489)
광역시	31.7	19.3	16.9	30.8	1.1	0.2	100.0	(547)
그 외 시도	29.9	18.3	15.5	32.7	2.3	1.4	100.0	(655)
취업 여부($\chi^2=152.2^{***}$)								
취업	23.1	22.6	17.3	34.8	1.3	0.9	100.0	(2,323)
미취업	53.8	11.1	10.7	22.7	1.3	0.3	100.0	(367)
이성교제 여부($\chi^2=243.6^{***}$)								
이성교제 상대 있음	28.5	28.9	20.4	19.4	1.4	1.3	100.0	(1,278)
이성교제 상대 없음	26.2	13.8	12.8	45.6	1.3	0.3	100.0	(1,412)
부모님 경제수준($\chi^2=32.6^{***}$)								
상	28.2	19.3	13.6	35.9	2.0	1.0	100.0	(301)
중	28.0	20.8	15.6	33.8	1.4	0.6	100.0	(2,053)
하	22.4	23.9	24.2	27.1	0.6	1.8	100.0	(337)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결혼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제하는 이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수순이며, 상대가 있다는 사실은 결혼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충족된, 또는 아직 상대가 결혼 상대로 결정되지는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 충족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교제 여부는 결혼 의향 및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이성교제 여부를 알아본 결과, 조사 대상자 중 현재 교제하는 이성인 경우는 44.7%, 없는 경우는 55.3%로 나타났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비율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은 교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59.6%), 여성은 교제하는 이성인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50.4%) 차이를 보였다.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그룹이 미만인 그룹보다 이성교제를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사는 미혼 청년보다는 그 외 시도에 사는 미혼 청년이 이성교제를 하는 비율(36.8%)이 낮았다. 그리고 취업을 하지 않은 그룹과 결혼 의향이 없는 그룹은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지각한 그룹이 교제하는 이성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표 3-9〉 현재 이성교제 여부

구분	(단위: %, 명)			
	교제하는 이성 있음	교제하는 이성 없음	계	(명)
전체	44.7	55.3	100.0	(3,002)
성별($\chi^2=29.7^{***}$)				
남성	40.4	59.6	100.0	(1,708)
여성	50.4	49.6	100.0	(1,294)
연령($\chi^2=42.8^{***}$)				
평균 초혼 연령 미만	49.6	50.4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37.6	62.4	100.0	(1,224)

〈표 3-9〉 계속

구분	교제하는 이성 있음	교제하는 이성 없음	계	(명)
거주지($\chi^2=25.6^{***}$)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7.6	52.4	100.0	(1,656)
광역시	46.7	53.3	100.0	(598)
그 외 시도	36.8	63.2	100.0	(748)
취업 여부($\chi^2=58.8^{***}$)				
취업	47.6	52.4	100.0	(2,554)
미취업	28.1	71.9	100.0	(448)
결혼 의향($\chi^2=181.1^{***}$)				
있음	51.1	48.9	100.0	(2,368)
없음	21.1	78.9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21.1^{***}$)				
상	56.1	43.9	100.0	(329)
중	43.9	56.1	100.0	(2,275)
하	40.2	59.8	100.0	(398)

주: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34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교제 중인 여성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현재 교제 상대와 결혼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1%로 가장 높았고,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이 있거나 준비 중’인 경우도 21.2%로 나타났다. ‘현재 교제 상대와 결혼 생각이 없다’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4%와 12.3%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보면,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초혼 연령 이상 그룹은 25.0%, 미만 그룹은 19.2%로 이상인 그룹이 높은 반면, ‘향후 교제 상대와 결혼을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만인 그룹 59.5%, 이상인 그룹 46.7%로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인 그룹이 높은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3-10〉 현재 이성교제 상대와 결혼 계획

(단위: %, 명)

구분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이 있거나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교제 상대와 결혼할 생각이다	현재 교제 상대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명)
전체	21.2	55.1	11.4	12.3	100.0	(1,343)
성별($\chi^2=33.2^{***}$)						
남성	25.2	56.5	10.2	8.1	100.0	(690)
여성	16.9	53.6	12.7	16.7	100.0	(652)
연령($\chi^2=20.4^{***}$)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9.2	59.5	10.1	11.2	100.0	(883)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5.0	46.7	13.8	14.5	100.0	(460)
거주지($\chi^2=9.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0.4	54.3	11.9	13.4	100.0	(788)
광역시	22.5	58.2	12.0	7.4	100.0	(279)
그 외 시도	22.1	54.4	9.4	14.0	100.0	(275)
본인과 이성교제 상대의 취업 여부($\chi^2=18.4^{**}$)						
두 명 다 취업	23.5	53.9	10.5	12.2	100.0	(1,066)
두 명 중 한 명만 취업	12.4	60.4	14.4	12.8	100.0	(237)
두 명 다 미취업	12.4	57.2	17.6	12.8	100.0	(39)
부모님 경제수준($\chi^2=10.0$)						
상	22.1	51.5	15.7	10.7	100.0	(184)
중	21.1	56.7	10.2	12.0	100.0	(998)
하	20.5	49.3	14.1	16.1	100.0	(16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취업 여부가 결혼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데, 현재 교제 상대가 있는 미혼들은 본인과 이성교제 상대의 취업 상황에 따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본인과 교제 상대 둘 다 취업을 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이 있거나 준비 중’인 경우가 23.5%로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지만 지금 교제 상대와 결혼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53.9%로 나타났다. 둘 중에서 한 명만 취업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비율은 12.4%였지만, 언젠가 결혼을

할 것이라는 비율은 60.4%를 보였다. 그리고 두 명 다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둘 중 한 명만 취업한 경우와 비슷하게 구체적인 경우는 12.4%이고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응답은 57.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둘 다 취업을 한 경우가 결혼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에 대한 부분이 보다 구체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어 결혼에 있어서 취업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교제하고 있는 상대가 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 중 주거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았다. 평균적으로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60.7%로 나타났고, 성별과 부모님 경제수준, 주거 마련에 대한 상속 기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신혼집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교제 상대와 아직 결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는 주거문제가 4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로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90~100%가 주거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10.9%로 다른 두 그룹보다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주거 마련과 관련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기대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상속을 기대하거나 이미 상속을 받은 미혼인구는 신혼집 마련과 관련된 문제가 40% 이하인 경우가 22.8%였으나, 기대를 하고 있지 않거나 상속받을 곳이 없는 경우는 40% 미만인 경우가 1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평균으로 보아도 상속 기대 그룹은 주거 마련 문제로 인해 교제 상대가 있음에도 결혼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6.4%인 데 반해, 그렇지 않은 그룹은 62.3%로 신혼집 마련과 관련된 문제가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제 상대가 있음에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신혼집 마련과 관련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떤 그룹이든 모두 50.0% 이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 중 신혼집 마련과 관련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90% 미만	90~100%	계	(명)	평균
전체	16.6	24.6	25.4	18.2	15.2	100.0	(1,341)	60.7
성별($\chi^2=12.0$)								
남성	14.5	22.3	26.7	20.0	16.5	100.0	(690)	63.1
여성	18.9	27.0	24.0	16.3	13.8	100.0	(651)	58.2
연령($\chi^2=7.1$)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5.4	26.0	26.5	17.6	14.5	100.0	(882)	60.7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8.9	22.0	23.0	19.6	16.5	100.0	(460)	60.8
거주지($\chi^2=14.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5.5	23.8	25.2	17.9	17.6	100.0	(789)	62.1
광역시	16.5	24.4	25.4	18.6	15.1	100.0	(279)	60.6
그 외 시도	20.4	26.9	25.5	18.5	8.7	100.0	(275)	57.0
취업 여부($\chi^2=8.8$)								
취업	16.2	24.5	24.7	18.7	16.0	100.0	(1,216)	61.3
미취업	20.6	26.2	31.0	13.5	8.7	100.0	(126)	55.8
부모님 경제수준($\chi^2=20.8^{**}$)								
상	20.1	24.5	32.6	12.0	10.9	100.0	(184)	56.6
중	16.9	25.2	23.8	18.6	15.4	100.0	(999)	60.6
하	10.6	21.1	26.1	23.0	19.3	100.0	(161)	66.2
상속 기대 여부($\chi^2=15.9^{**}$)								
기대함/이미 받았음	22.8	25.3	24.1	14.4	13.4	100.0	(353)	56.4
기대 없음/안 계심	14.4	24.3	25.7	19.6	15.9	100.0	(990)	62.3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제3절 소결

전체 조사에서 결혼할 의향이 현재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 중 약 37%,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약 42%로 80% 가까운 응답자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은 약 74%가, 남성은 약 83%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남녀 간 차이를 볼 수 있다. 혼인 연령에 가까운 미혼 남녀의 응답에서도 기존 연구 및 조사에서 나타

난 남성의 결혼 의향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 의향은 취업을 한 경우 더욱 높고, 일하지 않는 경우는 의향이 없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미혼인 이유에서도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여성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미혼인 경우가 높고, 남성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상황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높은 등의 차이가 있었다.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이거나 결혼 의향이 있는데 현재 미혼인 남성의 경우는 미혼인 이유가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한 경우가 많고,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이거나 결혼 의향이 있는데 현재 미혼인 여성은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거나 적절한 상대를 못 만나서 미혼인 경우가 많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미혼 남성이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관계가 있었지만, 미혼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상황적인 요인에 결혼할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적 요인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중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주거 상황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 중 본인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남성이 월 300만~400만 원 사이를 생각하고 있고, 여성은 월 200만~300만 원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적절한 소득으로 생각하는 수준은 여성은 상대방인 남성의 소득으로 월 300만~400만 원, 남성은 상대방 여성의 소득으로 월 200만~300만 원을 가장 많이 꼽아 남성과 여성의 본인이 생각하는 소득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소득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본인 각자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소득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혼하기에 적절한 상황에 대해서는 결혼할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마련에 대한 조건은 16% 정도 차지했다. 특성별로 주거환경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남성과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이 주거환경 마련 조건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결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거 마련이 부담인 그룹임을 알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이성교제 상대 유무일 것이다. 현재 이성교제 상대가 있음에도 결혼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신혼집 마련과 관련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이유 중 중요한 이유가 적절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것임을 고려할 때, 교제 상대가 있다는 조건은 미혼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가 충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교제 상대가 모두 적절한 결혼 상대라고 생각하고 교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교제 상대가 없는 경우보다는 결혼의 조건 중 하나가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결혼의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큰 이성교제 상대가 있는 미혼 청년들에게 있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다른 많은 이유 중 주거 마련 단독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라고 생각하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볼 수 있고, 주거문제는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하거나 이행하는 데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제 4 장

미혼 청년의 현재 주거 실태와 결혼 시 희망 주거특성

제1절 미혼 청년의 현재 주거 실태

제2절 미혼 청년의 결혼 시 희망 주거특성

제3절 소결

4

미혼 청년의 현재 주거 실태와 << 결혼 시 희망 주거특성

본 장에서는 조사 내용 중 청년들의 전반적인 현재 주거 실태를 알아보고 결혼 시 생각하는 주거특성이 어떠한지 면밀하게 파악해 본다.

제1절 미혼 청년의 현재 주거 실태

미혼 청년은 부모님으로부터 주거지 독립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청년들의 부모님과 동거 여부를 살펴보았다. ‘한 번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음’에 응답한 청년이 조사 대상자 중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부모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음’에 응답한 청년도 34.7%로 비슷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에 따로 나와 살았던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3%였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64.6%이고, 과거와 현재를 포함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64.0%인 셈이다.

이는 성별, 연령, 거주지, 취업 여부,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여성은 한 번도 독립하지 않은 경우가 42.5%로 매우 높았고, 남성은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비율이 36.9%로 본 조사에 응답한 청년 중 여성보다는 남성이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의 그룹이 미만의 그룹보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38.5%),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한 번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39.2%)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높았다. 예상할 수 있듯이 미취업의 경우에 한 번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사는 비율이 41.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40.8%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 현재 부모님과 동거 여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음	과거에 따로 나와 살았던 적 있지만 현재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음	현재 부모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거나 안 계심	계	(명)
전체	35.3	29.3	34.7	0.8	100.0	(3,002)
성별($\chi^2=54.3^{**}$)						
남성	29.8	32.3	36.9	1.0	100.0	(1,708)
여성	42.5	25.2	31.8	0.4	100.0	(1,294)
연령($\chi^2=22.5^{***}$)						
평균 초혼 연령 미만	37.1	30.5	32.1	0.4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32.7	27.5	38.5	1.3	100.0	(1,224)
거주지($\chi^2=72.6^{***}$)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9.2	24.1	35.8	0.9	100.0	(1,656)
광역시	37.0	31.6	31.0	0.5	100.0	(598)
그 외 시도	25.2	38.8	35.3	0.7	100.0	(748)
취업 여부($\chi^2=38.7^{**}$)						
취업	34.2	28.1	37.0	0.7	100.0	(2,554)
미취업	41.7	35.7	21.8	0.9	100.0	(448)
결혼 의향($\chi^2=3.4$)						
있음	35.0	29.2	35.1	0.6	100.0	(2,368)
없음	36.3	29.4	33.1	1.2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59.7^{***}$)						
상	28.2	30.4	40.8	0.6	100.0	(329)
중	35.9	30.1	33.7	0.3	100.0	(2,275)
하	37.6	23.8	35.1	3.5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이렇게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또는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소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46.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6.9%는 연립 및 다세대, 15.9%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

(단위: %, 명)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및 기숙사	기타	계	(명)
전체	46.5	15.9	26.9	7.2	2.4	1.2	100.0	(3,002)
성별($\chi^2=30.3^{***}$)								
남성	44.9	17.0	26.5	6.9	3.6	1.2	100.0	(1,708)
여성	48.6	14.4	27.6	7.6	0.7	1.1	100.0	(1,294)
연령($\chi^2=13.6^*$)								
평균 초혼 연령 미만	48.2	15.1	25.8	6.9	2.5	1.6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44.0	17.0	28.7	7.6	2.2	0.6	100.0	(1,224)
거주지($\chi^2=137.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4.6	11.6	32.8	8.3	2.2	0.6	100.0	(1,656)
광역시	52.0	16.1	22.6	5.9	2.3	1.2	100.0	(598)
그 외 시도	46.2	25.3	17.5	5.8	2.8	2.4	100.0	(748)
취업 여부($\chi^2=27.4^{***}$)								
취업	45.8	15.1	27.8	7.9	2.4	1.1	100.0	(2,554)
미취업	50.4	20.6	22.2	2.9	2.4	1.5	100.0	(448)
부모님과 동거 여부($\chi^2=875.1^{***}$)								
부모님과 동거	60.4	19.2	19.5	0.7	0.2	0.0	100.0	(1,938)
부모님과 비동거	21.1	9.8	40.5	19.0	6.4	3.3	100.0	(1,064)
부모님 경제수준($\chi^2=76.1^{***}$)								
상	53.2	15.8	19.4	8.7	1.9	0.9	100.0	(329)
중	48.4	15.3	25.5	7.2	2.3	1.3	100.0	(2,275)
하	30.2	19.1	41.4	5.8	3.0	0.5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여러 가지 차이 중에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에 살고 있는 비율이 52.0%로 높게 나타났고, 가장 큰 차이는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는 무려 60.4%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40.5%가 연립 및 다세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미취업의 경우 취업한 청년의 경우보다 독립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의 50.4%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부모님과 동거 여부와 같은 양상이 나타났는데,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의 53.2%가 아파트 거주인 반면,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현재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주택 유형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모님과 동거 여부로 나누어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는 부모님의 주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성별 분석이 의미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 및 기숙사, 기타에 해당하는 주택 유형 빈도가 매우 작아 분석값을 제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특성별로 어떠한 주택 유형에 거주하는지의 분석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비동거하는 청년들에 대한 특성별 분석만을 제시한다.

부모님 집에서 나와 따로 산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과 여성은 모두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다음 이 남성은 아파트, 여성은 오피스텔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시원, 기숙사 및 기타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에 사는 비율을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보면,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그룹은 미만인 그룹에 비해 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인 경우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오피스텔 거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 시도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지역별 주택비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의 주택 유형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생 신분을 벗어난 연령대의 청년들로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의 상황보다는 청년 스스로의 상황이 현재 거주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부모님과 비동거 중인 청년의 현재 거주 주택 유형

(단위: %, 명)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및 기숙사, 기타	계	(명)
전체	21.1	9.8	40.5	19.0	9.7	100.0	(1,064)
성별($\chi^2=22.3^{***}$)							
남성	23.0	10.0	37.8	16.8	12.3	100.0	(647)
여성	18.1	9.4	44.6	22.4	5.5	100.0	(417)
연령($\chi^2=24.0^{***}$)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6.1	9.8	42.4	19.7	12.0	100.0	(577)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7.0	9.9	38.2	18.1	6.8	100.0	(487)
거주지($\chi^2=31.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7.6	10.2	43.8	21.1	7.4	100.0	(607)
광역시	20.0	11.2	40.2	17.6	10.9	100.0	(188)
그 외 시도	29.7	8.1	33.3	15.1	13.9	100.0	(269)
취업 여부($\chi^2=11.5^*$)							
취업	21.4	9.2	40.8	19.7	9.0	100.0	(962)
미취업	18.0	16.0	37.8	12.7	15.5	100.0	(102)
부모님 경제수준($\chi^2=8.9$)							
상	27.0	8.1	38.0	20.3	6.7	100.0	(136)
중	20.2	9.9	39.9	19.8	10.3	100.0	(774)
하	20.3	11.0	45.8	13.7	9.2	100.0	(154)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다음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명의를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주택의 명의는 공동 명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빈도에 대한 비율로만 제시하였다. 복수 응답이기는 하지만 그 비율을 모두 더한 결과가 101.2%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분에서 ‘본인’의 해당 비율이 주택 명의가 완전히 ‘본인’인 경우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 명의의 집으로 간주해도 아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집의 명의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포함된 경우가 57.9%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포함된 경우는 28.3%였다.

〈표 4-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명의

(단위: %, 명)

구분	본인	아버지 / 어머니	할아버지 / 할머니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지인	기타	해당없음	(명)
전체	28.3	57.9	1.1	3.0	1.1	6.1	3.7	(3,002)
성별								
남성	31.0	55.2	0.9	2.4	1.0	5.5	5.4	(1,708)
여성	24.8	61.5	1.4	3.8	1.2	6.8	1.5	(1,294)
연령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3.2	62.1	1.3	2.8	1.2	6.5	4.3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35.8	51.8	0.9	3.3	1.0	5.4	2.9	(1,224)
거주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0.5	57.3	0.8	3.2	1.2	6.0	2.5	(1,656)
광역시	24.4	61.3	1.2	3.3	1.6	5.5	3.7	(598)
그 외 시도	26.8	56.4	1.8	2.3	0.6	6.7	6.5	(748)
취업 여부								
취업	30.8	55.6	1.0	2.8	1.3	6.2	3.7	(2,554)
미취업	14.4	70.8	1.6	4.2	0.2	5.5	4.0	(448)
결혼 의향								
있음	28.2	58.0	1.0	2.9	1.1	6.2	3.9	(2,368)
없음	29.0	57.5	1.4	3.3	1.3	5.4	3.1	(634)
부모님 동거 여부								
부모님 동거	8.6	86.5	1.6	2.5	0.2	1.7	0.3	(1,938)
부모님 비동거	64.4	5.8	0.2	3.9	2.8	14.0	9.9	(1,064)
부모님 경제수준								
상	33.7	55.8	0.6	3.6	0.6	3.6	3.0	(329)
중	26.0	60.6	1.2	2.8	1.1	6.1	3.6	(2,275)
하	37.4	44.2	1.0	3.9	1.5	8.0	5.0	(398)

주: 1) 중복응답으로 합이 100.0% 이상일 수 있음.

2) ‘해당없음’은 사택, 관사 등에 살고 있어 명의를 개인단위가 아닌 경우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비율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그룹은 본인이 명의에 포함된 경우가 35.8%로 미만인 그룹 23.2%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취업한 경우 본인이 명의에 포함된 비율은 30.8%였지만,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14.4%로 나타나 비율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청년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명의에 있어서는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다.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는 부모님 명의의 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동거하는 경우는 독립한 경우로 많은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기타 여러 상황과 명의를 구별할 수 없는 사택이나 관사 등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질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명의에 ‘본인’을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집의 점유 형태를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 851명 중 보증금 있는 월세 형태가 41.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전세 형태가 35.6%, 자가 형태는 20.1%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보증금 있는 월세 형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여성은 47.4%, 남성은 37.5%로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자가인 비율도 남성은 24.5%인 반면, 여성은 12.8%로 나타났다.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의 그룹에서는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이 49.3%로 가장 높은 반면,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그룹에서는 전세 비율이 3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타 시도인 경우가 26.1%로 수도권의 16.7%와 차이를 보였고, 취업한 경우 미취업과 비교해 자가, 전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점유 형태(주택 명의가 본인인 경우)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본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계	(명)
전체	20.1	35.6	41.2	2.6	0.5	100.0	(851)
성별($\chi^2=18.9^{**}$)							
남성	24.5	34.8	37.5	2.7	0.4	100.0	(529)
여성	12.8	36.8	47.4	2.4	0.6	100.0	(321)
연령($\chi^2=25.8^{***}$)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4.7	33.3	49.3	2.2	0.5	100.0	(413)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5.2	37.7	33.6	3.0	0.5	100.0	(438)
거주지($\chi^2=25.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6.7	38.5	42.1	2.7	0.0	100.0	(505)
광역시	23.8	33.5	39.1	3.6	0.0	100.0	(146)
그 외 시도	26.1	29.7	40.7	1.6	2.0	100.0	(200)
취업 여부($\chi^2=9.6^*$)							
취업	20.2	36.7	40.2	2.5	0.4	100.0	(786)
미취업	19.0	21.5	53.7	4.3	1.5	100.0	(65)
결혼 의향($\chi^2=3.1$)							
있음	20.4	36.7	39.7	2.8	0.4	100.0	(667)
없음	19.0	31.6	46.8	2.0	0.5	100.0	(184)
부모님 동거 여부($\chi^2=25.8^{***}$)							
부모님 동거	56.0	16.9	25.9	0.6	0.6	100.0	(166)
부모님 비동거	11.5	40.1	44.8	3.1	0.4	100.0	(685)
부모님 경제수준($\chi^2=10.7$)							
상	28.2	33.6	36.4	1.8	0.0	100.0	(111)
중	19.7	36.3	41.3	2.4	0.3	100.0	(591)
하	16.0	34.4	44.4	3.9	1.3	100.0	(14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여러 점유 형태마다 구입 금액, 보증금, 월세 등 주거비용을 알아보면, 미혼 청년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본인 명의의 자가인 경우 1억 원 미만 23.8%, 1억~2억 원 미만 22.3%, 2억~3억 원 미만 25.7%였고, 집값은 평균적으로 약 2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은 5000만 원 미만이 26.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1억~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2.3%, 이어 5000만~7000만 원 미만이 21.4%로 높게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의 평균은 약 8400만 원이었다.

〈표 4-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와 전세보증금(주택 명의가 본인인 경우)

(단위: %, 명, 만원)

자가 시가		전세보증금	
구분	비율	구분	비율
1억 원 미만	23.8	5천만 원 미만	26.9
1억~2억 원 미만	22.3	5천만~7천만 원 미만	21.4
2억~3억 원 미만	25.7	7천만~1억 원 미만	16.8
3억~5억 원 미만	17.0	1억~1억 5천만 원 미만	22.3
5억 원 이상	11.0	1억 5천만 원 이상	12.6
계	100.0	계	100.0
(명)	(171)	(명)	(303)
평균	23,995	평균	8,417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9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 비용 평균은 약 35만 원이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보다 약간 높은 평균 약 39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4-7〉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보증금과 월세(주택 명의가 본인인 경우)

(단위: %, 명, 만원)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포함)	
보증금		월세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500만 원 미만	21.2	20만 원 미만	14.9	30만 원 미만	27.3
500만~1천만 원 미만	20.7	20만~30만 원 미만	15.3	30만~40만 원 미만	27.3
1천만~2천만 원 미만	23.9	30만~40만 원 미만	31.6	40만~50만 원 미만	22.8
2천만~5천만 원 미만	22.8	40만~50만 원 미만	20.7	50만 원 이상	22.6
5천만 원 이상	11.3	50만 원 이상	17.5	계	100.0
계	100.0	계	100.0	(명)	(26)
(명)	(351)	(명)	(351)	평균	38.8
평균	1,918	평균	34.8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주택의 명의가 본인이며 점유 형태가 자가, 전세,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는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비교적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주택 마련을 위한 비용을 누가 주로 부담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구입비용을 의미하고 전세나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 마련 비용을 의미한다. 과반수(50.0%)는 '전부 본인 스스로 주거비용을 마련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 등이 일부 도움'을 준 경우와 '부모님 등이 대부분 마련해 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을 준 경우는 19.0%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전부 부모님 등이 마련해 주신 경우는 11.9%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취업 여부에 따라 주택비용 마련 주체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은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한 경우가 52.9%로 여성의 45.3%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전부 부모님 등이 마련'해 준 경우는 남성은 8.8%인 데 반해, 여성은 17.1%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의 경우는 '부모님 등이 대부분 마련해 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을 더한 경우가 24.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의 경우는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 등이 일부 도움'을 주었다는 경우가 21.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용 마련은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한 경우는 취업 그룹에서는 51.9%로 높았지만, 미취업 그룹에서는 26.2%로 낮게 나타났다. 미취업 그룹에서는 '부모님 등이 대부분 마련해 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을 더한 경우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마련 비용을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한 경우와 '전부 부모님이 마련'한 경우는 결혼 의향이 없는 그룹이 있는 그룹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반대로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일부는 부모님이 도움'과 '부모님이 대부분 마련하

고 본인은 일부 도움'에 대한 응답은 결혼 의향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결과를 볼 수 있어 두 그룹 간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8〉 현재 거주하는 주택비용 마련 주체(주택 명의가 본인이며 점유 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

(단위: %, 명)

구분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함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 등이 일부 도움	부모님 등이 대부분 마련해 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전부 부모님 등이 마련해 주심	계	(명)
전체	50.0	19.0	19.0	11.9	100.0	(825)
성별($\chi^2=13.3^*$)						
남성	52.9	19.2	19.2	8.8	100.0	(513)
여성	45.3	18.8	18.8	17.1	100.0	(312)
연령($\chi^2=45.5^{***}$)						
평균 초혼 연령 미만	41.9	16.1	24.5	17.5	100.0	(402)
평균 초혼 연령 이상	57.7	21.8	13.9	6.7	100.0	(423)
거주지($\chi^2=8.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7.3	20.2	19.0	13.5	100.0	(491)
광역시	50.3	15.7	23.8	10.3	100.0	(141)
그 외 시도	56.5	18.5	15.7	9.3	100.0	(193)
취업 여부($\chi^2=25.6^{***}$)						
취업	51.9	19.3	17.4	11.3	100.0	(764)
미취업	26.2	15.0	39.2	19.5	100.0	(61)
결혼 의향($\chi^2=10.1^*$)						
있음	48.2	20.6	20.2	11.0	100.0	(646)
없음	56.5	13.2	14.8	15.5	100.0	(179)
부모님 경제수준($\chi^2=9.5$)						
상	40.6	25.0	19.8	14.6	100.0	(109)
중	49.9	18.0	19.6	12.5	100.0	(575)
하	57.5	18.6	16.1	7.8	100.0	(141)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주택 명의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고 점유 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주택의 명의가 본인이며 점유 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는 대부분 월세 등의 비용이 고정적으로 지출될 것이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본인 명의이며 점유 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으로 임차비용(월세)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모님 등으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총 377명의 응답자 중에 월세 전체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월세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각각 8.2%와 8.7%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전혀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가 83.1%로 매우 높았다.

〈표 4-9〉 현재 거주하는 주택 월세 비용 지원 여부(주택 명의가 본인이며 점유 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인 경우)

(단위: %, 명)

구분	월세 전체를 지원받고 있음	월세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	전혀 지원받고 있지 않음	계	(명)
전체	8.2	8.7	83.1	100.0	(377)
성별($\chi^2=1.0$)					
남성	7.5	9.8	82.7	100.0	(215)
여성	9.1	7.3	83.6	100.0	(162)
연령($\chi^2=13.3^{**}$)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2.1	10.6	77.3	100.0	(215)
평균 초혼 연령 이상	3.0	6.2	90.8	100.0	(162)
거주지($\chi^2=4.7$)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9.3	8.0	82.7	100.0	(226)
광역시	11.3	11.3	77.5	100.0	(62)
그 외 시도	3.2	8.8	88.0	100.0	(89)
취업 여부($\chi^2=47.5^{***}$)					
취업	5.3	7.4	87.3	100.0	(338)
미취업	33.2	20.8	46.0	100.0	(39)
결혼 의향($\chi^2=0.7$)					
있음	8.7	9.0	82.2	100.0	(286)
없음	6.3	7.8	85.9	100.0	(91)
부모님 경제수준($\chi^2=3.9$)					
상	4.7	13.3	82.0	100.0	(42)
중	7.6	8.1	84.2	100.0	(261)
하	12.0	8.3	79.7	100.0	(74)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주택 명의를 본인이 포함되어 있고 점유 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인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의 그룹은 전혀 월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가 90.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 전체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33.2%로 취업하고 월세 전체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5.3%)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명의가 본인인 경우 월세, 전세, 자가 관계없이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금융 대출을 받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대출이 없는 비율이 68.8%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수도권인 경우가 대출이 있는 비율이 35.7%로 광역시나 기타 지역에서는 약 25%인 것과 차이를 보였다.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대출이 있는 비율이 10.8%에 불과했고, 취업한 경우는 32.8%였는데 대출 가능성이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은 대출이 있는 경우가 43.9%로, 그렇지 않은 그룹이 30% 미만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주택의 점유 형태에 따라서는 예상할 수 있듯이 자가와 전세인 경우에 대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7.4%와 41.6%로 월세인 경우(15.4%)와 비교해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표 4-1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여부(주택 명의가 본인인 경우)

(단위: %, 명)

구분	대출 없음	대출 있음	계	(명)
전체	68.8	31.2	100.0	(852)
성별($\chi^2=0.0$)				
남성	68.7	31.3	100.0	(530)
여성	68.9	31.1	100.0	(322)
연령($\chi^2=0.4$)				
평균 초혼 연령 미만	68.5	31.5	100.0	(413)
평균 초혼 연령 이상	69.2	30.8	100.0	(438)

〈표 4-10〉 계속

구분	대출 없음	대출 있음	계	(명)
거주지($\chi^2=12.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64.3	35.7	100.0	(504)
광역시	75.3	24.7	100.0	(146)
그 외 시도	75.6	24.4	100.0	(201)
취업 여부($\chi^2=12.6^{**}$)				
취업	67.2	32.8	100.0	(786)
미취업	89.2	10.8	100.0	(65)
결혼 의향($\chi^2=2.2$)				
있음	67.6	32.4	100.0	(667)
없음	73.4	26.6	100.0	(184)
부모님 경제수준($\chi^2=13.7^{**}$)				
상	72.1	27.9	100.0	(111)
중	71.5	28.5	100.0	(592)
하	56.1	43.9	100.0	(148)
거주주택 점유 형태($\chi^2=80.1^{***}$)				
자가	52.6	47.4	100.0	(171)
전세 (월세 없음)	58.4	41.6	100.0	(303)
보증금 있는 월세	84.6	15.4	100.0	(351)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포함)	84.6	15.4	100.0	(26)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현재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 이자나 상환액으로 매달 지불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본인 명의이면서 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한 267명을 대상으로 그 금액을 알아본 결과, 평균 금액은 약 45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구간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20.6%였다.

주택 점유 형태에 따라 대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큰 차이가 나타났다듯이 매달 지불하는 이자 또한 점유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가인 경우 평균 약 7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반해, 전세인 경우는 평균 약 36만 원, 월세의 경우는 약 31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가인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5%로 전세 10.2%,

월세 5.1%와 비교해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1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는 경우, 매달 지불하는 이자 및 상환액(주택 명의가 본인인 경우)

(단위: %, 명, 만원)

구분	10만 원 미만	10만~20만 원 미만	20만~30만 원 미만	30만~40만 원 미만	40만~50만 원 미만	50만~100만 원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14.6	18.0	16.5	17.2	20.6	13.1	100.0	(267)	45.4
거주주택 점유 형태($\chi^2=99.0^{**}$)									
자가	0.0	0.0	11.1	19.8	45.7	23.5	100.0	(81)	71.3
전세(월세 없음)	17.3	31.5	16.5	16.5	7.9	10.2	100.0	(127)	35.5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시골세연세월세 등 포함)	28.8	13.6	23.7	15.3	13.6	5.1	100.0	(59)	31.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 조사에 참여한 미혼 청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가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가 7.8%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명의가 본인이면서 자가로 소유하는 경우가 851명 중 20.1%로 나타난 것에 더해 전체 응답자 3002명 중 7.8%가 또 다른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거지가 아닌 곳에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여성(5.4%)보다는 남성(9.6%)이 더 높았고, 연령이 평균 초혼 연령 미만(6.6%)보다는 이상(9.6%)인 경우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곳 이외에 본인 명의의 소유는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8.4%로, 없는 경우의 응답 비율인 5.5%와 비교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은 14.2%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곳에 미혼 청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정한 그룹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아 그룹 간 차이를 받

견할 수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거 마련에 대한 상속을 기대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는 현재 거주지 이외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가 12.6%로 기대하지 않거나 상속받을 곳이 없는 경우의 6.3%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신혼집 명목으로 준비해 두었을 확률이 높은 미혼 청년 소유의 주택은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거나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의 미혼 그룹에서 높게 나타나 주택 마련은 청년 개인의 속성보다는 가족 및 부모님의 특성과 더욱 관련이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자가 있음	자가 없음	계	(명)
전체	7.8	92.2	100.0	(3,002)
성별($\chi^2=19.2^{***}$)				
남성	9.6	90.4	100.0	(1,708)
여성	5.4	94.6	100.0	(1,294)
연령($\chi^2=9.0^{**}$)				
평균 초혼 연령 미만	6.6	93.4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9.6	90.4	100.0	(1,224)
거주지($\chi^2=1.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3	92.7	100.0	(1,656)
광역시	8.4	91.6	100.0	(598)
그 외 시도	8.4	91.6	100.0	(748)
취업 여부($\chi^2=1.8$)				
취업	8.1	91.9	100.0	(2,554)
미취업	6.3	93.7	100.0	(448)
결혼 의향($\chi^2=5.8^*$)				
있음	8.4	91.6	100.0	(2,368)
없음	5.5	94.5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28.4^{***}$)				
상	14.2	85.8	100.0	(329)
중	7.6	92.4	100.0	(2,275)
하	3.9	96.1	100.0	(398)
상속 기대 여부($\chi^2=29.6^{***}$)				
기대함/이미 받았음	12.6	87.4	100.0	(707)
기대 없음/안 계심	6.3	93.7	100.0	(2,295)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 미혼 청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이 있는 응답자에게 그 주택비용 마련의 주체를 알아보았다. 총 234명 중 ‘전부 부모님 등이 마련해 주셨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높았고, 이와 비슷하게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하였다’는 비율도 27.9%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 본인 명의 자가 주택비용 마련 주체

(단위: %, 명)

구분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함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 등이 일부 도움	부모님 등이 대부분 마련해 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전부 부모님 등이 마련해 주심	계	(명)
전체	27.9	22.8	20.9	28.3	100.0	(234)
성별($\chi^2=6.5$)						
남성	27.4	27.1	20.2	25.3	100.0	(165)
여성	29.2	12.7	22.6	35.6	100.0	(69)
연령($\chi^2=21.7^{***}$)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7.3	21.6	20.6	40.5	100.0	(117)
평균 초혼 연령 이상	38.4	24.1	21.2	16.3	100.0	(117)
거주지($\chi^2=8.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7.9	19.0	18.0	35.2	100.0	(121)
광역시	26.3	31.9	21.3	20.5	100.0	(50)
그 외 시도	29.2	23.0	26.3	21.5	100.0	(63)
취업 여부($\chi^2=22.4^{***}$)						
취업	31.2	24.0	21.4	23.4	100.0	(206)
미취업	4.2	14.0	17.8	64.1	100.0	(28)
결혼 의향($\chi^2=4.7$)						
있음	29.3	23.8	21.2	25.7	100.0	(199)
없음	19.8	17.1	19.7	43.4	100.0	(35)
부모님 경제수준($\chi^2=3.4$)						
상	26.5	23.6	28.2	21.8	100.0	(47)
중	27.5	23.0	19.7	29.9	100.0	(172)
하	37.0	19.3	13.3	30.5	100.0	(15)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연령에 따라서는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인 그룹에서는 ‘전부 부모님 등이 마련해 주셨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았지만,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그룹에서는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비율이 38.4%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미취업 그룹은 ‘전부 부모님 등이 마련해 주셨다’는 응답이 64.1%로 매우 높은 반면,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비율은 4.2%로 매우 낮았다.

미혼 청년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나 그 외 본인이 소유한 집 등 주거 마련을 위해 사용된 대출금 이자 또는 상환액, 매월 임차료 등이 현재 본인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아보았다.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거나 상환할 대출금이 없는 경우가 전체 중 33.2%를 차지했다. 실질적으로 부담 정도를 응답한 비율을 확인해 보면, ‘매우 부담된다’는 경우가 25.2%, ‘조금 부담된다’는 경우가 26.5%로 나타났고,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는 8.6%,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6.5%로 지불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청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한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비율이 27.8%인데 미취업의 경우는 19.5%로 미취업의 경우가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비취업의 경우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거나 상환할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42.2%로 나타났기 때문이거나 임차료나 대출금 이자 및 상환액 금액 자체가 적어서일 수 있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는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보다 현재 주거비용과 관련된 지출이 ‘부담된다(매우 부담됨+조금 부담됨)’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은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38.5%로 높게 나타났고,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그룹이 1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4〉 주택 임차료, 대출금 이자 및 상환액 지불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거의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없음	계	(명)
전체	25.2	26.5	8.6	6.5	33.2	100.0	(3,002)
성별($\chi^2=13.4^*$)							
남성	24.9	28.6	9.0	6.6	30.9	100.0	(1,708)
여성	25.5	23.8	8.1	6.4	36.2	100.0	(1,294)
연령($\chi^2=4.7$)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5.3	26.5	7.7	6.6	33.8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4.9	26.5	9.9	6.3	32.3	100.0	(1,224)
거주지($\chi^2=16.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6.3	27.6	8.9	6.1	31.1	100.0	(1,656)
광역시	26.7	25.2	7.8	7.3	32.9	100.0	(598)
그 외 시도	21.4	25.3	8.4	6.8	38.0	100.0	(748)
취업 여부($\chi^2=23.5^{***}$)							
취업	25.5	27.8	8.7	6.4	31.6	100.0	(2,554)
미취업	23.2	19.5	8.1	6.9	42.2	100.0	(448)
결혼 의향($\chi^2=12.5^*$)							
있음	25.6	27.6	8.4	6.5	31.8	100.0	(2,368)
없음	23.4	22.6	9.2	6.5	38.3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63.0^{***}$)							
상	22.9	21.0	12.4	8.7	34.9	100.0	(329)
중	23.2	27.5	8.0	6.6	34.6	100.0	(2,275)
하	38.5	25.3	8.6	4.1	23.6	100.0	(398)

주: 1) $^*p < .05$, $^{**}p < .01$,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해당없음'은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거나 상환할 대출금이 없는 경우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결혼할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재 미혼이라고 응답한 그룹을 대상으로 현재 본인이 지불하는 주택 임차료나 대출금 이자 및 상환액이 어느 정도 부담되는지 살펴본 결과, 해당 그룹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이 29.7%로 가장 높고, '조금 부담된다'는 의견도 28.7%로 나타나 '부담된다'는 의견이 전체 58.4%로 나타났다. 전체 미혼 청년 그룹보다 결혼할 의향이 있지만 상황으로 인해 결혼하지 않은 그룹은 그 부담이 약간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은 현재 주거비도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이

43.4%로 매우 높아 다른 그룹에 비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5〉 주택 임차료, 대출금 이자 및 상환액 지불 부담 정도(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거의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없음	계	(명)
전체	29.7	28.7	7.2	5.2	29.2	100.0	(1,085)
성별($\chi^2=18.1^{**}$)							
남성	28.8	31.2	8.2	5.9	25.9	100.0	(730)
여성	31.5	23.4	5.2	3.9	35.9	100.0	(355)
거주지($\chi^2=12.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0.9	30.0	6.9	4.4	27.9	100.0	(608)
광역시	32.9	24.2	7.6	7.5	27.7	100.0	(232)
그 외 시도	23.8	29.7	7.8	5.0	33.7	100.0	(245)
부모님 경제수준($\chi^2=28.4^{***}$)							
상	27.2	24.8	7.3	6.8	33.8	100.0	(101)
중	27.4	29.4	6.8	5.0	31.4	100.0	(825)
하	43.4	27.3	9.6	5.2	14.5	100.0	(15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해당없음'은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거나 상환할 대출금이 없는 경우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조사 대상 미혼 청년 인구 중 과반수 이상은 주택 임차료나 대출금 이자 및 상환액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부담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을 위주로 그 주거비용 부담이 현재 결혼하지 않은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대상자 1810명 중 37.9%는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38.7%는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주택비용이 부담 되는 경우는 그 부담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주택 관련 비용 부담이 '결혼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비율이 5.5%인 데 반해, 여성은 11.7%였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전

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비율은 6.8%인데, 그 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11.2%로 차이를 보였다. 결혼 의향이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주택 관련 비용 부담이 결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향이 있었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 결혼 의향이 있는 그룹은 6.9% 응답률을 보인 데 반해, 결혼 의향이 없는 그룹은 12.7%가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은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34.3%인 데 반해,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은 50.4%가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표 4-16〉 주택 관련 비용 부담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조금 영향을 미침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계	(명)
전체	37.9	38.7	15.3	8.0	100.0	(1,810)
성별($\chi^2=23.7^{***}$)						
남성	38.5	40.0	16.0	5.5	100.0	(1,068)
여성	37.0	36.9	14.3	11.7	100.0	(743)
연령($\chi^2=1.8$)						
평균 초혼 연령 미만	38.3	39.3	14.4	8.0	100.0	(1,059)
평균 초혼 연령 이상	37.4	37.8	16.6	8.1	100.0	(751)
거주지($\chi^2=17.5^{**}$)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0.5	37.4	15.3	6.8	100.0	(1,040)
광역시	39.3	38.0	14.9	7.8	100.0	(357)
그 외 시도	30.3	42.7	15.9	11.2	100.0	(413)
취업 여부($\chi^2=2.3$)						
취업	38.5	38.1	15.4	8.0	100.0	(1,582)
미취업	33.9	42.7	15.1	8.3	100.0	(228)
결혼 의향($\chi^2=12.9^{**}$)						
있음	38.7	39.1	15.3	6.9	100.0	(1,460)
없음	34.5	37.3	15.5	12.7	100.0	(350)
부모님 경제수준($\chi^2=30.1^{***}$)						
상	34.3	34.1	21.2	10.3	100.0	(185)
중	35.7	40.6	15.4	8.3	100.0	(1,337)
하	50.4	33.1	11.3	5.2	100.0	(28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이러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은 결혼하고 싶지만 상황상 못 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과연 결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세분화된 그룹으로 다시 살펴보았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전체 46.0%로 나타났다. 앞선 결과에서 전체 그룹 중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37.9%였던 것과 비교해 해당 세부 그룹은 현재 주거에 사용되는 비용 부담이 본인이 현재 결혼하지 않은 것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성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미혼, 그리고 부모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은 현재 주거비용 부담이 결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는 본인 자산이 없는 경우 주거비용에 대한 부모님의 도움이 있을 확률이 낮고, 또는 오히려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미혼 중 결혼 의향이 있으나 못 하고 있는 경우는 57.9%의 매우 높은 비율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주택 관련 비용 부담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구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조금 영향을 미침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계	(명)
전체	46.0	37.4	13.1	3.5	100.0	(712)
성별($\chi^2=11.2$)						
남성	44.4	38.1	15.0	2.5	100.0	(498)
여성	49.6	35.8	8.8	5.9	100.0	(214)
거주지($\chi^2=14.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9.7	35.6	12.3	2.4	100.0	(412)
광역시	47.4	33.3	14.7	4.6	100.0	(150)
그 외 시도	34.2	46.6	13.8	5.4	100.0	(150)
부모님 경제수준($\chi^2=11.1$)						
상	41.3	37.0	18.5	3.1	100.0	(60)
중	43.6	39.0	13.8	3.6	100.0	(525)
하	57.9	30.8	8.0	3.3	100.0	(127)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제2절 미혼 청년의 결혼 시 희망 주거특성

본 절에서는 미혼 청년들이 결혼할 때 마련하고자 하는 주거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혼 시 마련하는 주거라는 표현 대신 편의상 이후부터 신혼집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우선, 신혼집 마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들이 가장 중요하고, 어떠한 조건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건들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신혼집으로 희망하는 주택 유형, 점유 형태, 규모, 비용, 마련 가능성 등을 알아보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도 함께 살펴보았다.

희망하는 신혼집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의향이 없는 청년들은 만일 결혼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신혼집을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특성별 분석에 결혼 의향을 포함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신혼집 마련 시 중요한 사항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았다. 1순위로 꼽은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46.0%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13.9%가 주택위치를 1순위로 꼽았고, 그 외 점유 형태, 거주환경, 주택 유형, 주택상태 및 구성, 교통환경 등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주택가격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남성은 51.4%, 여성은 38.9%로 비율에는 차이를 보였다. 주택가격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비율은 수도권에 거주 중인 경우는

43.2%였고, 그 외 시도에 거주 중인 비율은 50.0%로 그 외 시도가 수도권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수도권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인 사항은 점유 형태와 주택위치, 교통환경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중요시하는 사항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비교해 보면, 낮은 그룹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주택가격과 교통환경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여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 신혼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4-18〉 신혼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주택 가격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상태 및 구성	주택 위치	거주 환경	교통 환경	주택 가격 변화	기타	계	(명)
전체	46.0	8.0	8.9	7.0	13.9	8.7	5.8	1.7	0.1	100.0	(3,002)
성별($\chi^2=67.7^{***}$)											
남성	51.4	8.2	7.3	5.9	12.0	8.1	4.7	2.2	0.1	100.0	(1,708)
여성	38.9	7.7	10.9	8.4	16.3	9.6	7.2	1.1	0.1	100.0	(1,294)
연령($\chi^2=7.1$)											
평균 초혼 연령 미만	47.6	7.3	8.7	7.2	13.2	8.6	5.6	1.7	0.1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43.6	8.9	9.1	6.8	14.9	8.9	6.1	1.7	0.1	100.0	(1,224)
거주지($\chi^2=45.7^{***}$)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3.2	7.1	10.0	6.3	15.9	8.5	7.0	1.9	0.1	100.0	(1,656)
광역시	48.7	10.5	7.6	7.2	10.2	9.2	4.7	1.9	0.2	100.0	(598)
그 외 시도	50.0	7.8	7.3	8.5	12.2	8.8	4.0	1.3	0.1	100.0	(748)
취업 여부($\chi^2=14.0$)											
취업	45.9	8.2	9.2	6.6	14.3	8.3	5.7	1.7	0.1	100.0	(2,554)
미취업	46.3	6.8	6.9	9.2	11.2	11.1	6.4	1.8	0.2	100.0	(448)
결혼 의향($\chi^2=14.6$)											
있음	46.2	8.8	8.7	6.8	13.8	8.5	5.6	1.5	0.1	100.0	(2,368)
없음	45.1	5.0	9.3	7.9	14.2	9.6	6.5	2.4	0.2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30.0^*$)											
상	35.9	12.5	11.3	8.7	16.7	8.2	4.6	2.1	0.0	100.0	(329)
중	46.8	7.4	8.4	6.8	13.8	9.1	5.9	1.7	0.1	100.0	(2,275)
하	49.7	7.3	9.4	6.6	12.1	7.0	6.3	1.7	0.0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혼집을 마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특성별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보면, 남성은 결혼 의향에 따라 신혼집 중요 사항에 차이가 있었고, 여성은 거주지와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등 남성과 여성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 의향이 있는 남성은 없는 남성에 비해 주택 유형과 주택상태 및 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높았고, 주택위치나 거주환경은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낮았다. 아무래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결혼을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음에도 활동하기 편하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미혼 개인이 추구하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은 수도권에 사는 경우 다른 시도에 사는 여성과 비교해 점유 형태, 주택위치, 교통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택가격과 주택상태 및 구성은 비교적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광역시에 사는 미혼 여성은 수도권이나 기타 시도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주택 유형과 거주환경을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점유 형태가 중요하고 대도시의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 등이 편리한 환경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광역시는 거주환경에 따라 인프라가 다를 수 있고, 주변 여건은 특히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요소라는 특징이 결과에 나타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32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표 4-19〉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주택 가격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상태 및 구성	주택 위치	거주 환경	교통 환경	주택 가격 변화	계	(명)
미혼 남성	51.4	8.2	7.3	5.9	12.0	8.1	4.7	2.3	100.0	(1,708)
연령($\chi^2=4.2$)										
평균 초혼 연령 미만	53.1	7.7	6.9	6.1	11.8	7.5	4.6	2.3	100.0	(1,005)
평균 초혼 연령 이상	48.9	9.0	7.9	5.7	12.3	9.0	4.9	2.3	100.0	(703)
거주지($\chi^2=18.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9.8	7.3	8.3	5.4	13.3	7.9	5.5	2.4	100.0	(908)
광역시	53.0	10.4	6.8	5.3	9.3	7.6	4.9	2.7	100.0	(341)
그 외 시도	53.5	8.3	5.7	7.4	11.5	8.8	3.1	1.8	100.0	(459)
취업 여부($\chi^2=3.4$)										
취업	51.7	8.5	7.2	5.9	11.9	7.9	4.5	2.4	100.0	(1,450)
미취업	49.4	6.6	8.2	6.1	12.4	9.1	6.2	2.0	100.0	(258)
결혼 의향($\chi^2=21.4^{**}$)										
있음	51.3	9.2	7.1	6.4	11.7	7.6	4.7	2.0	100.0	(1,411)
없음	51.9	3.4	8.6	3.7	13.4	10.5	4.8	3.9	100.0	(297)
부모님 경제수준($\chi^2=21.9$)										
상	41.3	12.8	11.3	7.7	12.7	7.2	4.6	2.3	100.0	(176)
중	52.5	7.7	6.3	6.0	12.0	8.4	4.6	2.4	100.0	(1,312)
하	52.8	7.5	10.0	3.8	11.5	7.0	5.7	1.8	100.0	(219)
미혼 여성	38.9	7.7	10.9	8.4	16.3	9.6	7.2	1.1	100.0	(1,294)
연령($\chi^2=6.4$)										
평균 초혼 연령 미만	40.5	6.9	11.0	8.6	15.0	10.2	6.7	1.1	100.0	(773)
평균 초혼 연령 이상	36.4	8.9	10.7	8.1	18.3	8.7	7.8	1.1	100.0	(521)
거주지($\chi^2=32.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5.2	6.9	12.0	7.2	19.1	9.3	8.8	1.3	100.0	(748)
광역시	42.9	10.6	8.8	9.7	11.3	11.2	4.4	1.1	100.0	(257)
그 외 시도	44.6	7.0	9.8	10.4	13.5	8.8	5.4	0.7	100.0	(289)
취업 여부($\chi^2=25.7^{***}$)										
취업	38.3	7.8	11.9	7.6	17.5	8.8	7.3	1.0	100.0	(1,104)
미취업	42.0	7.0	5.2	13.4	9.7	13.9	6.7	2.1	100.0	(190)
결혼 의향($\chi^2=8.7$)										
있음	38.8	8.1	11.2	7.3	16.8	9.8	6.9	1.0	100.0	(957)
없음	39.1	6.3	9.9	11.6	14.9	8.8	8.0	1.4	100.0	(337)
부모님 경제수준($\chi^2=21.7$)										
상	29.6	12.2	11.2	9.8	21.4	9.4	4.4	1.9	100.0	(152)
중	39.0	7.1	11.2	7.9	16.2	10.1	7.6	0.9	100.0	(963)
하	45.8	7.0	8.7	10.0	12.8	6.9	7.2	1.6	100.0	(17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어쩌면 신혼집에 대한 고민이 더욱 많을 수 있는 그룹인 결혼할 의향이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고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신혼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을 살펴보았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주택가격은 51.7%, 주택위치는 12.7%, 주택 유형은 9.0%, 점유 형태는 8.0%, 거주환경은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 신혼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구분	주택 가격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상태 및 구성	주택 위치	거주 환경	교통 환경	주택가격 변화 및 기타	계	(명)
전체	51.7	9.0	8.0	5.7	12.7	7.0	4.9	1.1	100.0	(1,085)
성별($\chi^2=21.9^{**}$)										
남성	54.8	9.3	7.7	5.3	11.1	5.7	4.5	1.7	100.0	(730)
여성	45.1	8.5	8.6	6.4	16.2	9.7	5.6	0.0	100.0	(355)
거주지($\chi^2=18.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9.8	8.1	8.7	4.9	14.9	7.0	5.2	1.5	100.0	(608)
광역시	52.8	12.7	7.4	6.2	8.3	7.9	4.7	0.0	100.0	(232)
그 외 시도	55.1	7.9	6.7	7.1	11.6	6.1	4.1	1.3	100.0	(245)
부모님 경제수준($\chi^2=14.0$)										
상	45.3	12.1	9.7	8.0	14.0	6.1	2.9	2.0	100.0	(101)
중	50.8	9.3	7.5	5.9	13.1	7.2	5.1	1.1	100.0	(825)
하	60.1	5.7	9.4	2.8	10.0	6.3	5.1	0.6	100.0	(15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전체 미혼인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주택가격이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고려하는 사항임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비율이 결혼 의향 있으나 현재 결혼하지 못한 그룹은 과반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이 그룹에는 신혼집 마련 시 주택가격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번째로 비율이 높은 사항이 전체 응답자에서는 점유 형태였으나, 본 그룹에서는 주택 유형이 점유 형태보다 약간 더 고려하는 사항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 응답자 전체 결과에서는 거주지와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신혼집 마련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지만, 결혼을 하고자 하지만 상황상 못 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다. 이는 상황상 여의치 않아서 결혼을 못 하고 있다는 조건에 의해, 신혼집에 대해 고려하는 중요한 사항이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의 40% 이상이 신혼집 마련 시 1순위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주택가격으로 한곳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순위로 꼽은 것은 조금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2순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주택위치(18.0%)이고, 그다음은 점유 형태(15.2%), 교통환경(14.4%), 주택 유형과 거주환경(13.8%), 주택가격(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혼집 마련에 있어 중요한 사항 2순위에서도 1순위 전체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각각 나누어서 특성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혼집 마련 시 고려 사항 2순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남녀 모두 주택의 위치였다. 하지만 남성 응답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주택 유형(16.1%)이었으나, 여성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점유 형태(14.4%)였다. 남성의 특성별 차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현재 연령이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남성의 경우 미만인 남성보다 점유 형태를 중시하고, 거주환경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재산 축적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효과로 점유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령이 비교적 낮은 남성은 신혼집을 생각한다 해도 주거의 안정성보다는 거주환경의 편의성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 의향이 있는 남성이 없는 남성과 비교해 주택 점유 형태를 중시하고, 교통환경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연령 차이에서 나타난 경향과 같이 결혼 의향이 있어 진지하게 신혼집 마련의 경우를 생각하는 남성은 점유 형태가 그렇지 않은 남성과 비교해 중요한 요소가 되고, 결혼 의향이 없는 남성은 안정성보다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 좋고 이동이 편리한 교통환경임을 알 수 있다.

〈표 4-21〉 미혼 여성과 남성의 신혼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2순위)

(단위: %, 명)

구분	주택 가격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상태 및 구성	주택 위치	거주 환경	교통 환경	주택 가격 변화	계	(명)
전체	12.0	13.8	15.2	10.2	18.0	13.8	14.4	2.5	100.0	(3,001)
미혼 남성	10.8	16.1	15.8	8.0	19.3	13.4	13.6	3.0	100.0	(1,707)
연령($\chi^2=5.7$)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0.3	16.0	14.6	7.9	19.5	14.7	13.8	3.2	100.0	(1,004)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1.5	16.1	17.6	8.0	18.9	11.7	13.4	2.8	100.0	(703)
거주지($\chi^2=19.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1.7	16.0	15.5	6.8	19.7	12.3	15.2	2.9	100.0	(908)
광역시	10.8	14.0	15.4	7.6	21.0	13.8	14.1	3.2	100.0	(341)
그 외 시도	8.9	17.7	16.9	10.6	17.2	15.4	10.3	3.0	100.0	(458)
취업 여부($\chi^2=7.6$)										
취업	10.5	16.7	16.0	8.1	19.3	13.0	13.1	3.2	100.0	(1,450)
미취업	12.0	12.3	14.7	7.5	18.8	16.1	16.5	1.9	100.0	(257)
결혼 의향($\chi^2=5.6^{**}$)										
있음	10.6	16.1	16.5	7.9	19.1	13.3	13.2	3.3	100.0	(1,411)
없음	11.5	15.9	12.9	8.4	20.2	13.9	15.6	1.7	100.0	(296)
부모님 경제수준($\chi^2=15.3$)										
상	9.1	18.2	13.2	8.2	22.5	12.3	11.4	5.0	100.0	(176)
중	10.8	15.6	15.7	7.4	19.4	13.8	14.3	3.0	100.0	(1,311)
하	11.9	16.9	19.0	11.2	15.8	11.9	11.6	1.8	100.0	(219)
미혼 여성	13.7	10.8	14.4	13.1	16.3	14.3	15.5	1.9	100.0	(1,294)
연령($\chi^2=16.4$)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3.8	11.3	14.3	15.2	16.9	13.5	13.7	1.3	100.0	(773)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3.6	10.1	14.5	9.9	15.5	15.5	18.2	2.8	100.0	(521)
거주지($\chi^2=30.7^{**}$)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4.7	10.2	13.6	12.2	16.7	12.5	18.7	1.3	100.0	(748)
광역시	10.4	10.7	16.9	13.0	16.3	15.7	14.3	2.6	100.0	(257)
그 외 시도	14.1	12.5	14.1	15.3	15.3	17.8	8.1	2.7	100.0	(289)
취업 여부($\chi^2=12.2$)										
취업	14.6	11.1	13.6	12.9	16.5	13.6	15.7	2.0	100.0	(1,104)
미취업	8.5	9.4	19.0	14.3	15.3	18.5	13.9	1.1	100.0	(190)

〈표 4-21〉 계속

구분	주택 가격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상태 및 구성	주택 위치	거주 환경	교통 환경	주택 가격 변화	계	(명)
결혼 의향($\chi^2=25.4^{***}$)										
있음	14.3	11.6	12.2	12.0	17.8	14.2	16.1	1.9	100.0	(957)
없음	12.0	8.7	20.6	16.2	12.3	14.6	13.8	1.8	100.0	(337)
부모님 경제수준($\chi^2=19.3$)										
상	18.4	8.5	12.8	16.0	18.2	11.0	11.3	3.9	100.0	(152)
중	12.9	11.1	13.6	12.7	16.7	15.0	16.3	1.7	100.0	(963)
하	14.3	11.5	19.7	12.8	12.6	13.8	14.4	1.0	100.0	(17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기타는 0.1 수준으로 생략함.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혼집 마련에 있어 1순위로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이고, 2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택위치였다. 그렇다면, 신혼집 마련 시 주택과 관련된 각 사항에 대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인지 또는 타협 가능한지 그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절대 포기할 수 없을수록 0에 가깝고 타협이 가능할수록 10에 가까운 점수이다. 평균으로 보면, 주택 유형이 6.0으로 가장 타협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다음이 주택가격으로 5.9점이었다. 그리고 주택상태 및 구성, 주택위치, 거주환경이 5.1점, 교통환경이 4.7점으로 위치와 환경이 다른 사항들과 비교해 타협이 어려운 항목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두 5점 이상으로 보통 타협이 가능하게 나타났고, 교통환경이 4.7점으로 포기할 수 없는 쪽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신혼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이지만, 동시에 가장 타협이 가능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대신, 2순위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주택위치가 다른 사항들에 비해 포기하기 어려운 항목이었다.

〈표 4-22〉 신혼집 마련 시 각 항목별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정도

(단위: %, 점, 명)

구분	절대 포기할 수 없음 ← 보통 → 얼마든지 타협 가능함										계	(명)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주택가격	3.3	2.1	4.2	6.2	6.6	22.9	15.0	16.8	8.5	2.3	12.2	100.0	(3,002)	5.9
주택 유형	3.0	1.9	4.4	7.3	7.9	18.5	13.0	16.2	11.0	3.6	13.3	100.0	(3,002)	6.0
점유 형태	3.7	2.7	5.8	8.4	7.9	22.2	13.7	15.5	8.6	2.5	9.1	100.0	(3,002)	5.5
주택상태 및 구성	4.1	3.9	8.3	10.5	9.5	20.4	13.6	12.8	7.6	2.7	6.6	100.0	(3,002)	5.1
주택위치	4.0	3.6	8.6	11.1	10.5	20.3	12.4	11.6	7.7	3.1	7.1	100.0	(3,002)	5.1
거주환경	3.7	3.5	9.6	12.0	10.2	20.6	11.9	12.0	6.9	3.1	6.4	100.0	(3,002)	5.1
교통환경	5.2	5.9	12.0	12.7	9.6	18.0	10.2	10.7	6.8	2.9	6.0	100.0	(3,002)	4.7
주택가격 변화	3.3	3.2	7.0	8.1	10.7	25.5	12.1	11.1	7.0	3.6	8.4	100.0	(3,002)	5.3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절대 포기할 수 없음' 0점부터 '얼마든지 타협 가능함'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협 가능성이 높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포기나 타협 가능한 점수에 대해 남녀로 구분해 특성별로 면밀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항목에 대해 타협 가능 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장 타협이 가능한 사항이 주택 유형이었는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본 결과에서는 남성은 여전히 주택 유형이었으나 여성은 주택가격과 주택 유형이 5.8점으로 동일하게 타협 가능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포기할 수 없는 항목으로 꼽은 교통환경의 평균은 남성이 5.1점, 여성은 4.2점으로 여성은 보통보다 포기할 수 없는 쪽에 더욱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은 모든 항목이 5점 이상으로 보통에서 타협 가능한 사항에 가깝는데 비해, 여성은 교통환경, 거주환경, 주택위치, 주택상태 및 구성 등 4개 항목이 5점 미만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이 신혼집 마련에 있어서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미혼 여성의 경우 주택상태 및 구성, 주택위치, 거주환경, 교통환경, 주택가격 변화 항목이 모두 5점 미만으로 포기하기 어려운 사항이 가장 많은 그룹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23〉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 시 각 항목별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주택 가격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상 태 및 구성	주택 위치	거주 환경	교통 환경	주택가격 변화	(명)
전체	5.9	6.0	5.5	5.1	5.1	5.1	4.7	5.3	(3,002)
미혼 남성	6.0	6.2	5.7	5.5	5.5	5.4	5.1	5.5	(1,708)
연령									
평균 초혼 연령 미만	5.9	6.2	5.7	5.4	5.4	5.3	5.0	5.4	(1,005)
평균 초혼 연령 이상	6.1	6.1	5.8	5.6	5.5	5.5	5.3	5.7	(703)
거주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6.0	6.1	5.7	5.4	5.3	5.3	4.9	5.5	(908)
광역시	6.0	6.3	5.9	5.7	5.7	5.5	5.4	5.6	(341)
그 외 시도	6.0	6.2	5.8	5.6	5.5	5.4	5.4	5.5	(459)
취업 여부									
취업	6.0	6.1	5.7	5.5	5.5	5.4	5.2	5.6	(1,450)
미취업	6.0	6.5	5.9	5.4	5.2	5.1	4.8	5.5	(258)
결혼 의향									
있음	6.0	6.2	5.7	5.5	5.5	5.4	5.2	5.6	(1,411)
없음	5.6	6.1	5.7	5.3	5.1	5.3	4.8	5.3	(297)
부모님 경제수준									
상	5.6	5.8	5.5	5.3	5.1	5.1	4.9	5.1	(176)
중	6.1	6.2	5.7	5.5	5.5	5.3	5.2	5.6	(1,312)
하	5.7	6.2	5.9	5.5	5.5	5.7	5.2	5.6	(219)
미혼 여성	5.8	5.8	5.3	4.7	4.7	4.6	4.2	5.1	(1,294)
연령									
평균 초혼 연령 미만	5.8	5.8	5.4	4.6	4.8	4.7	4.2	5.2	(773)
평균 초혼 연령 이상	5.7	5.8	5.2	4.8	4.6	4.6	4.2	5.0	(521)
거주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7	5.8	5.3	4.6	4.5	4.6	4.0	5.0	(748)
광역시	5.8	5.6	5.3	4.7	4.8	4.7	4.4	5.0	(257)
그 외 시도	5.7	6.0	5.3	4.8	5.1	4.8	4.5	5.3	(289)
취업 여부									
취업	5.8	5.9	5.3	4.7	4.7	4.7	4.2	5.1	(1,104)
미취업	5.5	5.5	5.0	4.6	4.8	4.4	4.1	4.9	(190)
결혼 의향									
있음	5.9	5.9	5.3	4.8	4.8	4.7	4.3	5.0	(957)
없음	5.4	5.7	5.1	4.4	4.5	4.4	3.9	5.2	(337)
부모님 경제수준									
상	5.8	5.5	5.0	4.3	4.4	4.5	4.0	4.8	(152)
중	5.7	5.8	5.3	4.7	4.7	4.6	4.2	5.0	(963)
하	5.9	6.3	5.4	4.8	5.0	4.8	4.3	5.6	(179)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절대 포기할 수 없음' 0점부터 '얼마든지 타협 가능함'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협 가능성이 높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혼집 마련 시 고려하는 항목 중 교통환경에 대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과 결혼 의향이 없는 여성,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여성이 가장 낮은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 이는 남성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

신혼집의 여러 가지 조건 중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규모 등에 대해 본인이 살고 싶은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희망하는 신혼집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9.0%, 단독주택 14.8%, 연립 및 다세대주택 3.6% 등으로 나타났다. 고시원 및 기숙사는 응답지에 선택문항으로 제시하였으나 선택한 응답자가 없었다.

희망하는 신혼집 주택 유형은 모든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아파트를 가장 우선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욱 아파트를 선호하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80.9%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원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그 외 시도에서는 71.9%가 아파트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사는 각각 11.8%와 12.8%가 희망을 하는 반면, 그 외 시도에서는 23.0%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율이 81.0%로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의 아파트 선호 비율 71.3%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없는 그룹에서는 그만큼 단독주택에 대한 비율이나 오피스텔에 응답한 비율이 결혼 의향이 있는 그룹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과 ‘중’인 그룹은 약 80%가 아파트를 희망하고, ‘하’인 그룹은 약 70%가 아파트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룹 간 차이가 존재했다.

〈표 4-24〉 희망하는 신혼집 주택 유형

(단위: %, 명)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및 기타	계	(명)
전체	79.0	14.8	3.6	2.3	100.0	(3,002)
성별($\chi^2=8.4^1$)						
남성	77.6	16.1	4.0	2.3	100.0	(1,708)
여성	80.8	13.1	3.1	3.0	100.0	(1,294)
연령($\chi^2=11.1^1$)						
평균 초혼 연령 미만	80.7	13.6	3.0	2.7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76.4	16.5	4.6	2.5	100.0	(1,224)
거주지($\chi^2=59.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80.9	11.8	4.2	3.1	100.0	(1,656)
광역시	82.5	12.8	2.9	1.8	100.0	(598)
그 외 시도	71.9	23.0	2.8	2.3	100.0	(748)
취업 여부($\chi^2=13.1^{**}$)						
취업	73.4	20.2	4.3	2.2	100.0	(2,554)
미취업	80.0	13.8	3.5	2.7	100.0	(448)
결혼 의향($\chi^2=43.6^{***}$)						
있음	81.0	13.0	3.9	2.1	100.0	(2,368)
없음	71.3	21.4	2.7	4.6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25.5^{***}$)						
상	80.7	12.9	3.3	3.1	100.0	(329)
중	80.2	13.9	3.7	2.2	100.0	(2,275)
하	70.6	21.2	3.5	4.6	100.0	(398)

주: 1) $^1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희망하는 신혼집 주택 유형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은 모든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거주지와 결혼 의향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율로 비교해 보면,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여성인 경우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희망하는 비율(83.6%)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가장 높은 비율로 희망하는 그룹은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그 외 시도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25.0%)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미혼 남녀의 희망하는 신혼집 주택 유형

(단위: %, 명)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및 기타	계	(명)
미혼 남성	77.6	16.1	4.0	2.3	100.0	(1,708)
연령($\chi^2=10.3^*$)						
평균 초혼 연령 미만	80.0	14.4	3.2	2.5	100.0	(1,005)
평균 초혼 연령 이상	74.2	18.5	5.1	2.1	100.0	(703)
거주지($\chi^2=40.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80.0	12.5	4.7	2.8	100.0	(908)
광역시	80.8	13.5	3.3	2.4	100.0	(341)
그 외 시도	70.5	25.0	3.1	1.4	100.0	(459)
취업 여부($\chi^2=15.4^{**}$)						
취업	79.2	14.8	3.7	2.3	100.0	(1,450)
미취업	68.6	23.1	5.9	2.3	100.0	(258)
결혼 의향($\chi^2=24.4^{***}$)						
있음	79.7	14.3	4.0	1.9	100.0	(1,411)
없음	67.4	24.4	4.1	4.1	100.0	(297)
부모님 경제수준($\chi^2=19.3^{**}$)						
상	78.1	13.8	4.0	4.2	100.0	(176)
중	79.0	15.2	4.1	1.7	100.0	(1,312)
하	68.8	22.9	3.6	4.6	100.0	(219)
미혼 여성	80.8	13.1	3.1	3.0	100.0	(1,294)
연령($\chi^2=1.9$)						
평균 초혼 연령 미만	81.6	12.6	2.7	3.1	100.0	(773)
평균 초혼 연령 이상	79.5	13.8	3.8	2.9	100.0	(521)
거주지($\chi^2=21.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82.0	10.9	3.7	3.4	100.0	(748)
광역시	84.7	11.8	2.3	1.1	100.0	(257)
그 외 시도	74.1	19.9	2.4	3.6	100.0	(289)
취업 여부($\chi^2=3.0$)						
취업	80.9	12.6	3.3	3.2	100.0	(1,104)
미취업	79.7	16.2	2.0	2.0	100.0	(190)
결혼 의향($\chi^2=23.1^{***}$)						
있음	82.9	11.1	3.7	2.3	100.0	(957)
없음	74.8	18.8	1.5	5.0	100.0	(337)
부모님 경제수준($\chi^2=9.4$)						
상	83.6	12.0	2.5	1.9	100.0	(152)
중	81.8	12.2	3.2	2.9	100.0	(963)
하	72.9	19.1	3.4	4.7	100.0	(17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80% 가까운 비율이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유형의 주택이 마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희망하는 신혼집에 대한 질문에서와 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택도 아파트가 가장 많은 비율(40.0%)을 보였으나, 약 80%의 희망에서 절반가량이 다른 유형의 주택을 결국은 현실 신혼집으로 꼽았다. 희망 신혼집에서는 3.6%이던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에서는 36.7%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에 대해서는 모든 특성이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성별을 나누어 다시 특성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각 성별 내에서도 모든 특성이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경우는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43.2%, 여성 41.3%인 데 반해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인 그룹은 남성 36.8%, 여성 40.5%가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오피스텔을 마련 가능한 신혼집 유형으로 응답한 비율은 초혼 연령 미만인 남성은 14.3%, 이상인 남성은 8.9%로 차이를 보였고, 여성도 초혼 연령 이상인 여성은 10.1%, 미만인 여성은 17.5%로 남녀 모두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그룹은 미만인 그룹과 비교해 아파트를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고, 오피스텔을 마련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더 낮은 차이를 보인다. 거주지에 따라서 현실 가능한 신혼집에도 남녀 모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유형은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고(남성 44.7%, 여성 42.3%), 광역시와 그 외 시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유형은 아파트였다. 특히 그 외 시도에 거주하는 여성은 아파트를 마련 가능한 신혼집으로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표 4-26〉 미혼 남녀의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 주택 유형

(단위: %, 명)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및 기타	계	(명)
전체	40.0	6.6	36.7	13.1	3.6	100.0	(3,002)
미혼 남성	39.4	6.9	37.8	12.1	3.7	100.0	(1,708)
연령($\chi^2=14.7^*$)							
평균 초혼 연령 미만	36.8	6.8	38.5	14.3	3.6	100.0	(1,005)
평균 초혼 연령 이상	43.2	7.1	36.8	8.9	3.9	100.0	(703)
거주지($\chi^2=57.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2.7	6.1	44.7	13.2	3.2	100.0	(908)
광역시	43.4	7.6	30.9	13.6	4.5	100.0	(341)
그 외 시도	49.7	8.0	29.4	8.7	4.2	100.0	(459)
취업 여부($\chi^2=27.6^{***}$)							
취업	41.2	6.4	38.1	10.9	3.3	100.0	(1,450)
미취업	29.3	9.7	36.2	18.5	6.3	100.0	(258)
결혼 의향($\chi^2=16.3^*$)							
있음	40.6	6.9	37.4	12.1	3.0	100.0	(1,411)
없음	33.7	7.1	39.8	11.9	7.4	100.0	(297)
부모님 경제수준($\chi^2=59.2^{***}$)							
상	53.1	8.1	19.3	17.1	2.3	100.0	(176)
중	39.8	6.5	39.3	11.3	3.1	100.0	(1,312)
하	26.4	8.7	43.6	12.5	8.7	100.0	(219)
미혼 여성	40.8	6.2	35.2	14.5	3.3	100.0	(1,294)
연령($\chi^2=19.0^{***}$)							
평균 초혼 연령 미만	40.5	5.2	32.9	17.5	3.8	100.0	(773)
평균 초혼 연령 이상	41.3	7.7	38.5	10.1	2.5	100.0	(521)
거주지($\chi^2=53.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4.3	6.1	42.3	15.2	2.1	100.0	(748)
광역시	47.5	6.6	27.8	12.7	5.4	100.0	(257)
그 외 시도	51.7	6.3	23.2	14.5	4.3	100.0	(289)
취업 여부($\chi^2=28.1^{***}$)							
취업	41.1	6.3	36.1	14.2	2.2	100.0	(1,104)
미취업	39.0	5.7	29.6	16.4	9.2	100.0	(190)
결혼 의향($\chi^2=12.0^*$)							
있음	41.7	6.7	35.1	14.2	2.4	100.0	(957)
없음	38.2	4.9	35.5	15.6	5.8	100.0	(337)
부모님 경제수준($\chi^2=27.3^{***}$)							
상	45.0	7.1	30.9	15.0	2.0	100.0	(152)
중	42.6	5.3	34.3	14.9	2.9	100.0	(963)
하	27.9	10.5	43.5	12.0	6.1	100.0	(17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취업을 한 남녀 모두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혼집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에 응답한 비율이 미취업의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오피스텔과 고시원, 기숙사 등의 유형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남녀가 같게 나타났다. 하지만 단독주택에 응답한 경우는 미취업의 남성이 취업한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여성은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인 여성보다 단독주택에 응답한 비율이 약간 더 높아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 내에서 남녀별 상이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결혼 의향에 따른 차이는, 결혼 의향이 있는 남녀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유형이 아파트와 단독주택 두 유형이고 나머지 유형은 모두 결혼 의향이 없는 그룹이 있는 그룹보다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경제수준이 높은 남성은 50% 가까이 아파트라고 응답했고,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남성과 여성은 40% 이상이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라고 응답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특히 여성과 비교해서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 가능한 신혼집이 아파트라고 응답한 비율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성이 결혼 시 주택 마련에 있어 좀 더 주도적인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대한 차이가 마련 가능한 주택 유형의 결과에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신혼집 주택 유형에 대해 희망과 현실을 비교해 보면, 희망하는 신혼집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9.0%로 매우 높고, 단독주택 14.8%, 연립 및 다세대주택 3.6%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혼집은 아파트가 40%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그다음이 희망 신혼집에서 나타난 단독주택이 아닌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36.7%로 나타나는 등 차이를 보였다. 오피스텔을 신혼집으로 원한다는 응답은 2.3%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13.1%가 오피스텔이 마련할 수 있는 신혼집 유형이라고 응답했다.

〈표 4-27〉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혼집 주택 유형 비교

(단위: %, 명)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및 기숙사	기타	계	(명)
희망	79.0	14.8	3.6	2.3	0.0	0.4	100.0	(3,002)
현실	40.0	6.6	36.7	13.1	2.0	1.6	100.0	(3,002)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신혼집 주택 유형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혼집 주택 유형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 보았다. 아파트를 희망하는 비율이 81.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단독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로 응답자의 13.2% 비율로 나타났다. 해당 그룹의 희망과 현실의 차이는 위의 전체 응답자 결과와 비교해 아파트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욱 높고,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가능한 비율은 더욱 낮아 그 차이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신혼집 주택 유형에서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혼집 주택 유형 비교(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및 기숙사	기타	계	(명)
희망	81.5	13.2	3.0	1.9	0.0	0.4	100.0	(1,085)
현실	33.2	5.9	42.2	15.7	1.8	1.2	100.0	(1,085)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혼집의 주택 유형에 이어 신혼집 점유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희망하는 신혼집의 점유 형태는 자가가 7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세는 24.0%, 보증금 있는 월세는 0.9%, 보증금 없는 월세는 0.5%, 그 외 사글세, 연세, 일세 등은 0.2%, 무상은 0.6%로 자가와 전세를 제외한 점유 형태는 희망하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별 분석은 자가, 전세, 그리고 그 외 점유 형태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표 4-29〉 희망하는 신혼집 점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없음)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무상 등	계	(명)
전체	73.9	24.0	2.1	100.0	(3,002)
성별($\chi^2=2.9$)					
남성	74.2	23.3	2.4	100.0	(1,708)
여성	73.4	25.0	1.7	100.0	(1,294)
연령($\chi^2=4.6$)					
평균 초혼 연령 미만	72.4	25.4	2.2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75.9	22.1	2.0	100.0	(1,224)
거주지($\chi^2=5.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2.6	25.4	2.0	100.0	(1,656)
광역시	76.3	21.1	2.5	100.0	(598)
그 외 시도	74.7	23.4	1.9	100.0	(748)
취업 여부($\chi^2=20.5^{***}$)					
취업	74.8	23.5	1.7	100.0	(2,554)
미취업	68.2	27.2	4.6	100.0	(448)
희망신혼집 주택 유형($\chi^2=155.0^{***}$)					
아파트	76.4	22.1	1.5	100.0	(2,371)
단독주택	75.0	23.1	2.0	100.0	(444)
기타	38.8	51.3	10.0	100.0	(188)
부모님 경제수준($\chi^2=1.5$)					
상	73.1	24.7	2.3	100.0	(329)
중	74.3	23.6	2.2	100.0	(2,275)
하	72.1	26.2	1.7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무상'은 부모님 등 소유의 집이나 관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희망하는 신혼집의 점유 형태는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취업한 경우에는 자가를 원하는 비율이 74.8%였으나, 미취업인 경우에는 68.2%가 자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여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남성의 경우에만 취업을 한 경우 미취업보다는 자가를 희망하는 비율이 약간 낮고 전세나 그 외의 점유 형태를 희망하는 비율은 미취업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희망하는 신혼집은 여성의 경우에는 특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남성의 경우만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희망하는 신혼집에 대한 주택 유형에 따른 점유 형태 차이를 살펴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모두 자가를 희망하는 비율이 7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기타 유형에서는 전세 희망 비율이 51.3%로 높고, 월세나 사글세 등의 비율도 10.0%로 나타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원하는 경우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의 점유 형태는 전세가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희망하는 신혼집의 점유 형태에서는 1.0% 미만이었던 보증금 있는 월세가 25.7%나 나타났고, 자가는 13.4%로 나타나 희망하는 신혼집 점유 형태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마련이 가능한 신혼집 점유 형태에 대해서는 모든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남녀 모두 신혼집으로 가능한 점유 형태는 전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자가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16.5%였고, 여성은 9.4%에 그쳤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그 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 형태가 가능하다고 하는 응답이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한 경우는 14.3%, 미취업인 경우는 8.3%가 자가가 가능하다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

집 주택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파트 유형과 연립 및 다세대 유형, 그리고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기타 유형 모두 전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는 자가로 27.1%였지만, 연립 및 다세대의 경우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36.1%로 전세 다음으로 높았고, 기타 주택 유형의 경우도 보증금 있는 월세가 36.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 희망하는 신혼집이 아파트인 경우와 그 외 주택 유형인 경우 사이의 마련 가능한 점유 형태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는 19.5%, ‘하’인 경우는 9.5%만이 자가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가능한 신혼집의 점유 형태는 여러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4-30〉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 점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무상	계	(명)
전체	13.4	56.5	25.7	1.6	1.3	1.4	100.0	(3,002)
성별($\chi^2=49.4^{**}$)								
남성	16.5	52.1	26.3	1.9	1.7	1.5	100.0	(1,708)
여성	9.4	62.3	24.9	1.2	0.8	1.4	100.0	(1,294)
연령($\chi^2=46.6^{***}$)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0.0	58.0	27.4	1.6	1.5	1.5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8.4	54.2	23.3	1.6	1.0	1.4	100.0	(1,224)
거주지($\chi^2=37.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0.6	59.8	25.8	1.5	1.0	1.3	100.0	(1,656)
광역시	15.9	53.3	25.0	2.0	2.3	1.5	100.0	(598)
그 외 시도	17.8	51.7	25.9	1.7	1.2	1.7	100.0	(748)
취업 여부($\chi^2=91.8^{***}$)								
취업	14.3	58.5	23.7	1.4	1.0	1.0	100.0	(2,554)
미취업	8.3	44.8	36.9	2.9	3.2	4.0	100.0	(448)
마련 가능 신혼집 주택 유형($\chi^2=577.3^{***}$)								
아파트	27.1	61.4	9.6	0.8	0.2	0.8	100.0	(1,202)
연립 및 다세대	2.9	57.3	36.1	1.5	1.2	1.0	100.0	(1,101)
기타	6.4	46.7	36.9	3.3	3.4	3.2	100.0	(699)

〈표 4-30〉 계속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무상	계	(명)
부모님 경제수준($\chi^2=76.0^{***}$)								
상	19.5	60.3	16.5	1.9	0.3	1.5	100.0	(329)
중	13.2	58.1	24.6	1.5	1.4	1.3	100.0	(2,275)
하	9.5	44.3	39.7	2.3	1.9	2.3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무상'은 부모님 등 소유의 집이나 관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 점유 형태를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세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남녀 모두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마련 가능한 신혼집 주택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파트가 마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자가 점유 형태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33.5%, 여성이 19.1%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또한 아파트와 연립 및 다세대 이외의 주택 유형이 마련 가능한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 등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남성은 12.6%, 여성은 6.6%로 남성이 더 높았다. 기타 유형의 주택에서도 여성은 전세가 가능하다는 비율이 50.2%로 비교적 높았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남녀별로 보면,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성은 '보증금 있는 월세' 형태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43.7%)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은 '전세'를 마련 가능한 신혼집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50.5%) 남녀 간 차이가 있었다.

〈표 4-31〉 미혼 남녀의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 점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무상 등	계	(명)
전체	13.4	56.5	25.7	4.3	100.0	(3,002)
미혼 남성	16.5	52.1	26.3	5.1	100.0	(1,708)
연령($\chi^2=31.9^{**}$)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2.3	55.1	27.3	5.3	100.0	(1,005)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2.6	47.7	24.9	4.9	100.0	(703)
거주지($\chi^2=17.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3.7	55.2	26.6	4.6	100.0	(908)
광역시	18.2	51.4	23.9	6.5	100.0	(341)
그 외 시도	20.9	46.4	27.5	5.2	100.0	(459)
취업 여부($\chi^2=61.1^{***}$)						
취업	17.5	54.7	23.7	4.1	100.0	(1,450)
미취업	11.2	37.2	40.7	10.8	100.0	(258)
마련 가능 신혼집 주택 유형($\chi^2=382.2^{***}$)						
아파트	33.5	55.4	9.3	1.8	100.0	(674)
연립 및 다세대	4.0	53.5	38.4	4.1	100.0	(646)
기타	7.9	43.9	35.6	12.6	100.0	(389)
부모님 경제수준($\chi^2=57.8^{***}$)						
상	24.8	57.2	15.1	2.9	100.0	(176)
중	16.4	53.5	24.9	5.2	100.0	(1,312)
하	10.6	39.3	43.7	6.5	100.0	(219)
미혼 여성	9.4	62.3	24.9	3.4	100.0	(1,294)
연령($\chi^2=17.3^{**}$)						
평균 초혼 연령 미만	7.0	61.8	27.5	3.8	100.0	(773)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2.9	63.1	21.0	3.0	100.0	(521)
거주지($\chi^2=18.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6.8	65.4	24.9	2.9	100.0	(748)
광역시	12.8	55.8	26.4	4.9	100.0	(257)
그 외 시도	12.9	60.0	23.5	3.5	100.0	(289)
취업 여부($\chi^2=32.8^{***}$)						
취업	10.2	63.6	23.7	2.5	100.0	(1,104)
미취업	4.2	55.0	31.8	9.0	100.0	(190)
마련 가능 신혼집 주택 유형($\chi^2=199.5^{***}$)						
아파트	19.1	69.1	10.0	1.8	100.0	(528)
연립 및 다세대	1.3	62.7	32.8	3.1	100.0	(455)
기타	4.7	50.2	38.6	6.6	100.0	(311)

〈표 4-31〉 계속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무상 등	계	(명)
부모님 경제수준($\chi^2=24.8^{***}$)						
상	13.4	63.9	18.1	4.5	100.0	(152)
중	8.9	64.3	24.1	2.7	100.0	(963)
하	8.2	50.5	34.8	6.5	100.0	(17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무상'은 부모님 등 소유의 집이나 관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희망하는 신혼집 점유 형태와 현실적으로 마련이 가능한 신혼집을 비교해 보면, 희망하기로는 자가 형태를 희망하는 비율이 73.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 자가는 13.4%만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56.5%는 전세, 25.7%는 월세로 나타나 희망과 현실의 간극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표 4-32〉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혼집 점유 형태 비교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무상	계	(명)
희망	73.9	24.0	0.9	0.5	0.2	0.6	100.0	(3,002)
현실	13.4	56.5	25.7	1.6	1.3	1.4	100.0	(3,002)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혼집 점유 형태를 비교해 보았다. 이 결과는 조사 대상 전체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가가 가능한 경우는 전체의 결과(13.4%)보다 낮은 9.1%의 비

율로 나타났다. 역시 신혼집으로 자가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점유 형태는 전세가 가장 많고, 보증금 있는 월세도 30.0% 가까이로 나타나 자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10.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33〉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혼집 점유 형태 비교(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무상	계	(명)
희망	73.1	24.8	1.4	0.2	0.1	0.5	100.0	(1,085)
현실	9.1	56.7	29.3	1.3	1.6	2.0	100.0	(1,085)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혼집에 대한 점유 형태에 이어 신혼집 마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을 알아보았다. 1억~2억 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7%로 가장 높았고 1억 원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27.4%로 높았다. 평균 금액을 확인해 보면, 1억 5990만 원으로 약 1억 6000만 원이 적절한 비용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신혼집 적정 비용이 약간 높았고, 수도권외의 경우 평균 1억 7500만 원 정도인 데 반해, 그 외 시도는 약 1억 3000만 원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과 점유 형태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아파트를 희망하는 경우가 적정비용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가장 높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이외의 주택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1억 원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희망하는 신혼집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1억 74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는 적정비용이 높았고, 자가나 전세가 아닌 경우의 생각하는 적정비용은 760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은 약 1억 8600만 원이 평균으로 나타났

고, 낮은 그룹에서는 약 1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4-34〉 신혼집 마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1억 원 미만	1억~ 2억 원 미만	2억~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27.4	33.7	23.7	15.3	100.0	(3,002)	15,990
성별($\chi^2=13.4^{**}$)							
남성	29.5	33.9	22.8	13.8	100.0	(1,708)	15,310
여성	24.5	33.5	24.8	17.2	100.0	(1,294)	16,889
연령($\chi^2=4.8$)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8.5	33.5	23.6	14.3	100.0	(1,778)	15,519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5.7	33.9	23.8	16.6	100.0	(1,224)	16,676
거주지($\chi^2=81.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3.2	32.6	25.9	18.3	100.0	(1,656)	17,495
광역시	27.1	33.4	24.1	15.4	100.0	(598)	15,649
그 외 시도	36.8	36.3	18.4	8.5	100.0	(748)	12,933
취업 여부($\chi^2=27.7^{***}$)							
취업	25.8	33.7	24.3	16.3	100.0	(2,554)	16,455
미취업	36.2	33.8	20.2	9.7	100.0	(448)	13,345
희망신혼집 주택 유형($\chi^2=98.8^{***}$)							
아파트	23.7	34.0	25.4	16.9	100.0	(2,371)	16,920
단독주택	37.9	32.7	18.5	11.0	100.0	(444)	13,218
기타	48.8	32.0	13.9	5.2	100.0	(188)	10,797
희망신혼집 점유 형태($\chi^2=178.8^{***}$)							
자가	22.3	33.0	26.3	18.4	100.0	(2,217)	17,440
전세(월세 없음)	39.5	36.5	17.4	6.6	100.0	(722)	12,271
기타	66.0	24.7	3.1	6.2	100.0	(63)	7,620
부모님 경제수준($\chi^2=45.8^{***}$)							
상	25.5	24.9	25.5	24.1	100.0	(329)	18,567
중	26.1	35.2	24.2	14.5	100.0	(2,275)	15,966
하	36.1	32.3	19.0	12.5	100.0	(398)	14,001

주: 1) $^*p < .05$, $^{**}p < .01$,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혼집으로 자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구입 비용,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증금이며,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 연세, 일세, 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0원으로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혼집 마련 비용에 대해 남녀를 구분해 살펴보면, 남성 평균은 1억 5310만 원, 여성 평균은 1억 6889만 원으로 그 차이는 1579만 원으로

여성이 더 높게 평균비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중에서는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이 가장 높게 신혼집 비용을 잡고 있고 (1억 7583만 원), 그다음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1억 6922만 원)이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여성(1억 9708만 원)이 가장 높게 적정 신혼집 비용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은 희망하는 신혼집이 자가인 경우(1억 8440만 원)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 그룹(1억 819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여성인 경우도 신혼집 비용을 높게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5〉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미혼 남성	29.5	33.9	22.8	13.8	100.0	(1,708)	15,310
연령($\chi^2=2.7$)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9.8	33.1	24.0	13.1	100.0	(1,005)	15,047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9.1	34.9	21.1	14.8	100.0	(703)	15,686
거주지($\chi^2=56.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4.3	32.7	26.1	17.0	100.0	(908)	16,922
광역시	29.5	34.2	23.7	12.6	100.0	(341)	14,751
그 외 시도	39.9	36.0	15.7	8.5	100.0	(459)	12,536
취업 여부($\chi^2=23.3^{***}$)							
취업	27.8	33.8	23.2	15.2	100.0	(1,450)	15,850
미취업	39.1	34.3	20.3	6.2	100.0	(258)	12,271
희망신혼집 주택 유형($\chi^2=56.7^{***}$)							
아파트	25.2	34.9	24.7	15.2	100.0	(1,325)	16,258
단독주택	43.8	29.6	17.3	9.3	100.0	(275)	12,181
기타	45.9	31.8	14.1	8.2	100.0	(108)	11,631
희망신혼집 점유 형태($\chi^2=104.4^{***}$)							
자가	24.2	33.4	26.0	16.3	100.0	(1,268)	16,691
전세(월세 없음)	42.4	36.5	14.8	6.3	100.0	(399)	11,657
기타	67.0	21.2	2.4	9.4	100.0	(42)	8,217
부모님 경제수준($\chi^2=30.9^{***}$)							
상	29.8	22.8	24.5	22.9	100.0	(176)	17,583
중	27.9	35.4	23.6	13.1	100.0	(1,312)	15,333
하	38.7	33.8	16.9	10.5	100.0	(219)	13,342

〈표 4-35〉 계속

구분	1억 원 미만	1억~ 2억 원 미만	2억~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미혼 여성	24.5	33.5	24.8	17.2	100.0	(1,294)	16,889
연령($\chi^2=8.6^*$)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6.9	34.1	23.1	15.9	100.0	(773)	16,132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1.0	32.6	27.3	19.1	100.0	(521)	18,011
거주지($\chi^2=27.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1.9	32.6	25.6	19.9	100.0	(748)	18,190
광역시	24.0	32.3	24.8	19.0	100.0	(257)	16,841
그 외 시도	32.0	36.9	22.6	8.6	100.0	(289)	13,563
취업 여부($\chi^2=8.7^*$)							
취업	23.2	33.5	25.6	17.7	100.0	(1,104)	17,249
미취업	32.3	33.2	20.0	14.5	100.0	(190)	14,800
희망신혼집 주택 유형($\chi^2=52.3^{***}$)							
아파트	21.8	32.9	26.3	19.0	100.0	(1,045)	17,761
단독주택	28.4	37.7	20.3	13.6	100.0	(169)	14,900
기타	52.8	32.3	13.7	1.2	100.0	(80)	9,664
희망신혼집 점유 형태($\chi^2=78.7^{***}$)							
자가	19.8	32.5	26.6	21.1	100.0	(949)	18,440
전세(월세 없음)	35.9	36.5	20.6	7.0	100.0	(323)	13,028
기타	64.0	31.5	4.6	0.0	100.0	(22)	6,470
부모님 경제수준($\chi^2=17.2^{**}$)							
상	20.6	27.3	26.6	25.5	100.0	(152)	19,708
중	23.6	35.0	25.1	16.3	100.0	(963)	16,830
하	33.0	30.5	21.6	15.0	100.0	(179)	14,807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혼집으로 자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구입 비용,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증금이며,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 연세, 일세, 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0원으로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신혼집 비용에서의 응답보다 실제 신혼집을 구할 때 들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에 대한 응답에서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이 희망하는 적절 신혼집 비용은 평균 약 1억 6000만 원이었다면, 실제로 신혼집을 구하는데 들 것이라 생각하는 비용은 평균 약 2억 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성별 차이에서는 신혼집 마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특성에서는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평균 2억 3300만 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고, 광역시의 경우는 1억 9900만 원, 그 외 시도의 경우는 1억 7400만 원으로 예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는 2억 3000만 원 이상을 현실적인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가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억 7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적인 신혼집 평균 비용에서는 부모님의 경제 상태에 따라 상, 중, 하 그룹이 각기 다른 금액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실제로 신혼집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응답에서는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그룹은 여전히 예상 평균 금액이 높았지만,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중간이나 낮은 그룹은 비슷한 수준의 평균 금액을 보여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은 희망과 실제의 차이가 클 수 있고 그만큼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 비용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4-36〉 현실적으로 신혼집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19.7	26.9	25.0	28.4	100.0	(3,002)	21,129
성별($\chi^2=13.4^{**}$)							
남성	21.9	27.0	24.6	26.5	100.0	(1,708)	20,513
여성	16.8	26.7	25.6	30.9	100.0	(1,294)	21,943
연령($\chi^2=4.8$)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0.7	28.4	24.1	26.8	100.0	(1,778)	20,404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8.3	24.6	26.4	30.8	100.0	(1,224)	22,183
거주지($\chi^2=81.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6.1	25.2	25.9	32.9	100.0	(1,656)	23,266
광역시	22.1	24.4	25.8	27.6	100.0	(598)	19,855
그 외 시도	25.8	32.5	22.5	19.2	100.0	(748)	17,417
취업 여부($\chi^2=27.7^{***}$)							
취업	18.4	26.9	25.6	29.2	100.0	(2,554)	21,415
미취업	27.0	26.9	22.0	24.1	100.0	(448)	19,504

〈표 4-36〉 계속

구분	1억 원 미만	1억~ 2억 원 미만	2억~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마련 가능 신혼집 주택 유형($\chi^2=86.3^{***}$)							
아파트	13.5	25.6	26.9	34.0	100.0	(1,202)	23,311
연립 및 다세대	21.6	30.0	25.7	22.6	100.0	(1,101)	18,976
기타	27.4	24.0	20.7	27.9	100.0	(699)	20,771
마련 가능 신혼집 점유 형태($\chi^2=181.0^{***}$)							
자가	11.5	15.9	26.5	46.1	100.0	(403)	27,540
전세(월세 없음)	15.9	29.1	27.9	27.1	100.0	(1,696)	21,182
보증금 있는 월세	29.5	28.4	19.5	22.6	100.0	(771)	17,630
기타	36.2	22.7	15.6	25.5	100.0	(132)	21,308
부모님 경제수준($\chi^2=45.8^{***}$)							
상	18.0	19.4	26.3	36.4	100.0	(329)	23,904
중	19.1	28.0	25.5	27.3	100.0	(2,275)	20,906
하	24.7	26.3	21.1	28.0	100.0	(398)	20,116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혼집으로 자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구입 비용,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증금이며,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 연세, 일세, 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0원으로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남녀별 분석에서는 남성은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 생각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고, 여성은 연령,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 모두 거주지, 마련가능한 신혼집 특성에 따른 차이는 공통적으로 보였다. 남성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만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을 예상하고, 광역시와 그 외 시도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은 평균적으로 2억 원 미만의 비용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여성은 기타 시도에 거주하는 여성만 2억 원 미만을 예상하고,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하는 미혼 여성은 2억 원 이상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생각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과 여성은 모두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수도권 거주 미혼 남성의 31.4%, 수도권 거주 미혼 여성의 34.6%로 높게 나타났다. 신혼집을 자가로 마련 가능한 경우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면, 남성은 42.3%, 여성

은 55.0%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 비용으로 보면, 생각하는 집이 각자 다르겠지만 남성 중 자가가 가능하다고 한 경우는 2억 5700만 원가량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성은 3억 1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같은 자가라 해도 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신혼집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남녀 모두 신혼집 비용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그룹은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이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남성 중 35.0%,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여성 중 38.0%가 현실적으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에는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연령대의 여성의 경우 33.8%가 3억 원 이상의 신혼집 비용을 예상해 비교적 높은 비용을 예상하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표 4-37〉 미혼 남녀의 현실적으로 신혼집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미혼 남성	21.9	27.0	24.6	26.5	100.0	(1,708)	20,513
연령($\chi^2=4.6$)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2.5	28.5	24.0	25.1	100.0	(1,005)	20,013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1.1	24.8	25.5	28.5	100.0	(703)	21,228
거주지($\chi^2=40.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7.9	25.3	25.4	31.4	100.0	(908)	22,649
광역시	24.1	26.1	25.2	24.7	100.0	(341)	19,257
그 외 시도	28.1	30.9	22.8	18.2	100.0	(459)	17,221
취업 여부($\chi^2=3.6$)							
취업	21.2	26.9	25.0	26.9	100.0	(1,450)	20,564
미취업	26.1	27.4	22.5	24.1	100.0	(258)	20,227
마련 가능 신혼집 주택 유형($\chi^2=52.0^{***}$)							
아파트	15.1	26.5	27.4	31.0	100.0	(674)	22,254
연립 및 다세대	23.2	30.8	23.5	22.4	100.0	(646)	18,581
기타	31.5	21.3	21.6	25.6	100.0	(389)	20,707
마련 가능 신혼집 점유 형태($\chi^2=100.8^{***}$)							
자가	14.0	17.6	26.2	42.3	100.0	(282)	25,740
전세(월세 없음)	18.1	29.2	27.9	24.9	100.0	(889)	20,455
보증금 있는 월세	31.8	28.6	19.6	20.0	100.0	(449)	17,002
기타	35.6	26.6	12.6	25.2	100.0	(87)	22,282

〈표 4-37〉 계속

구분	1억 원 미만	1억~ 2억 원 미만	2억~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부모님 경제수준($\chi^2=19.6^{**}$)							
상	20.6	18.3	26.1	35.0	100.0	(176)	22,367
중	21.1	27.7	25.5	25.7	100.0	(1,312)	20,377
하	27.9	29.3	18.4	24.4	100.0	(219)	19,834
미혼 여성	16.8	26.7	25.6	30.9	100.0	(1,294)	21,943
연령($\chi^2=8.8^*$)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8.4	28.4	24.2	29.0	100.0	(773)	20,912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4.5	24.2	27.6	33.8	100.0	(521)	23,473
거주지($\chi^2=34.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3.8	25.1	26.5	34.6	100.0	(748)	24,015
광역시	19.6	22.2	26.7	31.5	100.0	(257)	20,649
그 외 시도	22.1	35.0	22.1	20.7	100.0	(289)	17,729
취업 여부($\chi^2=22.3^{***}$)							
취업	14.9	26.8	26.3	32.1	100.0	(1,104)	22,533
미취업	28.2	26.2	21.4	24.1	100.0	(190)	18,525
마련 가능 신혼집 주택 유형($\chi^2=41.8^{***}$)							
아파트	11.5	24.4	26.2	37.8	100.0	(528)	24,659
연립 및 다세대	19.3	28.9	28.8	22.9	100.0	(455)	19,536
기타	22.2	27.4	19.7	30.8	100.0	(311)	20,851
마련 가능 신혼집 점유 형태($\chi^2=91.2^{***}$)							
자가	5.8	11.8	27.4	55.0	100.0	(121)	31,734
전세(월세 없음)	13.6	29.0	28.0	29.5	100.0	(806)	21,984
보증금 있는 월세	26.3	28.2	19.3	26.1	100.0	(322)	18,508
기타	37.2	15.2	21.5	26.1	100.0	(45)	19,400
부모님 경제수준($\chi^2=10.1$)							
상	14.9	20.6	26.5	38.0	100.0	(152)	25,686
중	16.4	28.4	25.6	29.5	100.0	(963)	21,627
하	20.8	22.6	24.3	32.3	100.0	(179)	20,461

주: 1) $^*p < .05$, $^{**}p < .01$,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혼집으로 자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구입 비용,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증금이며,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 연세, 일세, 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0원으로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혼집 마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1억~2억 원 미만이 가장 많고, 평균은 1억 5990만 원이었다. 하지만 현실과의 차이를 보면 3억 원 이상 필요하다는 의견이 28.4%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도

2억 1129만 원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과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 신혼집에 드는 비용이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신혼집 비용과 현실적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신혼집 마련 비용 비교

(단위: %, 명, 만원)

구분	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적절	27.4	33.7	23.7	15.3	100.0	(3,002)	15,990
현실	19.7	26.9	25.0	28.4	100.0	(3,002)	21,129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결혼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신혼집 마련에 적절한 금액은 1억~2억 원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을 구할 때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응답과 달리 1억~2억 원 미만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비율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1억 4745만 원으로 조사 응답자 전체의 결과보다 1200만 원가량 낮았고, 실질적으로 들 것 같은 비용은 1억 9977만 원으로 조사 대상자 전체의 결과보다 1100만 원 낮게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그룹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신혼집 마련 금액과 실질적으로 들어갈 비용의 차이는 약 5200만 원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과 실제비용 사이의 차이는 조사 응답자 전체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이 그룹에서는 신혼집 마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과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약간 낮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주택 유형에서도 조사 대상자 전체 결과에서보다 이 세부 그룹에서는 아파

트의 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이 높은 점과, 점유 형태에서도 자가에 상대적으로 낮고 월세가 높은 등 실질적으로 가능한 신혼집 유형과 점유 형태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는 신혼집에 대해 생각하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표 4-39〉 신혼집 마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만원)

구분	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적절	28.6	37.6	21.7	12.0	100.0	(1,085)	14,745
현실	20.7	28.1	26.3	24.9	100.0	(1,085)	19,977

3. 신혼집 마련 비용

신혼집 마련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응답은 제외하고, 신혼집 마련 비용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일부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68.1%, 전혀 부담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6.5%, 전액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25.4%로 나타났다.

특성에 따라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전액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40.4%로 여성의 5.8%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고, 전혀 부담할 의향이 없는 경우도 남성은 2.3%인 데 반해 여성은 12.1%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일부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일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취업의 경우와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은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40〉 신혼집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의향

(단위: %, 명)

구분	부담 의향 없음	일부 부담할 의향 있음	전액 부담할 의향 있음	계	(명)
전체	6.5	68.1	25.4	100.0	(2,981)
성별($\chi^2=517.6^{***}$)					
남성	2.3	57.3	40.4	100.0	(1,693)
여성	12.1	82.2	5.8	100.0	(1,288)
연령($\chi^2=7.5$)					
평균 초혼 연령 미만	5.7	69.6	24.7	100.0	(1,766)
평균 초혼 연령 이상	7.8	65.8	26.4	100.0	(1,215)
거주지($\chi^2=10.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8	70.2	24.1	100.0	(1,655)
광역시	7.6	67.0	25.3	100.0	(594)
그 외 시도	7.3	64.1	28.6	100.0	(732)
취업 여부($\chi^2=25.1^{***}$)					
취업	5.6	68.1	26.2	100.0	(2,542)
미취업	11.6	67.7	20.6	100.0	(439)
부모님 경제수준($\chi^2=23.8^{***}$)					
상	5.2	65.6	29.2	100.0	(326)
중	5.8	69.0	25.2	100.0	(2,261)
하	11.8	64.6	23.5	100.0	(394)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비용이 들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혼집에 드는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의향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을 각각 나누어 보면 그 차이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남성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남성이 미만인 남성보다 전액 부담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여성은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여성이 미만인 여성보다 오히려 전액 부담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1〉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의향

(단위: %, 명)

구분	부담 의향 없음	일부 부담할 의향 있음	전액 부담할 의향 있음	계	(명)
미혼 남성	2.3	57.3	40.4	100.0	(1,693)
연령($\chi^2=5.0$)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0	59.5	38.5	100.0	(997)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8	54.2	43.0	100.0	(696)
거주지($\chi^2=5.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7	58.7	39.6	100.0	(907)
광역시	3.5	56.1	40.4	100.0	(338)
그 외 시도	2.8	55.4	41.8	100.0	(448)
취업 여부($\chi^2=33.1^{***}$)					
취업	1.5	56.4	42.0	100.0	(1,441)
미취업	6.7	62.3	30.9	100.0	(252)
부모님 경제수준($\chi^2=16.3^{**}$)					
상	2.2	50.1	47.7	100.0	(174)
중	1.8	58.7	39.5	100.0	(1,301)
하	5.5	54.9	39.5	100.0	(217)
미혼 여성	12.1	82.2	5.8	100.0	(1,288)
연령($\chi^2=8.1^*$)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0.4	82.8	6.8	100.0	(769)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4.6	81.2	4.2	100.0	(519)
거주지($\chi^2=6.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0.8	84.1	5.2	100.0	(748)
광역시	13.1	81.4	5.5	100.0	(256)
그 외 시도	14.5	77.8	7.7	100.0	(284)
취업 여부($\chi^2=8.5^*$)					
취업	11.0	83.4	5.6	100.0	(1,101)
미취업	18.2	75.0	6.8	100.0	(188)
부모님 경제수준($\chi^2=13.8^{**}$)					
상	8.7	83.5	7.8	100.0	(151)
중	11.2	83.0	5.8	100.0	(960)
하	19.6	76.5	3.9	100.0	(177)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비용이 들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구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면, 평균 1억 700만 원 정도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남성은 1억 3700만 원 정도가 평균으로 나타났고 여

성의 경우는 670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연령, 거주지, 취업 여부, 부모님 경제수준 모든 특성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신혼집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27.1	27.1	27.3	18.4	100.0	(2,981)	10,668
성별($\chi^2=365.3^{***}$)							
남성	17.4	23.1	32.1	27.4	100.0	(1,693)	13,701
여성	40.0	32.4	21.0	6.6	100.0	(1,288)	6,682
연령($\chi^2=13.5^{**}$)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7.4	28.7	27.5	16.4	100.0	(1,766)	10,187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6.7	24.8	27.1	21.3	100.0	(1,215)	11,367
거주지($\chi^2=26.9^{***}$)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4.3	26.2	29.0	20.5	100.0	(1,655)	11,511
광역시	29.4	27.1	27.1	16.3	100.0	(594)	9,809
그 외 시도	31.6	29.2	23.7	15.5	100.0	(732)	9,458
취업 여부($\chi^2=20.2^{***}$)							
취업	25.7	27.5	27.8	19.1	100.0	(2,542)	10,842
미취업	35.7	25.0	24.7	14.6	100.0	(439)	9,658
부모님 경제수준($\chi^2=60.0^{***}$)							
상	20.9	21.9	32.4	24.7	100.0	(326)	13,053
중	25.7	28.0	28.1	18.2	100.0	(2,261)	10,613
하	40.3	26.4	19.0	14.3	100.0	(394)	9,013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0원'으로 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혼집 마련 비용 중 본인 부담 의향이 있는 금액 또한 남녀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남녀 각각 구분해 살펴보았다. 남성은 모든 특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에 차이를 보였고, 여성은 거주지와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경우 등이 남녀

모두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43〉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원 미만	1억~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미혼 남성	17.4	23.1	32.1	27.4	100.0	(1,693)	13,701
연령($\chi^2=8.9$)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7.8	24.5	33.0	24.7	100.0	(997)	13,034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6.8	21.2	30.9	31.2	100.0	(696)	14,656
거주지($\chi^2=23.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5.2	20.5	33.5	30.8	100.0	(907)	15,068
광역시	19.0	24.0	32.3	24.7	100.0	(338)	12,764
그 외 시도	20.5	27.9	29.2	22.4	100.0	(448)	11,638
취업 여부($\chi^2=25.0^{***}$)							
취업	15.5	23.2	32.9	28.5	100.0	(1,441)	13,907
미취업	28.0	22.8	28.0	21.2	100.0	(252)	12,521
부모님 경제수준($\chi^2=32.1^{***}$)							
상	13.9	16.7	32.0	37.4	100.0	(174)	16,628
중	16.1	23.5	33.3	27.0	100.0	(1,301)	13,519
하	27.4	25.9	25.2	21.5	100.0	(217)	12,437
미혼 여성	40.0	32.4	21.0	6.6	100.0	(1,288)	6,682
연령($\chi^2=5.4$)							
평균 초혼 연령 미만	40.0	34.2	20.3	5.6	100.0	(769)	6,495
평균 초혼 연령 이상	40.0	29.7	22.1	8.2	100.0	(519)	6,959
거주지($\chi^2=22.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5.5	33.2	23.5	7.9	100.0	(748)	7,198
광역시	43.0	31.4	20.3	5.3	100.0	(256)	5,910
그 외 시도	49.2	31.2	15.0	4.6	100.0	(284)	6,020
취업 여부($\chi^2=3.3$)							
취업	39.0	33.1	21.1	6.8	100.0	(1,101)	6,830
미취업	46.0	28.0	20.3	5.7	100.0	(188)	5,817
부모님 경제수준($\chi^2=40.8^{***}$)							
상	29.0	27.9	33.0	10.1	100.0	(151)	8,929
중	38.7	34.1	20.9	6.3	100.0	(960)	6,673
하	56.1	27.1	11.3	5.6	100.0	(177)	4,818

주: 1)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0원'으로 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그렇다면 신혼집 마련 비용 중 현재 얼마를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일부 준비되어 있는 경우는 50.3%, 전혀 준비 안 된 경우는 25.7%, 전액 준비되어 있는 경우는 24.1%로 나타났다.

평균 초혼 연령이 지난 그룹과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은 전액 준비된 경우가 30% 이상으로 다른 그룹과 비교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취업자인 경우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58.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의 그룹과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도 3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4-44〉 신혼집 마련에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 현재 준비되어 있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일부 준비되어 있음	전액 준비되어 있음	계	(명)
전체	25.7	50.3	24.1	100.0	(2,787)
성별($\chi^2=75.2^{***}$)					
남성	24.4	45.8	29.8	100.0	(1,654)
여성	27.6	56.7	15.6	100.0	(1,133)
연령($\chi^2=73.4^{***}$)					
평균 초혼 연령 미만	30.7	49.7	19.7	100.0	(1,667)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8.3	51.1	30.6	100.0	(1,120)
거주지($\chi^2=1.9$)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5.6	50.7	23.7	100.0	(1,560)
광역시	27.1	50.0	22.9	100.0	(549)
그 외 시도	24.9	49.4	25.8	100.0	(678)
취업 여부($\chi^2=258.3^{***}$)					
취업	20.3	53.8	25.9	100.0	(2,398)
미취업	58.8	28.2	12.9	100.0	(388)
부모님 경제수준($\chi^2=21.9^{***}$)					
상	20.3	47.2	32.5	100.0	(308)
중	25.4	51.5	23.0	100.0	(2,130)
하	32.1	45.2	22.8	100.0	(34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질문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혼집 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 현재 준비된 정도에서 남성은 연령, 취업 여부,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은 연령, 취업 여부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이고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남성은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 준비 정도가 차이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상, 중, 하 그룹 모두 '전액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 준비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상, 중, 하 그룹 모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액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반적인 경향에 있어서 남성은 취업 여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성에서 '전액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반대의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미혼 여성의 경우 '전액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아서 다른 그룹의 여성과 다른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4-45〉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에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 현재 준비되어 있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일부 준비되어 있음	전액 준비되어 있음	계	(명)
미혼 남성	24.4	45.8	29.8	100.0	(1,654)
연령($\chi^2=39.1^{***}$)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8.4	47.0	24.6	100.0	(977)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8.5	44.1	37.4	100.0	(676)
거주지($\chi^2=1.7$)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4.8	46.1	29.1	100.0	(892)
광역시	24.9	46.3	28.8	100.0	(326)
그 외 시도	23.0	44.8	32.2	100.0	(436)
취업 여부($\chi^2=166.9^{***}$)					
취업	18.8	49.2	32.0	100.0	(1,419)
미취업	57.8	25.5	16.7	100.0	(235)

〈표 4-45〉 계속

구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일부 준비되어 있음	전액 준비되어 있음	계	(명)
부모님 경제수준($\chi^2=20.4^{***}$)					
상	16.1	40.6	43.3	100.0	(170)
중	24.8	47.1	28.1	100.0	(1,278)
하	28.3	42.4	29.3	100.0	(205)
미혼 여성	27.6	56.7	15.6	100.0	(1,133)
연령($\chi^2=37.7^{***}$)					
평균 초혼 연령 미만	33.8	53.6	12.6	100.0	(689)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8.0	61.7	20.3	100.0	(443)
거주지($\chi^2=1.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6.6	56.8	16.6	100.0	(668)
광역시	30.3	55.5	14.3	100.0	(222)
그 외 시도	28.1	57.6	14.2	100.0	(243)
취업 여부($\chi^2=96.0^{***}$)					
취업	22.5	60.5	17.0	100.0	(979)
미취업	60.4	32.4	7.1	100.0	(153)
부모님 경제수준($\chi^2=9.3$)					
상	25.5	55.3	19.2	100.0	(138)
중	26.3	58.2	15.4	100.0	(852)
하	37.5	49.2	13.4	100.0	(142)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질문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세부 그룹인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상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그룹을 대상으로 신혼집 마련에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에서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일부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이 53.0%로 가장 높았고, ‘전액 준비되어 있음’은 26.4%,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은 20.6%로 나타났다. 결혼 시 신혼집 마련을 위해 본인이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전액 준비된 경우는 주거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로 인한 결혼 지연이나 포기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으로는 신혼집 마련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주거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조사 대상자 전체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 때문에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경우는 신혼집에 부담할 금액이 준비되어 있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결혼하고 싶지만 상황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에 대한 준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일반그룹보다 전액 또는 일부라도 준비된 경우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액 준비된 경우는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액 준비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크게 나타났던 미혼 전체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인의 능력 안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신혼집 마련에 드는 비용이 준비된 정보보다 크거나 본인이 기꺼이 부담할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는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비용 문제는 여전히 결혼으로의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46〉 신혼집 마련에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 현재 준비되어 있는 정도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구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일부 준비되어 있음	전액 준비되어 있음	계	(명)
전체	20.6	53.0	26.4	100.0	(1,036)
성별($\chi^2=15.4^{***}$)					
남성	23.7	49.7	26.6	100.0	(716)
여성	13.6	60.3	26.0	100.0	(320)
거주지($\chi^2=0.9$)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1.1	53.2	25.7	100.0	(585)
광역시	18.8	53.6	27.6	100.0	(220)
그 외 시도	21.2	51.7	27.1	100.0	(231)
부모님 경제수준($\chi^2=11.5^*$)					
상	33.1	46.1	20.8	100.0	(96)
중	19.3	54.2	26.4	100.0	(791)
하	19.2	50.7	30.1	100.0	(14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질문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현재 신혼집 마련을 위해 준비된 비용을 직접 액수로 알아본 결과, 평균 6000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평균 7600만 원 정도라고 응답했고, 여성은 평균 3700만 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두 배 정도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의 그룹과 이상의 그룹도 평균 금액에서 차이를 보였고, 취업과 미취업의 경우도 두 배 이상 준비 금액이 차이가 났다.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높은 그룹은 8300만 원 정도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은 4600만 원 정도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47〉 신혼집 마련에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 현재 준비되어 있는 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0원	1~ 3천만 원 미만	3천만~ 5천만 원 미만	5천만~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25.8	20.1	13.7	18.6	21.8	100.0	(2,787)	6,035
성별($\chi^2=209.6^{***}$)								
남성	24.5	14.7	10.9	19.9	30.0	100.0	(1,654)	7,628
여성	27.6	27.8	17.8	16.8	9.9	100.0	(1,133)	3,708
연령($\chi^2=102.5^{***}$)								
평균 초혼 연령 미만	30.8	21.6	13.7	17.4	16.5	100.0	(1,667)	4,797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8.3	17.8	13.7	20.4	29.7	100.0	(1,120)	7,876
거주지($\chi^2=12.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5.6	19.2	13.4	17.9	23.9	100.0	(1,560)	6,465
광역시	27.5	20.0	12.5	20.6	19.4	100.0	(549)	5,539
그 외 시도	24.9	21.9	15.4	18.7	19.1	100.0	(678)	5,446
취업 여부($\chi^2=263.0^{***}$)								
취업	20.4	20.8	14.8	20.3	23.7	100.0	(2,398)	6,506
미취업	58.8	15.7	6.6	8.6	10.3	100.0	(388)	3,125
부모님 경제수준($\chi^2=58.3^{***}$)								
상	20.3	19.2	7.2	19.3	34.0	100.0	(308)	8,277
중	25.5	19.4	14.7	19.1	21.3	100.0	(2,130)	5,942
하	32.4	24.7	13.3	15.1	14.5	100.0	(348)	4,612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 현재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원'으로 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혼집 마련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금액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각각 분석해 보면, 평균적으로 남녀 모두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이 가장 많은 평균 금액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은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그룹이 준비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녀 분석에서 나타난 경향이 동일하다. 하지만 특성에 따른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여성의 경우는 취업한 미혼 여성이 비교적 많은 금액이 준비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금액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그다음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이고, 남성은 취업한 경우에 높은 수준의 금액이 준비되어 있는 그룹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4-48〉 미혼 남녀의 신혼집 마련에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 현재 준비되어 있는 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0원	1~ 3천만 원 미만	3천만~ 5천만 원 미만	5천만~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미혼 남성	24.5	14.7	10.9	19.9	30.0	100.0	(1,654)	7,628
연령($\chi^2=53.8^{***}$)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8.7	16.2	11.6	19.9	23.6	100.0	(977)	6,161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8.5	12.6	9.9	19.9	39.1	100.0	(676)	9,748
거주지($\chi^2=19.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4.8	14.8	9.0	18.5	32.9	100.0	(892)	8,314
광역시	25.6	11.3	12.5	22.7	28.0	100.0	(326)	7,317
그 외 시도	23.0	17.2	13.6	20.7	25.5	100.0	(436)	6,457
취업 여부($\chi^2=173.8^{***}$)								
취업	19.0	14.9	12.1	21.6	32.4	100.0	(1,419)	8,184
미취업	57.8	13.8	3.4	9.6	15.4	100.0	(235)	4,271
부모님 경제수준($\chi^2=35.1^{***}$)								
상	16.1	13.7	5.5	20.1	44.6	100.0	(170)	10,776
중	24.9	14.3	11.1	20.1	29.6	100.0	(1,278)	7,431
하	28.9	18.2	13.9	18.7	20.2	100.0	(205)	6,242
미혼 여성	27.6	27.8	17.8	16.8	9.9	100.0	(1,133)	3,708
연령($\chi^2=57.1^{***}$)								
평균 초혼 연령 미만	33.8	29.2	16.6	14.0	6.4	100.0	(689)	2,864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8.0	25.8	19.5	21.2	15.4	100.0	(443)	5,021

〈표 4-48〉 계속

구분	0원	1~ 3천만 미만	3천만~ 5천만 미만	5천만~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계	(명)	평균
거주지($\chi^2=15.7$)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6.6	25.2	19.3	17.2	11.8	100.0	(668)	3,995
광역시	30.3	32.9	12.5	17.5	6.8	100.0	(222)	2,930
그 외 시도	28.1	30.5	18.5	15.1	7.7	100.0	(243)	3,633
취업 여부($\chi^2=98.7^{***}$)								
취업	22.5	29.3	18.8	18.3	11.1	100.0	(979)	4,074
미취업	60.4	18.5	11.4	7.1	2.6	100.0	(153)	1,373
부모님 경제수준($\chi^2=42.7^{***}$)								
상	25.5	25.9	9.3	18.4	20.9	100.0	(138)	5,191
중	26.3	27.1	20.1	17.7	8.8	100.0	(852)	3,709
하	37.5	34.1	12.3	9.8	6.3	100.0	(142)	2,266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 현재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원'으로 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혼집을 마련할 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녀 부담 비율을 알아보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4%였고, '남성이 반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7%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낮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0.6%로 매우 낮았다.

신혼집 마련 비용의 부담에 대한 생각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해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성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61.8%,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평균 38.2%로 나타나 여전히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은 부담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9〉 신혼집 마련 시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비용 부담 비율

(단위: %, 명)

구분	남성이 50% 미만, 여성이 50% 초과	남성과 여성 각각 50%	남성이 50% 초과, 여성이 50% 미만	계	(명)	평균
전체	0.6	42.4	57.0	100.0	(3,002)	(남성 부담) 61.8 (여성 부담) 38.2
성별($\chi^2=4.30$)						
남성	0.6	44.0	55.4	100.0	(1,709)	(남성 부담) 61.1 (여성 부담) 38.9
여성	0.5	40.4	59.2	100.0	(1,294)	(남성 부담) 62.6 (여성 부담) 37.4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4. 신혼집 마련 준비 정도와 상속 기대

만약 지금 당장 결혼한다고 하면 신혼집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본 결과, 과반수가(57.4%)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6.8%, ‘본인 또는 결혼 상대와 함께 부모님의 지원 없이 스스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7%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신혼집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7.1%, ‘별도의 신혼집이 마련’된 경우가 3.1%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신혼집이 마련되었거나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가 더 많은 경향을 볼 수 있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에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여러 특성에 따른 차이 중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응답이 부모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는 32.5%, 중간인 경우는 17.0%, 낮은 경우는 2.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

제수준 상, 중, 하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상’인 그룹은 33.8%인 반면, ‘하’인 그룹은 77.9%로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4-50〉 지금 결혼한다면 신혼집 마련 준비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신혼집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별도의 신혼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부모님 지원을 받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인(결혼 상대와 함께) 부모님 지원 없이 스스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	(명)
전체	7.1	3.1	16.8	15.7	57.4	100.0	(3,002)
성별($\chi^2=52.3^{***}$)							
남성	9.4	3.8	18.2	14.4	54.2	100.0	(1,708)
여성	3.9	2.3	14.8	17.4	61.6	100.0	(1,294)
연령($\chi^2=86.3^{***}$)							
평균 초혼 연령 미만	5.0	2.4	18.0	12.4	62.3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0.1	4.1	15.0	20.5	50.3	100.0	(1,224)
거주지($\chi^2=19.7^*$)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8	2.7	17.2	15.6	58.6	100.0	(1,656)
광역시	7.3	4.6	17.3	14.4	56.4	100.0	(598)
그 외 시도	9.7	2.9	15.3	16.8	55.4	100.0	(748)
취업 여부($\chi^2=83.7^{***}$)							
취업	7.6	3.4	17.6	17.4	54.0	100.0	(2,554)
미취업	4.0	1.6	11.9	6.0	76.5	100.0	(448)
결혼 의향($\chi^2=56.3^{***}$)							
있음	7.5	3.7	18.5	16.2	54.2	100.0	(2,368)
없음	5.6	1.0	10.4	13.7	69.4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184.8^{***}$)							
상	11.7	5.8	32.5	16.2	33.8	100.0	(329)
중	6.4	3.0	17.0	16.3	57.2	100.0	(2,275)
하	6.8	1.5	2.4	11.5	77.9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특성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특성별로 남성과 여성 각각 차이

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남성의 경우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지만, 여성의 경우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결혼 의향은 있으나 상황에 의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룹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혼집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로 나타났다. 전체 미혼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비율은 좀 더 높고, 스스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는 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경제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매우 높은 비율인 81.6%가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표 4-51〉 지금 결혼한다면 신혼집 마련 준비 정도(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신혼집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별도의 신혼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부모님 지원을 받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인(결혼 상대와 함께) 부모님 지원 없이 스스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	(명)
전체	6.5	2.2	16.3	10.1	64.9	100.0	(1,085)
성별($\chi^2=1.5$)							
남성	7.0	2.4	16.1	10.3	64.2	100.0	(730)
여성	5.3	2.0	16.7	9.7	66.3	100.0	(355)
거주지($\chi^2=15.9$)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4	1.5	16.9	10.4	65.8	100.0	(608)
광역시	6.9	5.2	15.3	9.7	62.9	100.0	(232)
그 외 시도	8.8	1.4	15.5	9.9	64.4	100.0	(245)
부모님 경제수준($\chi^2=52.3^{***}$)							
상	6.2	6.1	29.8	11.8	46.1	100.0	(101)
중	6.4	2.0	17.4	10.3	64.0	100.0	(825)
하	7.0	1.3	2.0	8.2	81.6	100.0	(15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주택비용을 지원받거나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75.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기대하고 있다’는 비율은 20.6%로 나타났다. ‘이미 상속이나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3.0%의 비율을 보여 많은 경우 부모님에게 주택비용 지원이나 상속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4-52〉 결혼 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비용 지원 및 상속 기대

(단위: %, 명)

구분	기대하고 있음	기대하고 있지 않음	이미 상속/지원받음	부모님 안 계심	계	(명)
전체	20.6	75.5	3.0	1.0	100.0	(3,002)
성별($\chi^2=30.3^{***}$)						
남성	22.8	72.0	3.9	1.3	100.0	(1,708)
여성	17.6	80.0	1.7	0.7	100.0	(1,294)
연령($\chi^2=7.8$)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0.5	76.4	2.4	0.8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0.7	74.1	3.8	1.3	100.0	(1,224)
거주지($\chi^2=2.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0.7	75.5	2.7	1.1	100.0	(1,656)
광역시	20.9	75.2	3.1	0.8	100.0	(598)
그 외 시도	20.0	75.7	3.5	0.9	100.0	(748)
취업 여부($\chi^2=13.3^{**}$)						
취업	21.3	74.4	3.2	1.1	100.0	(2,554)
미취업	16.5	81.7	1.4	0.4	100.0	(448)
결혼 의향($\chi^2=32.4^{***}$)						
있음	22.6	73.5	3.0	0.8	100.0	(2,368)
없음	12.8	82.9	2.7	1.6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252.0^{***}$)						
상	46.1	46.2	6.8	0.9	100.0	(329)
중	19.6	77.3	2.5	0.5	100.0	(2,275)
하	5.1	88.9	2.3	3.7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은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기대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의 경우보다는 취업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이나 상속을 기대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결혼 의향이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지원 및 상속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 및 상속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은 46.1%가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낮은 그룹은 5.1%만이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하며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88.9%로 매우 높고, 높은 그룹은 46.2%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75.5%)과도 크게 차이가 났다.

주거비용에 대한 부모님의 지원 기대 여부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알아보았다. 이때 부모님이나 길러주신 분이 계시지 않아 상속에 대한 응답에 해당 사항이 없는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미혼 남성은 연령, 취업 여부, 결혼 의향과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라 상속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고, 미혼 여성은 결혼 의향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고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도 역시 있기는 했으나 20% 이상의 셀에서 빈도가 5보다 작은 결과로 인해 해석상 무리가 있어 χ^2 값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전체 분석에서 나타났던 취업 여부에 따른 상속 기대의 차이는 남성의 결과가 크게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시 남성이 여성보다 주거 마련에 부담을 더 느끼는 경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부모님으로부터의 상속을 기대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남성은 기대하는 비율(49.3%)이 기대하고 있지 않은 비율(43.3%)보다 더 높는데 반해,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같은 경우에도 여성은 기대하는 비율(43.4%)이 기대하지 않은 비율(50.3%)보다 더 낮게 나타나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표 4-53〉 결혼 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비용 지원 및 상속 기대

(단위: %, 명)

구분	기대하고 있음	기대하고 있지 않음	이미 상속/ 지원받음	계	(명)
미혼 남성	23.1	73.0	3.9	100.0	(1,687)
연령($\chi^2=10.6^{**}$)					
평균 초혼 연령 미만	22.4	74.9	2.7	100.0	(994)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4.1	70.2	5.7	100.0	(693)
거주지($\chi^2=3.5$)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3	74.3	3.3	100.0	(896)
광역시	25.5	70.3	4.2	100.0	(337)
그 외 시도	22.8	72.2	4.9	100.0	(454)
취업 여부($\chi^2=7.8^*$)					
취업	23.9	71.8	4.3	100.0	(1,431)
미취업	18.4	79.6	2.0	100.0	(256)
결혼 의향($\chi^2=11.8^{**}$)					
있음	24.7	71.3	4.0	100.0	(1,395)
없음	15.6	80.7	3.7	100.0	(291)
부모님 경제수준($\chi^2=105.8^{***}$)					
상	49.3	43.3	7.4	100.0	(173)
중	22.1	74.4	3.5	100.0	(1,303)
하	7.9	88.2	3.8	100.0	(210)
미혼 여성	17.7	80.5	1.7	100.0	(1,285)
연령($\chi^2=1.0$)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8.4	79.7	1.9	100.0	(770)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6.8	81.8	1.5	100.0	(515)
거주지($\chi^2=3.6$)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9.3	78.7	2.0	100.0	(741)
광역시	15.3	83.1	1.6	100.0	(256)
그 외 시도	16.0	82.8	1.2	100.0	(288)
취업 여부($\chi^2=4.1$)					
취업	18.4	79.6	2.0	100.0	(1,095)
미취업	14.0	85.5	0.5	100.0	(190)
결혼 의향($\chi^2=14.6^{***}$)					
있음	20.2	78.2	1.7	100.0	(953)
없음	10.8	87.3	1.9	100.0	(333)
부모님 경제수준					
상	43.4	50.3	6.3	100.0	(152)
중	16.5	82.3	1.2	100.0	(960)
하	2.2	97.2	0.5	100.0	(173)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부모님이나 길러주신 분이 안 계심'은 제외하고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결과적으로 여성은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아도 상속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좀 더 많았고, 남성의 경우는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으면 상속을 기대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다른 특성들과 비교해 보아도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미혼 남성의 경우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기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그룹인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 참여자가 결혼 시 부모님이 주거 마련과 관련해서 지원이나 상속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지 보면, ‘기대하고 있지 않다’가 77.2%로 나타났고,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는 92.4%까지 비율이 상승하였다. 조사 대상자 전체의 결과보다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씩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은 지원 및 상속을 기대하는 경우가 3.2%로 매우 낮은 경향도 볼 수 있어 여건상 결혼을 미루고 있는 그룹은 부모님의 경제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4〉 결혼 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비용 지원 및 상속 기대(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구분	기대하고 있음	기대하고 있지 않음	이미 상속/지원받음	부모님 안 계심	계	(명)
전체	19.8	77.2	2.1	0.8	100.0	(1,085)
성별($\chi^2=6.6$)						
남성	20.9	75.6	2.3	1.3	100.0	(730)
여성	17.8	80.5	1.7	0.0	100.0	(355)
거주지($\chi^2=1.5$)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8.8	78.3	2.1	0.8	100.0	(608)
광역시	22.4	74.9	1.8	0.9	100.0	(232)
그 외 시도	20.1	76.8	2.2	0.9	100.0	(245)
부모님 경제수준($\chi^2=90.9^{***}$)						
상	44.6	50.1	4.2	1.1	100.0	(101)
중	20.0	77.7	2.1	0.2	100.0	(825)
하	3.2	92.4	0.6	3.8	100.0	(15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부모님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결혼 시 주택 마련에 대한 지원이나 상속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정도를 알아본 결과, 본인이 마련하려는 주택비용의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60%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48.6% 정도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상속이나 지원을 받는다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은 비율로 지원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4-55〉 신혼집 마련 시 부모님으로부터의 주택비용 지원 및 상속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18.1	22.7	33.4	25.7	100.0	(707)	48.6
성별($\chi^2=12.4^*$)							
남성	16.2	22.7	31.3	29.8	100.0	(456)	50.4
여성	21.6	22.8	37.2	18.4	100.0	(251)	45.2
연령($\chi^2=2.1$)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6.5	23.0	33.5	27.0	100.0	(406)	49.4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0.3	22.4	33.3	24.0	100.0	(301)	47.4
거주지($\chi^2=5.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9.4	21.3	32.5	26.8	100.0	(388)	48.4
광역시	18.3	24.0	37.5	20.2	100.0	(144)	47.5
그 외 시도	15.2	24.9	32.0	27.9	100.0	(176)	49.9
취업 여부($\chi^2=4.7$)							
취업	18.2	23.9	32.7	25.2	100.0	(627)	48.1
미취업	17.8	13.6	38.6	30.0	100.0	(80)	52.2
결혼 의향($\chi^2=2.6$)							
있음	17.8	22.4	33.0	26.8	100.0	(608)	49.0
없음	20.1	25.0	35.8	19.1	100.0	(99)	45.8
부모님 경제수준($\chi^2=3.9$)							
상	15.5	24.0	30.9	29.7	100.0	(174)	50.4
중	19.0	22.6	34.3	24.1	100.0	(503)	47.9
하	17.4	17.9	33.3	31.3	100.0	(29)	48.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향후 결혼 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비용을 지원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이미 상속 지원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을 구분해 각각 분석해 본 결과, 남녀 각각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성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아 특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지원 및 상속 비율의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다면 언제 내 집을 소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경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충분할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72.1%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할 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7.9%, ‘아이가 생겼을 때’ 자가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3%였다.

자가 소유의 적절한 시기는 취업 여부와 결혼 의향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할 때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보면, 취업을 한 경우는 18.4%, 미취업인 경우는 15.1%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충분할 때’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취업인 경우는 71.7%, 미취업인 경우는 74.3%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에 따른 차이에서도 취업 여부에서와 같은 경향의 결과를 볼 수 있다.

〈표 4-56〉 내 집 마련(자가 소유)의 적절한 시기

(단위: %, 명)

구분	경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충분할 때	결혼할 때 (무리해서라도)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할 때)	기타	계	(명)
전체	72.1	17.9	9.3	0.7	100.0	(3,002)
성별($\chi^2=1.2$)						
남성	72.0	18.4	9.0	0.6	100.0	(1,708)
여성	72.1	17.3	9.8	0.8	100.0	(1,294)
연령($\chi^2=1.8$)						
평균 초혼 연령 미만	72.7	17.6	9.2	0.6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71.1	18.4	9.6	0.9	100.0	(1,224)

〈표 4-56〉 계속

구분	경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충분할 때	결혼할 때 (무리해서라도)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할 때)	기타	계	(명)
거주지($\chi^2=7.7$)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3.0	16.7	9.8	0.5	100.0	(1,656)
광역시	70.2	19.5	9.6	0.7	100.0	(598)
그 외 시도	71.5	19.4	8.0	1.0	100.0	(748)
취업 여부($\chi^2=8.3^*$)						
취업	71.7	18.4	9.4	0.5	100.0	(2,554)
미취업	74.3	15.1	9.0	1.6	100.0	(448)
결혼 의향($\chi^2=19.5^{***}$)						
있음	70.5	18.7	10.2	0.5	100.0	(2,368)
없음	77.7	14.8	6.3	1.2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3.2$)						
상	70.9	17.3	10.9	0.9	100.0	(329)
중	71.8	18.0	9.5	0.7	100.0	(2,275)
하	74.2	17.9	7.4	0.5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내 집을 자가로 마련할 적절한 시기에 대해 남녀 구분으로 상세히 살펴보면, 미혼 남성은 취업 여부, 결혼 의향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미혼 여성은 거주지와 결혼 의향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거주지에 따라서 남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은 차이가 나타났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할 때 무리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2.4%로 수도권이나 그 외 시도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 여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남성의 경우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비교해 보면, 남성은 ‘결혼할 때 무리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취업을 한 경우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여성은 그 비율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을 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

〈표 4-57〉 미혼 남녀의 내 집 마련(자가 소유)의 적절한 시기

(단위: %, 명)

구분	경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충분할 때	결혼할 때 (무리해서라도)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할 때)	계	(명)
미혼 남성	72.5	18.5	9.1	100.0	(1,697)
연령($\chi^2=0.2$)					
평균 초혼 연령 미만	72.7	18.6	8.8	100.0	(999)
평균 초혼 연령 이상	72.2	18.4	9.5	100.0	(698)
거주지($\chi^2=2.6$)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2.9	18.2	8.9	100.0	(902)
광역시	71.5	17.6	10.9	100.0	(339)
그 외 시도	72.2	19.8	8.0	100.0	(456)
취업 여부($\chi^2=9.2^{**}$)					
취업	71.3	19.7	9.1	100.0	(1,442)
미취업	79.2	11.8	9.0	100.0	(255)
결혼 의향($\chi^2=13.6^{***}$)					
있음	70.6	19.7	9.6	100.0	(1,404)
없음	81.2	12.5	6.3	100.0	(293)
부모님 경제수준($\chi^2=2.5$)					
상	69.7	19.4	10.9	100.0	(174)
중	72.2	18.7	9.1	100.0	(1,304)
하	76.0	16.7	7.3	100.0	(218)
미혼 여성	72.7	17.4	9.9	100.0	(1,284)
연령($\chi^2=1.2$)					
평균 초혼 연령 미만	73.7	16.5	9.8	100.0	(769)
평균 초혼 연령 이상	71.2	18.9	9.9	100.0	(515)
거주지($\chi^2=9.9$)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3.9	15.0	11.1	100.0	(745)
광역시	69.5	22.4	8.2	100.0	(255)
그 외 시도	72.4	19.3	8.2	100.0	(284)
취업 여부($\chi^2=1.2$)					
취업	73.1	17.0	10.0	100.0	(1,098)
미취업	70.5	20.1	9.4	100.0	(186)
결혼 의향($\chi^2=6.6^*$)					
있음	71.4	17.5	11.1	100.0	(951)
없음	76.4	17.1	6.4	100.0	(333)
부모님 경제수준($\chi^2=2.0$)					
상	73.7	15.2	11.1	100.0	(151)
중	72.5	17.4	10.1	100.0	(955)
하	72.9	19.5	7.6	100.0	(17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상황상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미혼 청년들은 내 집 마련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부담 능력이 충분할 때’가 69.2%로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할 때 무리해서라도’ 자가 소유의 집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18.4%의 비율로 나타났고, ‘아이가 생기는 시점’을 내 집 마련 시기로 생각한 비율은 11.5%였다. 조사 대상자 전체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될 때 마련한다는 응답은 조금 적고, 결혼할 때나 아이가 생겼을 때 등 결혼과 출산 등 이행과정 시점을 내 집 마련 시기로 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가 소유의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4-58〉 내 집 마련(자가 소유)의 적절한 시기(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구분	경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충분할 때	결혼할 때 (무리해서라도)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할 때)	기타	계	(명)
전체	69.2	18.4	11.5	0.9	100.0	(1,085)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조사 참여 청년들이 집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면,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1%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44.0%로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외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로 나타나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 준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율은 남성이 높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의 그룹이 이상의 그룹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응답이 높았고, 수도권이나 광역시 이외의 시도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응답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 비율은 취업한 경우 46.4%, 미취업의 경우 37.7%로 차이가 있었다. 결혼 의향에 따른 차이에서는 ‘반드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48.3%, 없는 경우 33.1%로 나타났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는 견해는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가 50.3%, 있는 경우는 42.3%,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가 9.2%, 없는 경우가 16.4%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상’인 그룹에서는 ‘내 집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53.7%) 나타난 반면,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하’인 그룹에서 가장 높은 비율(49.8%)로 나타난 응답은 ‘내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로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는 ‘자가소유의 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율이 53.7%로 높게 나타났고, 낮은 경우는 37.7%로 나타나 경제수준에 따라 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이 매우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꼭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비율은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와 ‘하’인 경우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수성에 대한 견해에서 가장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59〉 내 집 마련(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	꼭 필요하지는 않다	기타	계	(명)
전체	45.1	44.0	10.7	0.2	100.0	(3,002)
성별($\chi^2=12.5^*$)						
남성	47.8	42.1	10.0	0.1	100.0	(1,708)
여성	41.5	46.6	11.6	0.2	100.0	(1,294)
연령($\chi^2=12.7^{**}$)						
평균 초혼 연령 미만	43.5	46.6	9.8	0.2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47.5	40.3	12.1	0.2	100.0	(1,224)
거주지($\chi^2=16.5^*$)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2.7	47.1	10.1	0.2	100.0	(1,656)
광역시	47.3	41.8	11.0	0.0	100.0	(598)
그 외 시도	48.7	39.1	11.9	0.3	100.0	(748)
취업 여부($\chi^2=11.9^{**}$)						
취업	46.4	43.0	10.4	0.2	100.0	(2,554)
미취업	37.7	49.7	12.4	0.2	100.0	(448)
결혼 의향($\chi^2=57.9^{***}$)						
있음	48.3	42.3	9.2	0.1	100.0	(2,368)
없음	33.1	50.3	16.4	0.3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27.9^{***}$)						
상	53.7	33.4	12.6	0.3	100.0	(329)
중	45.2	44.5	10.2	0.1	100.0	(2,275)
하	37.7	49.8	12.0	0.5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내 집 마련에 대한 견해에서 미혼 남성은 연령, 취업 여부, 결혼 의향,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미혼 여성은 결혼 의향과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만 보였다. 남성의 경우는 결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견해가 특히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의향이 있는 남성은 ‘반드시 내 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1.4%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40.5%)’라는 견해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혼 의향이 없는 남성의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견해가 50.0%로 '반드시 내 집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3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결혼 의향에 따라 내 집 마련 견해에 차이가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와 달리 결혼 의향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견해가 45.3%로 '반드시 내 집이 필요하다'는 견해(44.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룹 중 남성은 '반드시 내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으나, 여성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 집 소유에 대한 생각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60〉 미혼 남녀의 내 집 마련(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	꼭 필요하지는 않다	계	(명)
미혼 남성	47.9	42.1	10.0	100.0	(1,706)
연령($\chi^2=10.3^*$)					
평균 초혼 연령 미만	46.3	45.0	8.7	100.0	(1,004)
평균 초혼 연령 이상	50.0	38.0	11.9	100.0	(702)
거주지($\chi^2=8.6$)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4.7	45.2	10.0	100.0	(907)
광역시	52.0	38.5	9.5	100.0	(341)
그 외 시도	51.0	38.6	10.4	100.0	(458)
취업 여부($\chi^2=8.5^*$)					
취업	49.3	41.0	9.7	100.0	(1,448)
미취업	39.6	48.5	11.9	100.0	(258)
결혼 의향($\chi^2=54.7^{***}$)					
있음	51.4	40.5	8.1	100.0	(1,410)
없음	31.1	50.0	19.0	100.0	(296)
부모님 경제수준($\chi^2=16.8^{**}$)					
상	59.8	30.9	9.3	100.0	(176)
중	47.4	43.1	9.6	100.0	(1,311)
하	41.2	45.4	13.4	100.0	(218)

〈표 4-60〉 계속

구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	꼭 필요하지는 않다	계	(명)
미혼 여성	41.6	46.7	11.7	100.0	(1,291)
연령($\chi^2=3.7$)					
평균 초혼 연령 미만	39.9	48.9	11.3	100.0	(771)
평균 초혼 연령 이상	44.3	43.5	12.3	100.0	(520)
거주지($\chi^2=8.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0.3	49.5	10.2	100.0	(746)
광역시	41.0	46.1	12.9	100.0	(257)
그 외 시도	45.5	40.1	14.4	100.0	(288)
취업 여부($\chi^2=3.7$)					
취업	42.7	45.9	11.4	100.0	(1,102)
미취업	35.3	51.5	13.2	100.0	(189)
결혼 의향($\chi^2=9.0^*$)					
있음	44.0	45.3	10.8	100.0	(955)
없음	35.0	50.8	14.2	100.0	(336)
부모님 경제수준($\chi^2=14.0^{**}$)					
상	46.8	36.5	16.6	100.0	(151)
중	42.2	46.6	11.1	100.0	(962)
하	33.9	55.7	10.3	100.0	(17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물리적인 상황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면, 응답자 전체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45.6%가 ‘반드시 내 집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인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7.3%로 전체 응답자의 결과(10.7%)와 비교해 약간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의 비율이 증가해 47.1%로 전체 응답자 결과인 44.0%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경우는 자가 소유 주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전체 결과에서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황 중 주거환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로 인해 결혼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혼인구는 아무래도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있어서 조금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표 4-61〉 내 집 마련(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	꼭 필요하지는 않다	계	(명)
전체	45.6	47.1	7.3	100.0	(1,085)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제3절 소결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일부는 부모님 집이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독립한 주택이기도 했다.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거환경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거나, 격차가 클 수 있지만 신혼집을 얻기 위한 자금이 그래도 조금은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룹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본인 명의인 경우일 것이다. 청년 중 주택 명의를 본인인 경우는 월세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전세, 자가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가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그룹도 미만인 그룹보다 자가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명의가 청년 본인인 경우는 절반 정도는 본인이 주거비용을 마련하였지만, 나머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또는 일부 받은 것을 알 수 있어 청년 스스로

완벽하게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청년 본인의 명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70% 가까이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으며, 수도권 거주와 거주주택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대출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주거비용으로 매달 지불하거나, 대출금이 있어 이자, 또는 상환액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지불 부담은 대부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독립을 하거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은 꼭 신혼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이미 주거환경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비용 부담 경험은 결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마련에 대한 어려운 경험은 자기 혼자 생활하는 공간 마련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신혼집 마련과도 연관되어 있어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재 주거로 인한 부담은 전체 조사 응답자가 느끼는 부담보다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을 못 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 참여자의 경우 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담은 당연히 결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혼 의향이 있음에도 못 하고 있는 그룹은 이러한 주거로 인한 부담과 결혼 사이의 영향이 좀 더 큰 것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관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스스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건상 결혼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것에 가까운 미혼 인구는 여러 상황들이 작용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주거문제가 결혼에 심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영향을 미쳐서 결혼 이행이 더뎠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결혼 지연에도 관련이 있다는 논의는 비교적 많이 되어 왔다. 물론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고비용이 드는 주택 마련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떠한 유형의 집, 또

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집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와 결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만큼 기대하는 신혼집에 대한 조건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아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신혼집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파악하고자 했다. 처음으로 살펴본 신혼집 마련 시 중요한 사항 1순위에서는 주택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이 주택위치, 점유 형태, 거주환경, 주택 유형, 주택상태 및 구성, 교통환경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주택위치, 교통환경 순이고, 주택 유형과 거주환경이 그다음으로 동일한 비율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꼽았다. 주택가격은 매우 중요하지만 구매자 혹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변경이 가능한 주택위치가 신혼집 마련 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신혼집 조건에서는 주택가격이 중요하지만, 각 사항에 대해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교통환경이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요건이고, 주택위치, 거주환경, 주택상태 및 구성이 같은 수준에서 약간 타협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거비용은 각자 가능한 수준이 정해져 있다면, 교통환경과 주택위치, 거주환경 등 주택 자체에 대한 조건보다 주택 주변의 편의 및 환경과 관련된 여건이 신혼집 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가격과 유형, 점유 형태는 오히려 타협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나타나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 시 무엇을 고려하는지 알 수 있다.

희망하는 신혼집에 대한 주택 조건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했으며, 특히 결혼 의향이 있는 여성,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여성, 부모님 경제수준이 높은 여성이 아파트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으나 여성에서 나타난 비율보다는 낮은 비율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 마련 가능한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기는 했으나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비율이 아파트라고 응답한 비율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 아파트를 희망하지만 그중 절반 정도만 희망하는 유형인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 절반은 다른 유형, 그중에서도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가능하다고 응답해 희망과 현실 사이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거 지원 정책 대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그룹인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그룹은 희망과 현실 사이, 특히 아파트 형태에 대한 차이가 전체 그룹보다 조금 더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를 많이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전세가 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은 월세로 자가가 가능한 경우는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이 또한 희망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유 형태에서도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의 미혼인구는 희망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신혼집 마련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인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 1억 6000만 원이 적절하다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약 2억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모두 약간씩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에 따라서도 비용은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수도권 거주 여성은 현실적으로 신혼집 마련에 약 2억 4000만 원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수도권이나 광역시 외 시도에 거주하는 여성은 약 1억 7700만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생각해 거주지역에 따라 예상하는 신혼집에 드는 비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상 결혼 이행을 미루고 있는 그룹은 전체 결과에서보다 전반적으로 신혼집에 대한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과 현실적으로 필요한 비

용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혼집 비용에 대해 대부분 일부 부담하거나 전액 부담할 의향이 높았는데, 전액 부담에 대한 의향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고, 실질적으로 부담하겠다는 금액에 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혼집 마련 시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부담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약 6:4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견해에 대해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차이가 없었다. 신혼집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결과를 통해 최근 남녀가 함께 필요한 것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남성은 신혼집 마련, 여성은 혼수 마련이라는 전통적인 결혼준비 방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신혼집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은 평균 약 1억 원 정도 였는데, 남성은 1억 3700만 원 정도, 여성은 6700만 원 정도였다. 그리고 현재 마련된 금액은 평균 6000만 원 정도이며, 남성은 약 7600만 원, 여성은 약 3700만 원으로 본인이 부담하고자 하는 금액 중 약 절반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은 8300만 원,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미혼 남성 그룹은 1억 800만 원 정도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그룹들은 마련하고자 하는 신혼집이 주택비용이 높은 지역에 있거나, 주택에 대한 기준 또한 그만큼 높기 때문에 준비된 절대적인 금액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의 과반수는 현재 수준으로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지원이나 상속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75%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남성 그룹은 주택비용에 대한 부모님의 지원이나 상속을 기대하는 경우(49.3%)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43.3%)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

우에도 부모님의 상속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는 더욱더 기대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아서 우리 사회의 결혼이 부모님의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만큼 부모세대 부담이 클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신혼집에 대한 희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심하고, 청년 스스로 주거비용을 충분히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 등 결혼과 함께 꿈꾸는 신혼집 마련이라는 것이 다수에게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것에 대해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거나, 내 집을 꼭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거 결혼을 하고 집 장만을 해 나가고 하던 과정들이 현재 청년들에게는 자의에 의해 원치 않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는 타의에 의해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리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혼 의향이 없는 그룹에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결혼 의향이 없어서 내 집에 대한 포기나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내 집을 포기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결혼 의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집에 대한 생각마저도 결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자료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결혼할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작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조사 대상자 전체 결과에서 나타난 비율보다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고, 필요하지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약간 높게 나타나 결혼을 하고자 하는 미혼 청년에 대해서는 이러한 포기가 더 커지지 않도록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5 장

미혼 청년의 주거 지원 정책 관련 인지와 욕구

제1절 주택공급방식 주거 지원 정책 관련 인지와 욕구

제2절 금융 지원 방식 주거 지원 정책 관련 인지와 욕구

제3절 주거 지원 정책과 결혼

제4절 소결

5

미혼 청년의 주거 지원 정책 << 관련 인지와 욕구

미혼인구의 현재 주거 상황이나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 주거를 마련하는 상황 등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주거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주택공급 방식과 금융 지원 방식이다. 그리고 주택공급은 다시 신규주택공급 방식과 기존주택 활용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신규주택공급 방식과 기존주택 활용 방식, 주택자금대출 방식이 현재 대표적인 주거 관련 정책 방식인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 각각의 정책에 대해 인지도, 필요성,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등을 알아보았다.

제1절 주택공급방식 주거 지원 정책 관련 인지와 욕구

1. 신규주택공급

먼저 신규주택공급 방식 중 미혼 청년들이 가장 잘 알 만한 행복주택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74.5%가 알고 있었다. 남정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비율로 알고 있었고,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알고 있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한 경우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주택에 대해 아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 방식 지원 정책)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전체	74.5	25.5	100.0	(3,002)
성별($\chi^2=9.1^{**}$)				
남성	72.4	27.6	100.0	(1,708)
여성	77.3	22.7	100.0	(1,294)
연령($\chi^2=1.0$)				
평균 초혼 연령 미만	75.2	24.8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73.5	26.5	100.0	(1,224)
거주지($\chi^2=33.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8.6	21.4	100.0	(1,656)
광역시	70.6	29.4	100.0	(598)
그 외 시도	68.5	31.5	100.0	(748)
취업 여부($\chi^2=25.2^{***}$)				
취업	76.2	23.8	100.0	(2,554)
미취업	65.0	35.0	100.0	(448)
결혼 의향($\chi^2=3.6$)				
있음	75.3	24.7	100.0	(2,368)
없음	71.6	28.4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2.6$)				
상	77.8	22.2	100.0	(329)
중	74.3	25.7	100.0	(2,275)
하	72.7	27.3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그렇다면, 이러한 신규주택공급 방식 지원 정책이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조사 참여자 중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9.1%,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2%로 ‘필요하다(매우 필요+다소 필요)’고 생각하는 비율이 94.2%로 대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행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그룹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각각 5.8%, 1.8%인데, 미만인 그룹은 그 비율이 3.4%, 0.8%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에 따른 차이를 보면,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행복주택과 같은 신규주택공급 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

율이 60.6%로, 같은 응답에 대해 결혼 의향이 없는 그룹에서 나타난 53.6% 응답률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거주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61.1%, 광역시 거주자는 53.9%, 그 외 시도 거주자는 58.9%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높은 그룹일수록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가 낮았고, ‘다소 필요하다’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 방식 지원 정책)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다소 필요	별로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 하지 않음	계	(명)
전체	59.1	35.2	4.4	1.2	100.0	(3,002)
성별($\chi^2=5.6$)						
남성	57.7	36.2	4.6	1.5	100.0	(1,708)
여성	61.1	34.0	4.1	0.8	100.0	(1,294)
연령($\chi^2=36.6^{***}$)						
평균 초혼 연령 미만	63.3	32.5	3.4	0.8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53.1	39.2	5.8	1.8	100.0	(1,224)
거주지($\chi^2=13.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61.1	33.0	4.5	1.4	100.0	(1,656)
광역시	53.9	40.1	5.0	1.0	100.0	(598)
그 외 시도	58.9	36.4	3.6	1.1	100.0	(748)
취업 여부($\chi^2=1.5$)						
취업	59.5	34.9	4.4	1.2	100.0	(2,554)
미취업	57.1	37.2	4.2	1.5	100.0	(448)
결혼 의향($\chi^2=15.3^{***}$)						
있음	60.6	34.4	4.0	1.0	100.0	(2,368)
없음	53.6	38.4	6.0	2.0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16.1^*$)						
상	54.5	38.8	5.5	1.2	100.0	(329)
중	58.9	35.9	4.1	1.1	100.0	(2,275)
하	64.6	28.2	5.0	2.2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이러한 신규주택공급 방식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이용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2236명 중 이

용해 본 비율은 4.2%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5.5%로 여성의 2.6%보다 높은 비율이 행복주택에 거주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에 따라서는 결혼 의향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높은 이용 경험 비율을 보였다.

〈표 5-3〉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 방식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4.2	95.8	100.0	(2,236)
성별($\chi^2=11.6^{**}$)				
남성	5.5	94.5	100.0	(1,237)
여성	2.6	97.4	100.0	(1,000)
연령($\chi^2=1.1$)				
평균 초혼 연령 미만	4.5	95.5	100.0	(1,336)
평균 초혼 연령 이상	3.7	96.3	100.0	(900)
거주지($\chi^2=0.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3	95.7	100.0	(1,301)
광역시	3.9	96.1	100.0	(422)
그 외 시도	4.1	95.9	100.0	(513)
취업 여부($\chi^2=1.8$)				
취업	4.4	95.6	100.0	(1,945)
미취업	2.8	97.2	100.0	(291)
결혼 의향($\chi^2=5.7^*$)				
있음	4.7	95.3	100.0	(1,783)
없음	2.2	97.8	100.0	(454)
부모님 경제수준($\chi^2=4.8$)				
상	6.7	93.3	100.0	(256)
중	4.0	96.0	100.0	(1,691)
하	3.1	96.9	100.0	(29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 방식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현재까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결혼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 의향은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인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광역시보다는

수도권과 그 외 시도에서 더 높은 비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취업
을 한 경우보다는 미취업인 경우 이용 의향 비율이 높았고, 결혼 의향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행복주택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결혼 시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 방식 지원 정책)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이용 의향 있음	이용 의향 없음	계	(명)
전체	83.3	16.7	100.0	(3,002)
성별($\chi^2=0.1$)				
남성	83.5	16.5	100.0	(1,708)
여성	83.2	16.8	100.0	(1,294)
연령($\chi^2=42.2^{***}$)				
평균 초혼 연령 미만	87.0	13.0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78.0	22.0	100.0	(1,224)
거주지($\chi^2=9.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84.5	15.5	100.0	(1,656)
광역시	79.2	20.8	100.0	(598)
그 외 시도	84.1	15.9	100.0	(748)
취업 여부($\chi^2=5.2^*$)				
취업	82.7	17.3	100.0	(2,554)
미취업	87.0	13.0	100.0	(448)
결혼 의향($\chi^2=5.4^*$)				
있음	84.2	15.8	100.0	(2,368)
없음	80.2	19.8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2.3$)				
상	80.6	19.4	100.0	(329)
중	83.8	16.2	100.0	(2,275)
하	82.9	17.1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규주택공급 방식의 지원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16.7%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전체 500명의 응답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이유는 ‘지원이 필요 없거나, 이미 집이 마련되었거나, 부모님 집에 살 계획 등으로 인해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19.6%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임대 비용이 그리 저렴할 것 같지 않아서’와 ‘경

쟁률이 너무 높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각각 16.8%, 16.6%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서(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서)'라는 이유를 응답한 비율은 11.5%였고, '주택의 규모가 작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10.2%로 나타났다. 그 다음 이유로는 '주택의 위치(입지)가 안 좋을 것 같아서(도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것 같아서)', '주택의 상태나 인테리어, 단지 내 각종 시설 등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웃주민)과 어울리기 싫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월세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주 계획인 지역에 행복주택이 없어서', '자가 소유가 아니라서', '집을 구입할 시기만 늦춰질 것 같아서', '공동 관리비가 비싸서'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기타 의견 중 가장 많은 의견은 '대상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500명 응답자 중 23명이 이 이유를 꼽았다.

남성이 행복주택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지원이 필요 없거나, 이미 집이 마련되었거나, 부모님 집에 살 계획 등으로 인해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21.4%로 가장 높았다.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의 경우 역시 '지원이 필요 없거나, 이미 집이 마련되었거나, 부모님 집에 살 계획 등으로 인해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5.2%로 가장 많았는데, 미만인 그룹에서는 '임대 비용이 그리 저렴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응답한 비율이 1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그 외 시도 거주자의 경우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의 응답이 26.2%로 높았으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18.9%로 높게 나타나는 등 행복주택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에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5〉 결혼 시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 방식 지원 정책) 이용 의향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명)
전체	19.6	11.5	2.0	5.5	10.2	9.2	16.8	16.6	100.0	(500)
성별($\chi^2=16.2$)										
남성	24.3	11.2	2.8	5.9	9.6	9.0	16.3	12.9	100.0	(282)
여성	13.5	11.8	0.9	5.0	11.1	9.5	17.5	21.4	100.0	(218)
연령($\chi^2=16.3$)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3.0	15.3	2.1	5.4	9.7	9.9	18.0	17.1	100.0	(231)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5.2	8.3	1.9	5.6	10.7	8.6	15.8	16.1	100.0	(269)
거주지($\chi^2=27.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7.3	10.7	0.8	4.7	9.6	12.3	15.3	18.9	100.0	(257)
광역시	17.9	10.8	2.4	8.2	9.2	8.4	17.1	16.7	100.0	(124)
그 외 시도	26.2	13.9	4.1	4.5	12.5	3.4	19.7	11.6	100.0	(119)
취업 여부($\chi^2=5.3$)										
취업	20.8	11.4	2.0	5.3	10.2	9.5	16.5	15.9	100.0	(442)
미취업	10.1	12.2	1.7	6.8	10.6	7.2	19.3	21.8	100.0	(58)
결혼 의향($\chi^2=6.8$)										
있음	21.2	12.1	1.6	5.4	9.9	9.3	17.2	15.0	100.0	(375)
없음	14.8	9.7	3.2	5.9	11.1	8.8	15.7	21.4	100.0	(125)
부모님 경제수준($\chi^2=20.4$)										
상	33.1	13.1	1.5	4.9	3.1	6.2	12.4	12.9	100.0	(64)
중	17.8	11.4	2.2	5.2	10.7	10.6	16.4	17.4	100.0	(368)
하	16.3	10.3	1.5	7.6	14.5	4.4	23.4	15.9	100.0	(6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⑥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지원이 필요 없거나, 이미 집이 마련되었거나, 부모님 집에 살 계획 등)

①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서(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②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웃주민)과 어울리기 싫어서

③ 주택의 상태나 인테리어, 단지 내 각종 시설 등이 안 좋을 것 같아서

④ 주택의 규모가 작을 것 같아서

⑤ 주택의 위치(입지)가 안 좋을 것 같아서(도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것 같아서)

⑥ 임대 비용이 그리 저렴할 것 같지 않아서

⑦ 경쟁률이 너무 높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⑧ 기타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2. 기존주택 활용

지금까지 주거 지원의 방식 중 하나인 주택공급에서 신규주택공급을 알아보았다면, 주거공급 지원 중 또 다른 방식인 기존주택을 활용한 지원

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일정 소득 이하의 대학생부터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고르면 정부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월세로 재임대해 주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인지, 필요성, 이용 경험 등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지원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조사 참여 청년 중 51.1%는 알고 있었고, 48.9%는 모른다고 응답해 신규주택공급 방식인 행복주택과 비교해서는 인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6〉 청년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 방식 지원 정책)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전체	51.1	48.9	100.0	(3,002)
성별($\chi^2=16.9^{**}$)				
남성	47.8	52.2	100.0	(1,708)
여성	55.4	44.6	100.0	(1,294)
연령($\chi^2=13.8^{***}$)				
평균 초혼 연령 미만	53.9	46.1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47.0	53.0	100.0	(1,224)
거주지($\chi^2=25.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5.2	44.8	100.0	(1,656)
광역시	47.9	52.1	100.0	(598)
그 외 시도	44.6	55.4	100.0	(748)
취업 여부($\chi^2=24.0^{***}$)				
취업	52.9	47.1	100.0	(2,554)
미취업	40.4	59.6	100.0	(448)
결혼 의향($\chi^2=4.5^{\circ}$)				
있음	52.1	47.9	100.0	(2,368)
없음	47.3	52.7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6.6^{\circ}$)				
상	56.8	43.2	100.0	(329)
중	50.9	49.1	100.0	(2,275)
하	47.4	52.6	100.0	(398)

주: 1) $^{\circ}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특성별 인지 여부에서는 모든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의 그룹이 이상인 그룹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광역시나 그 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취업을 한 경우가 미취업의 경우보다,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보다는 높은 그룹이 청년전세임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청년전세임대 방식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 청년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92.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2%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5-7〉 청년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 방식 지원 정책)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다소 필요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명)
전체	52.0	40.9	5.8	1.3	100.0	(3,002)
성별($\chi^2=21.9^{***}$)						
남성	49.0	42.4	6.9	1.7	100.0	(1,708)
여성	55.9	39.0	4.3	0.8	100.0	(1,294)
연령($\chi^2=44.5^{***}$)						
평균 초혼 연령 미만	56.8	37.2	5.1	0.8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45.0	46.3	6.7	2.0	100.0	(1,224)
거주지($\chi^2=10.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3.7	38.8	6.0	1.5	100.0	(1,656)
광역시	49.8	42.6	6.5	1.0	100.0	(598)
그 외 시도	49.9	44.3	4.7	1.1	100.0	(748)
취업 여부($\chi^2=0.8$)						
취업	52.1	40.7	5.9	1.3	100.0	(2,554)
미취업	51.5	41.9	5.1	1.5	100.0	(448)
결혼 의향($\chi^2=9.5$)						
있음	53.1	40.1	5.8	1.1	100.0	(2,368)
없음	47.9	44.1	5.8	2.2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12.4$)						
상	48.7	42.7	6.7	1.9	100.0	(329)
중	51.4	41.9	5.6	1.1	100.0	(2,275)
하	57.9	34.1	6.1	1.9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특히 성별과 연령, 결혼 의향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매우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인 그룹이 이상인 그룹보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상인 그룹이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미만인 그룹이 이상인 그룹보다 ‘필요하다(매우 필요+다소 필요)’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보다 청년전세임대 등 기존주택활용 방식의 지원 정책에 대해 필요성을 높이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전세임대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1533명 중 6.0%만이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용해 본 경험률이 높았으며,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인 경우가 이상인 경우보다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존주택활용 방식 정책을 이용해 본 경험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인 경우는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였지만, ‘중’이나 ‘하’의 경우에는 5.3%, 5.8%로 나타나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이 이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부모님과 동거 여부를 분석한 결과, 부모님 경제수준이 ‘중’이나 ‘하’인 그룹은 부모님과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보지 않고 현재도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을 이용할 경험도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5-8〉 청년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 방식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6.0	94.0	100.0	(1,533)
성별($\chi^2=6.7^*$)				
남성	7.5	92.5	100.0	(817)
여성	4.3	95.7	100.0	(717)
연령($\chi^2=4.2^*$)				
평균 초혼 연령 미만	6.9	93.1	100.0	(95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4.4	95.6	100.0	(575)
거주지($\chi^2=3.6$)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3	94.7	100.0	(913)
광역시	8.2	91.8	100.0	(286)
그 외 시도	5.8	94.2	100.0	(334)
취업 여부($\chi^2=0.0$)				
취업	5.9	94.1	100.0	(1,352)
미취업	6.2	93.8	100.0	(181)
결혼 의향($\chi^2=4.7^*$)				
있음	6.6	93.4	100.0	(1,233)
없음	3.3	96.7	100.0	(300)
부모님 경제수준($\chi^2=6.6^*$)				
상	10.0	90.0	100.0	(187)
중	5.3	94.7	100.0	(1,158)
하	5.8	94.2	100.0	(189)

주: 1) $^*p < .05$, $^{**}p < .01$,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청년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 방식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기존주택활용 지원 방식은 청년, 신혼부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미혼인 경우 주로 청년전세임대를 이용하게 되고,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전세임대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하게 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참여자의 약 80%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이러한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인 경우에 84.2%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의 그룹에서 73.6%의 이용 의향 의사를 보인 것에 비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을 한 경우보다는 취업을 하

지 않은 경우와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결혼 시 신혼 부부 전세임대 지원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더욱 많은 경향이 있었다.

〈표 5-9〉 결혼 시 신혼부부 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 방식 지원 정책)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이용 의향 있음	이용 의향 없음	계	(명)
전체	79.9	20.1	100.0	(3,002)
성별($\chi^2=2.6$)				
남성	78.9	21.1	100.0	(1,708)
여성	81.2	18.8	100.0	(1,294)
연령($\chi^2=51.9^{***}$)				
평균 초혼 연령 미만	84.2	15.8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73.6	26.4	100.0	(1,224)
거주지($\chi^2=5.9$)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81.0	19.0	100.0	(1,656)
광역시	76.4	23.6	100.0	(598)
그 외 시도	80.1	19.9	100.0	(748)
취업 여부($\chi^2=6.0^*$)				
취업	79.1	20.9	100.0	(2,554)
미취업	84.2	15.8	100.0	(448)
결혼 의향($\chi^2=6.8^{**}$)				
있음	80.9	19.1	100.0	(2,368)
없음	76.2	23.8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5.8$)				
상	74.9	25.1	100.0	(329)
중	80.4	19.6	100.0	(2,275)
하	81.3	18.7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았다. 이용 의향 없는 604명 중 24.6%가 이유로 꼽은 것은 ‘주택상태나 위치가 좋지 않은 주택만 가능할 것 같아서’의 이유였다. 그다음 21.4%가 응답한 이용 의향 없는 이유는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로 나타나, 이용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응답자를 제외한다면 주택상태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인이 거부하게 되면 또 다른 집을 찾아야 해서 번거로울 것 같아서’ 18.4%, ‘임대 비용이 그리 저렴할 것 같지 않아서’ 17.4%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집에 문제가 있을 때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있었다. 나머지 기타 의견 8.1% 중에는 앞서 신규주택공급 방식인 행복주택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가 49명 중 27명으로 가장 많은 기타 의견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의 이유도 역시 행복주택에서 기타 의견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월세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8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자가 소유가 아니라서’, ‘인식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메리트가 없어서’, ‘행정 절차가 어려워’, ‘규모가 작아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정책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성별과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26.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여성은 ‘주택상태나 위치가 좋지 않은 주택만 가능할 것 같아서’를 선택한 경우가 31.8%로 매우 높았다. 남성도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를 제외하고는 ‘주택상태나 위치가 좋지 않은 주택만 가능할 것 같아서’의 응답 비율이 19.8%를 차지하기는 했다. 그다음 순위는 남성은 ‘임대 비용이 그리 저렴할 것 같지 않아서’ 18.3%였고, 여성은 ‘주인이 거부하게 되면 또 다른 집을 찾아야 해서 번거로울 것 같아서’가 22.3%로 여성의 응답은 한두 가지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취업, 미취업의 경우 모두 ‘주택상태나 위치가 좋지 않은 주택만 가능할 것 같아서’에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지만, 미취업의 경우는 36.3%, 취업의 경우는 23.0%로 차이를 보였다.

〈표 5-10〉 결혼 시 신혼부부 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 방식 지원 정책) 이용 의향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명)
전체	21.4	17.4	18.4	10.0	24.6	8.1	100.0 (604)
성별($\chi^2=24.8^{***}$)							
남성	26.3	18.3	15.8	10.2	19.8	9.6	100.0 (361)
여성	14.1	16.0	22.3	9.8	31.8	6.0	100.0 (243)
연령($\chi^2=3.0$)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9.4	17.9	17.3	11.3	26.3	7.9	100.0 (280)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3.2	17.0	19.4	8.9	23.2	8.4	100.0 (324)
거주지($\chi^2=13.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7.9	18.9	18.2	9.2	26.1	9.8	100.0 (314)
광역시	22.6	17.3	19.4	7.8	25.5	7.5	100.0 (141)
그 외 시도	27.8	14.4	18.0	13.9	20.6	5.3	100.0 (149)
취업 여부($\chi^2=13.3$)							
취업	22.5	17.3	19.6	9.3	23.0	8.3	100.0 (533)
미취업	13.2	18.0	9.9	15.6	36.3	7.0	100.0 (71)
결혼 의향($\chi^2=9.6$)							
있음	22.5	17.1	20.2	8.4	23.4	8.4	100.0 (453)
없음	18.1	18.4	13.2	14.8	28.1	7.3	100.0 (151)
부모님 경제수준($\chi^2=9.2$)							
상	30.6	17.9	15.8	7.3	19.7	8.7	100.0 (82)
중	20.2	16.7	20.0	9.9	25.1	8.0	100.0 (447)
하	18.7	20.8	12.0	13.6	26.8	8.1	100.0 (74)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⑥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지원이 필요 없거나, 이미 집이 마련되었거나, 부모님 집에 살 계획 등)

① 임대 비용이 그리 저렴할 것 같지 않아서

② 주인이 거부하게 되면 또 다른 집을 찾아야 해서 번거로울 것 같아서

③ 집에 문제가 있을 때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아서

④ 주택상태나 위치가 좋지 않은 주택만 가능할 것 같아서

⑤ 기타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제2절 금융 지원 방식 주거 지원 정책 관련 인지와 욕구

정부의 주거 지원 방식 중 주택공급 방식 이외의 지원 방식인 금융 지원 방식에 대한 인지와 생각을 알아보았다. 주택자금대출 방식의 지원 정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

으로 월세, 전세, 구입비용 등에 대해 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74.5%, 모르는 경우는 25.5%로 나타났다.

〈표 5-11〉 주택자금대출 방식 지원 정책(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명)
전체	74.5	25.5	100.0	(3,002)
성별($\chi^2=10.4^*$)				
남성	72.2	27.8	100.0	(1,708)
여성	77.4	22.6	100.0	(1,294)
연령($\chi^2=0.1$)				
평균 초혼 연령 미만	74.3	25.7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74.7	25.3	100.0	(1,224)
거주지($\chi^2=20.9^{**}$)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7.4	22.6	100.0	(1,656)
광역시	73.4	26.6	100.0	(598)
그 외 시도	68.8	31.2	100.0	(748)
취업 여부($\chi^2=68.6^{***}$)				
취업	77.2	22.8	100.0	(2,554)
미취업	58.8	41.2	100.0	(448)
결혼 의향($\chi^2=16.2^{**}$)				
있음	76.1	23.9	100.0	(2,368)
없음	68.3	31.7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0.6$)				
상	74.9	25.1	100.0	(329)
중	74.7	25.3	100.0	(2,275)
하	72.8	27.2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남성보다 여성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거주지 별로 보면, 알고 있는 경우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77.4%, 광역시의 경우 73.4%, 그 외 시도의 경우는 68.8%로 수도권 거주인 경우가 이러한 대출 지원 방식의 정책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로 알고 있었다. 또한 취업

여부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방식의 인지도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취업한 경우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7.2%인 데 반해, 미취업의 경우는 58.8%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에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76.1%로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 68.3%의 인지와 비교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대출 방식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61.9%가 ‘매우 필요’, 32.7%가 ‘다소 필요’에 응답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6%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자금대출 방식의 지원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가 여성은 66.6%, 남성은 58.4%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64.6%로 광역시 59.5%와 그 외 시도 57.9%보다 높았고, ‘다소 필요하다’는 응답은 수도권은 30.9%, 광역시와 그 외 시도는 각각 33.6%와 35.8%로 수도권이 낮게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음+전혀 필요하지 않음)’는 응답을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4.4%, 광역시는 7.0%, 그 외 시도는 6.3%로 대출 지원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 보면, 취업한 경우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미취업은 52.4%였고, ‘다소 필요하다’의 경우는 취업 그룹이 31.3%, 미취업 그룹이 40.6%로 취업한 경우 이러한 정책 방식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대출 방식 지원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는 비율이 높았고,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별로 필요하지 않음’과 ‘전혀 필요하지 않음’의 비율이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전반적으로 보면, 부모님의 경제수준 상, 중, 하 그룹 모두 주택자금대출 방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는 있지만,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매우 필요하

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고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다소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표 5-12〉 주택자금대출 방식 지원 정책(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다소 필요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명)
전체	61.9	32.7	4.5	0.9	100.0	(3,002)
성별($\chi^2=34.6^{***}$)						
남성	58.4	34.4	5.9	1.3	100.0	(1,708)
여성	66.6	30.3	2.7	0.4	100.0	(1,294)
연령($\chi^2=7.0$)						
평균 초혼 연령 미만	63.6	31.6	4.0	0.7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59.5	34.2	5.3	1.1	100.0	(1,224)
거주지($\chi^2=16.6^*$)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64.6	30.9	3.6	0.8	100.0	(1,656)
광역시	59.5	33.6	5.8	1.2	100.0	(598)
그 외 시도	57.9	35.8	5.6	0.7	100.0	(748)
취업 여부($\chi^2=23.7^{***}$)						
취업	63.6	31.3	4.4	0.7	100.0	(2,554)
미취업	52.4	40.6	5.3	1.7	100.0	(448)
결혼 의향($\chi^2=32.3^{***}$)						
있음	64.1	31.5	3.7	0.7	100.0	(2,368)
없음	53.9	37.1	7.6	1.4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19.1^{**}$)						
상	55.7	38.8	5.2	0.3	100.0	(329)
중	62.4	32.4	4.5	0.7	100.0	(2,275)
하	64.3	29.0	4.5	2.2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자금대출 방식의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74.5%의 응답자에게 이용 경험을 알아보았다. 응답자 2236명 중 12.7%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정책 방식과 비교해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을 한 경우(13.4%)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6.8%)보다 이러한 지

원 정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상환할 능력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 지원 정책 이용에 있어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이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은 20.7%, 높은 그룹은 14.8%, 중간인 그룹은 11.0%로 차이를 보였다.

〈표 5-13〉 주택자금대출 방식 지원 정책(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12.7	87.3	100.0	(2,236)
성별($\chi^2=3.1$)				
남성	13.8	86.2	100.0	(1,234)
여성	11.3	88.7	100.0	(1,002)
연령($\chi^2=0.1$)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2.4	87.6	100.0	(1,321)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2.9	87.1	100.0	(914)
거주지($\chi^2=2.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3.5	86.5	100.0	(1,282)
광역시	11.5	88.5	100.0	(439)
그 외 시도	11.5	88.5	100.0	(514)
취업 여부($\chi^2=9.1^{**}$)				
취업	13.4	86.6	100.0	(1,972)
미취업	6.8	93.2	100.0	(263)
결혼 의향($\chi^2=3.0$)				
있음	13.3	86.7	100.0	(1,803)
없음	10.1	89.9	100.0	(433)
부모님 경제수준($\chi^2=22.3^{***}$)				
상	14.8	85.2	100.0	(246)
중	11.0	89.0	100.0	(1,699)
하	20.7	79.3	100.0	(29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청년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 방식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다른 방식의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주택자금대출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86.4%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 보다는 있는 경우, 그리고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의 그룹이 이상의 그룹보다 주택자금대출 방식 정책에 대해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역시나 그 외 시도 경우보다는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결혼 시 주택자금대출 방식 정책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4〉 결혼 시 주택자금대출 방식 지원 정책(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이용 의향 있음	이용 의향 없음	계	(명)
전체	86.4	13.6	100.0	(3,002)
성별($\chi^2=24.3^{**}$)				
남성	83.7	16.3	100.0	(1,708)
여성	89.9	10.1	100.0	(1,294)
연령($\chi^2=20.9^{***}$)				
평균 초혼 연령 미만	88.8	11.2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83.0	17.0	100.0	(1,224)
거주지($\chi^2=7.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87.9	12.1	100.0	(1,656)
광역시	84.2	15.8	100.0	(598)
그 외 시도	84.9	15.1	100.0	(748)
취업 여부($\chi^2=0.0$)				
취업	86.4	13.6	100.0	(2,554)
미취업	86.5	13.5	100.0	(448)
결혼 의향($\chi^2=18.4^{***}$)				
있음	87.8	12.2	100.0	(2,368)
없음	81.2	18.8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2.9$)				
상	83.4	16.6	100.0	(329)
중	86.6	13.4	100.0	(2,275)
하	87.6	12.4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주택자금대출 방식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13.6%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대출/용자 등 은행으로부터 빌리기 싫어

서(빚지고 사는 게 싫어서)'라는 응답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이유가 20.4%였고, 15.3%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서(대출받을 형편이 안 되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대출받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11.4%로 나타났고, 그 이외에는 '대출 상품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연소득, 주택 면적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대출해 주는 금액이 적어서',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서', '회사 혹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등의 순의 이유가 있었다. 기타에서는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이라서', '대출 정책이 좋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의 그룹은 '대출/용자 등 은행으로부터 빌리기 싫어서(빚지고 사는 게 싫어서)'가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인 데 반해, 이상의 그룹에서는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24.7%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대출 상품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연소득, 주택 면적 등)'라는 이유가 수도권이 광역시나 그 외 시도와 비교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회사 혹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수도권이나 그 외 시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 시도의 경우에는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과 미취업 그룹 모두 '대출/용자 등 은행으로부터 빌리기 싫어서(빚지고 사는 게 싫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이었으나, 그다음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이 취업 그룹에서는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인 데 반해, 미취업 그룹에서는 '대출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서(대출받을 형편이 안 돼서)'로 나타나 대출이자 감당의 조건에 취업 여부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혼 의향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

룹 모두 역시 ‘대출/융자 등 은행으로부터 빌리기 싫어서(빚지고 사는 게 싫어서)’에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하지만 결혼 의향이 있는 그룹은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22.1%로 그다음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인 데 반해, 결혼 의향이 없는 그룹에서는 ‘대출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서(대출받을 형편이 안 돼서)’라는 응답이 19.3%로 나타나 경제적인 능력과 결혼 의향의 관계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수준에 속하는 그룹은 ‘대출/융자 등 은행으로부터 빌리기 싫어서(빚지고 사는 게 싫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이었으나,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지원이 필요 없거나, 이미 집이 마련되었거나, 부모님 집에 살 계획 등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이었다. 또한 ‘대출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부모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은 14.5%인 데 반해, 낮은 그룹은 7.9%로 나타났고,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서’라는 응답에 대해서도 부모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은 9.6%였으나, 낮은 그룹은 0.0%로 전혀 부모님의 도움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 드러났다.

〈표 5-15〉 결혼 시 주택자금대출 방식 지원 정책(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 의향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명)	
전체	20.4	11.4	3.6	2.3	15.3	27.0	8.6	3.9	6.3	1.0	100.0	(408)
성별($\chi^2=11.8$)												
남성	22.4	11.8	3.3	2.3	17.7	23.2	7.7	4.0	6.6	0.8	100.0	(278)
여성	16.1	10.7	4.1	2.3	10.3	35.0	10.5	3.8	5.7	1.5	100.0	(130)
연령($\chi^2=17.2$)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6.0	13.4	4.8	2.5	17.5	30.3	7.5	1.5	5.9	0.5	100.0	(200)
평균 초혼 연령 이상	24.7	9.6	2.4	2.1	13.2	23.8	9.6	6.2	6.7	1.6	100.0	(209)

〈표 5-15〉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명)
거주지($\chi^2=29.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8.6	11.5	3.5	1.0	18.3	27.0	11.3	3.4	4.4	1.0	100.0 (201)
광역시	19.7	13.9	2.1	6.5	10.4	23.6	4.6	5.3	11.5	2.4	100.0 (95)
그 외 시도	24.4	9.3	5.0	1.1	14.2	29.8	7.1	3.6	5.4	0.0	100.0 (113)
취업 여부($\chi^2=19.5^*$)											
취업	22.3	11.4	3.9	2.7	13.1	25.3	9.6	4.3	6.3	0.9	100.0 (348)
미취업	9.7	11.4	1.6	0.0	27.9	36.6	3.1	1.6	6.4	1.6	100.0 (61)
결혼 의향($\chi^2=20.8^*$)											
있음	22.1	11.7	4.7	3.3	13.7	26.0	8.4	4.5	4.1	1.5	100.0 (289)
없음	16.5	10.8	0.8	0.0	19.3	29.3	9.1	2.5	11.7	0.0	100.0 (119)
부모님 경제수준($\chi^2=27.3^*$)											
상	27.4	14.5	9.6	2.4	9.3	25.7	9.4	0.0	0.0	1.8	100.0 (54)
중	20.3	11.5	3.1	2.7	15.3	25.8	8.9	4.9	6.5	1.1	100.0 (305)
하	13.8	7.9	0.0	0.0	22.0	36.1	6.1	1.9	12.2	0.0	100.0 (4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①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지원이 필요 없거나, 이미 집이 마련되었거나, 부모님 집에 살 계획 등)

② 대출받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서

③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서

④ 회사 혹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서

⑤ 대출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서(대출받을 형편이 안 되어서)

⑥ 대출/용자 등 은행으로부터 빌리기 싫어서(빚지고 사는 게 싫어서)

⑦ 대출 상품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연소득, 주택 면적 등)

⑧ 대출해 주는 금액이 적어서 ⑧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⑨ 기타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지금까지 주거 지원 정책 방식인 신규주택공급, 기존주택활용 지원, 자금대출 방식 지원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혼과 관련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 인지도, 필요성, 이용 경험 등에 대해 전체적인 비율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절대적인 비율에 대한 비교가 상대적인 중요성을 보여 주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주거 정책 유형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정책의 인지도에 있어서는 기존주택활용 방식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을 보

면, 기존주택활용 방식인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주택자금대출 방식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소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신규주택공급과 주택자금대출 방식보다 기존주택활용 방식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 결국 ‘필요하다(매우 필요+다소 필요)’는 입장으로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지원 방식 모두 필요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지원 정책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이용 경험을 확인해 보면, 주택자금대출 방식의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지만, 일단 알고 있는 청년들은 신규주택공급 방식보다 이용하는 비율이 약간 높다. 마지막으로, 이용 의향은 역시 주택자금대출 방식이 비율상 가장 높기는 하지만, 다른 두 방식의 정책 또한 높은 수준의 이용 의향을 보이고 있다.

〈표 5-16〉 주거 지원 정책 인지, 필요성, 이용 경험 및 이용 의향 비교

(단위: %, 명)

구분		행복주택 (신규주택공급 방식)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존주택활용 방식)	주택자금대출 방식 (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책 인지	알고 있음	74.5	51.1	74.5
	모름	25.5	48.9	25.5
정책 필요성	매우 필요	59.1	52.0	61.9
	다소 필요	35.2	40.9	32.7
	별로 필요하지 않음	4.4	5.8	4.5
	전혀 필요하지 않음	1.2	1.3	0.9
정책 이용 경험	있음	4.2	6.0	12.7
	없음	95.8	94.0	87.3
정책 이용 의향	있음	83.3	79.9	86.4
	없음	16.7	20.1	13.6

주: ‘정책 이용 경험’의 응답은 ‘정책 인지’에서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2236명,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533명, 주택자금대출 방식은 2236명의 응답에 대한 비율이고, 그 외 비율은 모두 3002명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결혼하고자 하지만 상황상 못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필요성, 이용 경험 및 이용 의향을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자 전체의 결과와 경향성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의 필요성에 있어서 모든 정책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을 이용할 의향 또한 전체에서의 결과보다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자금대출 방식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이 90.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주택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 전체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50.0%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한 이용 의향은 84.4%로 미혼 전체의 79.9%보다 약간 높은 비율이 결혼 시 이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표 5-17〉 주거 지원 정책 인지, 필요성, 이용 경험 및 이용 의향 비교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구분		행복주택 (신규주택공급 방식)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존주택활용 방식)	주택자금대출 방식 (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책 인지	알고 있음	76.7	52.5	78.1
	모름	23.3	47.5	29.1
정책 필요성	매우 필요	65.3	57.3	69.7
	다소 필요	30.2	36.2	27.0
	별로 필요하지 않음	3.8	5.4	2.7
	전혀 필요하지 않음	0.7	1.1	0.6
정책 이용 경험	있음	4.0	6.5	12.7
	없음	96.0	93.5	87.3
정책 이용 의향	있음	86.5	84.4	90.5
	없음	13.5	15.6	9.5

주: ‘정책 이용 경험’의 응답은 ‘정책 인지’에서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833명,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는 570명, 주택자금대출 방식은 848명의 응답에 대한 비율이고, 그 외 비율은 모두 1085명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제3절 주거 지원 정책과 결혼

주거 지원 정책을 두 방식으로 구분해 보면, 결국 자금대출과 주택공급 방식이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결국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 유형을 알아본 결과, 대출 지원 방식은 46.5%, 주택공급 방식은 51.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결혼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주택공급 방식을 약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중 1.7%에 해당하는 기타 의견으로는 결혼에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 정책은 ‘없다’라는 응답 13명과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9명, ‘둘 다 필요하다’ 7명으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는 ‘자격 요건 확대 필요’, ‘대출 규제 철폐’, ‘무상임대’, ‘공공주택 일반분양’, ‘분양 가점제 폐지’, ‘임대주택 불법 거주 단속’, ‘다주택 보유자 규제’, ‘부동산 개혁’, ‘물가 안정화’, ‘급여 인상’, ‘기득권 세력 약화’, ‘근본적인 해결 필요’ 등으로 나머지 기타 제안에서도 상세한 내용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자금대출 지원이 결혼에 도움이 되는 지원 유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9%로 남성 4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자금대출 지원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취업을 한 그룹은 47.8%, 미취업 그룹은 39.2%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선호 유형이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주택 마련 및 전월세금 대출 등 자금대출 지원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은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 방식이 주택공급 방식 43.7%, 자금대출 지원 방식 55.4%로 모든 그룹 중 유일하게 대출 지원 방식이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어 부모님의 경제수준에 따라 결혼에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8〉 주거 지원 정책 중 청년들의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 유형

(단위: %, 명)

구분	주택 마련 및 전세/월세금 대출 등 자금대출 지원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	기타	계	(명)
전체	46.5	51.8	1.7	100.0	(3,002)
성별($\chi^2=8.5$)					
남성	45.5	52.2	2.2	100.0	(1,708)
여성	47.9	51.2	0.9	100.0	(1,294)
연령($\chi^2=2.4$)					
평균 초혼 연령 미만	45.6	52.9	1.5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47.9	50.2	1.9	100.0	(1,224)
거주지($\chi^2=3.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6.7	51.5	1.7	100.0	(1,656)
광역시	48.9	49.4	1.8	100.0	(598)
그 외 시도	44.3	54.2	1.4	100.0	(748)
취업 여부($\chi^2=14.8^{**}$)					
취업	47.8	50.4	1.8	100.0	(2,554)
미취업	39.2	59.9	0.9	100.0	(448)
결혼 의향($\chi^2=22.4^{***}$)					
있음	48.7	49.9	1.4	100.0	(2,368)
없음	38.6	58.9	2.5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14.7^{**}$)					
상	55.4	43.7	0.9	100.0	(329)
중	46.1	52.3	1.7	100.0	(2,275)
하	42.0	55.8	2.2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결혼 의향이 있지만 상황에 의해 결혼으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경우, 주거 지원 정책 중 어떤 유형이 결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면, 자금대출 지원 방식이 47.2%, 주택공급 방식이 50.8%로 나타나 조사 응답자 전체의 결과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성

별, 거주지, 부모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주거 관련 지원방식이 다양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방식의 도움이 모두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그룹에든 모두 중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을 보면 52.5%가 대출 지원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에 대한 기준이나 기대하는 수준이 경제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표 5-19〉 주거 지원 정책 중 청년들의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 유형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구분	주택 마련 및 전세/월세금 대출 등 자금대출 지원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	기타	계	(명)
전체	47.2	50.8	2.0	100.0	(1,085)
성별($\chi^2=4.0$)					
남성	45.2	52.9	2.0	100.0	(730)
여성	51.5	46.6	1.9	100.0	(355)
거주지($\chi^2=6.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6.7	51.5	1.8	100.0	(608)
광역시	50.1	46.2	3.7	100.0	(232)
그 외 시도	45.7	53.5	0.8	100.0	(245)
부모님 경제수준($\chi^2=2.9$)					
상	52.5	45.6	1.9	100.0	(101)
중	47.3	50.6	2.1	100.0	(825)
하	43.3	55.5	1.3	100.0	(15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다음으로는 최근 신혼부부 특화 단지와 같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만 모여 사는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청년만을 위한 특화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74.6%가 금

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의 그룹에서 80.0%가, 이상의 그룹에서는 68.8%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청년 특화 단지인 만큼 아직 비교적 연령이 낮은 그룹에서는 상대 그룹보다는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을 한 경우(73.6%)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80.6%)가 이용 의향이 높았다.

〈표 5-20〉 청년들이 모여 사는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면 이용할 의향

(단위: %, 명)

구분	이용 의향 있음	이용 의향 없음	계	(명)
전체	74.6	25.4	100.0	(3,002)
성별($\chi^2=0.2$)				
남성	74.3	25.7	100.0	(1,708)
여성	75.0	25.0	100.0	(1,294)
연령($\chi^2=66.2^{***}$)				
평균 초혼 연령 미만	80.0	20.0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66.8	33.2	100.0	(1,224)
거주지($\chi^2=3.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5.0	25.0	100.0	(1,656)
광역시	72.0	28.0	100.0	(598)
그 외 시도	75.8	24.2	100.0	(748)
취업 여부($\chi^2=9.9^{**}$)				
취업	73.6	26.4	100.0	(2,554)
미취업	80.6	19.4	100.0	(448)
결혼 의향($\chi^2=1.3$)				
있음	74.1	25.9	100.0	(2,368)
없음	76.3	23.7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2.6$)				
상	71.6	28.4	100.0	(329)
중	74.7	25.3	100.0	(2,275)
하	76.8	23.2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실제로 조성 중인 신혼부부 특화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청년 특화 단지보다 이용 의향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81.9%가 신혼부

부 특화 주거단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특화 단지에 대해서는 연령과 결혼 의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인 그룹은 84.8%, 이상인 그룹은 77.7%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당연히 결혼 의향이 없는 그룹(76.7%)이 결혼 의향이 있는 그룹(83.3%)보다 이용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신혼부부가 모여 사는 신혼부부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면 이용할 의향

(단위: %, 명)

구분	이용 의향 있음	이용 의향 없음	계	(명)
전체	81.9	18.1	100.0	(3,002)
성별($\chi^2=0.1$)				
남성	81.8	18.2	100.0	(1,708)
여성	82.1	17.9	100.0	(1,294)
연령($\chi^2=24.8^{***}$)				
평균 초혼 연령 미만	84.8	15.2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77.7	22.3	100.0	(1,224)
거주지($\chi^2=4.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82.7	17.3	100.0	(1,656)
광역시	79.0	21.0	100.0	(598)
그 외 시도	82.4	17.6	100.0	(748)
취업 여부($\chi^2=0.3$)				
취업	82.1	17.9	100.0	(2,554)
미취업	81.1	18.9	100.0	(448)
결혼 의향($\chi^2=15.0^{***}$)				
있음	83.3	16.7	100.0	(2,368)
없음	76.7	23.3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5.0$)				
상	77.5	22.5	100.0	(329)
중	82.5	17.5	100.0	(2,275)
하	82.1	17.9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문제와 그 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청년들이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혹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약간 도움이 된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각각 50.2%와 26.6%로 76.8%가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표 5-22〉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청년들 결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되지 않음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	(명)
전체	5.0	18.1	50.2	26.6	100.0	(3,002)
성별($\chi^2=7.5$)						
남성	5.4	17.5	48.9	28.2	100.0	(1,708)
여성	4.4	19.0	52.0	24.5	100.0	(1,294)
연령($\chi^2=15.3^{**}$)						
평균 초혼 연령 미만	4.4	16.7	50.3	28.6	100.0	(1,778)
평균 초혼 연령 이상	5.9	20.3	50.1	23.7	100.0	(1,224)
거주지($\chi^2=15.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4	16.5	50.3	27.8	100.0	(1,656)
광역시	5.2	22.6	49.3	22.9	100.0	(598)
그 외 시도	3.9	18.3	50.8	27.0	100.0	(748)
취업 여부($\chi^2=10.3$)						
취업	5.1	18.3	49.1	27.5	100.0	(2,554)
미취업	4.0	17.4	56.9	21.8	100.0	(448)
결혼 의향($\chi^2=50.6^{***}$)						
있음	4.4	16.4	50.2	29.0	100.0	(2,368)
없음	7.1	24.7	50.5	17.7	100.0	(634)
부모님 경제수준($\chi^2=10.8$)						
상	6.0	16.3	48.1	29.6	100.0	(329)
중	4.7	18.4	51.5	25.4	100.0	(2,275)
하	5.5	18.4	44.9	31.3	100.0	(39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의 그룹은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28.6%인데, 이상의 그룹은 23.7%로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광역시가 수도권이나 그 외 시도와 약간 다른 의견을 보였다. 광역시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22.9%로 수도권 27.8%와 그 외 시도 27.0%와

비교해 낮은 비율을 보였고, 대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수도권 16.5%와 그 외 시도 18.3%보다 높은 비율인 22.6%로 나타나 광역시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각각 5.4%, 5.2%로 비슷한 반면, 그 외 시도는 3.9%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주거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결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그룹은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29.9%로 높았지만, 결혼 의향이 없는 그룹은 17.7%로 낮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결혼 의향이 없는 그룹도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된다(약간 도움됨 + 매우 도움됨)’는 응답이 68.2%로 나타나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 이행을 돕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을 시사한다.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응답자의 경우,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청년의 결혼에 ‘매우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1.8%, ‘약간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0.3%로 80.0%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은 조사 참여자 전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 도움된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렇게 결혼을 원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 도움이 결혼 이행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매우 도움된다는 비율이 39.6%로 높은 것은 주거 지원이 단지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주거 지원 방식에 대한 결과 중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은 금융 지원을 더욱 선호했던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수준이 높으면 구하고자 하는 집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집이라는 것이 소규모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활

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수에게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주거 지원이라는 것은 다른 지원들과는 달리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각 그룹이 말하는 도움은 각기 다른 지원 방식의 도움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23〉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청년들 결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되지 않음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	(명)
전체	4.1	13.8	50.3	31.8	100.0	(1,085)
성별($\chi^2=2.7$)						
남성	4.4	14.6	48.9	32.0	100.0	(730)
여성	3.3	12.2	53.2	31.3	100.0	(355)
거주지($\chi^2=9.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2	12.9	50.4	31.6	100.0	(608)
광역시	4.0	16.7	49.7	29.6	100.0	(232)
그 외 시도	1.3	13.6	50.7	34.4	100.0	(245)
부모님 경제수준($\chi^2=9.0$)						
상	4.9	7.2	48.3	39.6	100.0	(101)
중	4.0	14.4	51.6	30.0	100.0	(825)
하	3.8	15.3	44.9	36.1	100.0	(15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마지막으로 결혼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주거 관련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각자가 생각하는 내용을 직접 기입 방식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몇 명이 언급했는지 보고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전체 조사 대상자 3002명 중 이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은 129명,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59명으로 구체적인 응답을 한 청년은 2714명이었다.

우선 ‘부동산 가격안정’을 응답한 청년은 506명, ‘부동산 가격 인하’라고 응답한 청년은 270명이었다. 이 두 응답을 더하면 ‘부동산 안정’이 가

장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부가 해야 할 주거 정책이었다. 이 외에도 ‘전월세 가격 인하’(61명), ‘부동산 투기 억제’(56명)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횟수는 1018번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 765건과 주택공급에 있어서의 환경이나 공급 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은 102건 등으로 임대주택과 같은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제안 내용이 867건이었다.

그리고 ‘저금리 대출’이 274명, ‘무이자 대출’ 24명으로 저리의 대출이 많은 응답을 보였다. 자금지원과 그에 대한 이자가 낮아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대출 조건의 완화 등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총 838건으로 자금지원 및 대출 조건 수정 등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다.

주택공급이나 자금지원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원 조건에 대한 내용도 많았다. 나이 제한이나 소득 제한에 대한 완화와 지원 방법에 있어서의 다양화 및 지원 대상의 폭 확대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정책 추진, 일관성 및 신뢰감 있는 정책 추진, 적극적으로 과감한 지원, 현실적인 정책 마련 등 정책 추진에 있어서 현실을 반영한 일관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등 정책 추진 방법에 대한 의견이 105건에 달했다. 그 외에 정책에 대한 홍보, 인식 개선 등이 있었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주택 문제만이 아니다’와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로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소수이지만 있었다.

본 질문은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한 청년들은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내용이 201건이나 있었다. 그 외에도 저출산 현상 전반에 관련된 보육 및 육아환경 개선, 육아휴직 등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어 청년들이 매우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절 소결

현재 주거 지원 방식인 주택공급과 금융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면,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이 대부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행복주택과 같은 신규주택공급 방식은 잘 알고 있는 반면, 전세임대와 같이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은 반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택자금대출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용 경험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한 견해에서도 모든 방식이 골고루 높게 나타나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 연구에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 프로그램 모두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방향을 함께하는 결과이다(박미선, 2017a). 즉, 두 방식에 대해 필요한 대상이 각각 있기 때문에 모두 중요한 주거 지원 방식이고 각각의 제도 이용에 있어서 편이점이나 애로점을 알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미혼인구의 경우는 정책 방식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결혼 시 이용 의향 또한 매우 높아 가치관에 의한 결혼 지연이나 비혼이 아닌 경우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행복주택과 같은 신규주택공급 방식에 대해서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인 응답을 제외하고는 ‘임대 비용이 그리 저렴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과 ‘경쟁률이 너무 높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안 좋거나 주택 규모가 작을 것 같아서 이용 의향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기존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의 경우 역시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를 제외한다면 주택상태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용할 의향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택자금대출 방식의 정책에 대해서는 대출 등 돈을 빌리는 것이 싫고 빚지고 사는 것이 싫어서 이용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거나 대출받을 형편이 안 돼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 지원 중 청년의 결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주택 지원과 금융 지원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두 방식 모두 필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결혼할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자금대출 지원 방식과 주택공급 방식 모두 결혼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방식으로 나타나 두 방식 모두를 유지하면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특화 단지에 대한 이용 의향도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결혼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7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가 청년들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은 필요성이나 이용 의향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 의향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의 미혼이 보다 더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많아서 정책적 효과가 더욱 있을 수 있는 집중된 그룹에 알맞은 정책적 요구가 있어 보인다.

제 6 장

미혼 청년의 주거특성과 결혼의 연관성 분석

제1절 기술통계 및 전체 분석 결과

제2절 성별 분석 결과

제3절 지역별 분석 결과

제4절 경제수준별 분석 결과

제5절 소결

6

미혼 청년의 주거특성과 << 결혼의 연관성 분석

본 장에서는 청년 주거특성과 결혼 의향 사이의 연관성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다. 최근 결혼 연령에 가까이 있는 미혼인구가 결혼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되었다. 물론 실제 결혼으로 이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들어 미혼인구의 결혼 지연이나 포기가 큰 이슈가 되는 만큼 흔히 말하는 결혼 적령기에 결혼 의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전보다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미혼인구의 결혼 의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주거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결혼 의향에 대한 응답을 ‘없음’과 ‘있음’으로 나누어 이분변수로 구성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주거와 관련된 특성변수로 현재 부모님과 동거를 하는지 여부, 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있는지 여부,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재 가능성,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 및 형태, 신혼집 적정 비용, 주거 마련 시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이나 지원 기대, 주거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결혼 의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결혼 관련 특성에는 미혼인 이유, 결혼의 조건, 이성교제 여부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특성에는 성별, 교육정도, 거주지, 연령, 취업 여부, 본인과 부모 등의 경제수준을 포함해 알아본다.

제1절 기술통계 및 전체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결과

주거 관련 특성과 결혼 의향 사이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와 분포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결혼 의향은 없음이 21.2%, 있음이 78.9%로 나타났다.

주거와 관련된 특성 변수로는 부모님과 동거 여부, 본인 명의 주거 유무,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신혼집 마련 가능성, 희망 신혼집 유형, 희망 신혼집 점유 형태, 적정 신혼집 비용, 주거비용 지원 및 상속, 주거 지원 정책 도움 정도를 사용하였다. 그중 부모님 동거 여부에서는 부모님과 현재 동거 중인 경우가 64.6%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의 주거가 있는 경우는 28.3%로 많은 경우 본인 명의의 주거가 아직은 없었다. ‘내 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89.1%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현재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비율은 42.6%, 신혼집 마련이 어렵다는 비율은 57.4%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79.0%로 기타 다른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신혼집 점유 형태는 자가가 73.9%, 전세가 24.0%, 월세 등이 2.1%로 나타났다. 신혼집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1억 원을 기준으로 이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6.8%, 초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3.2%였다. 그리고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면 그 비용을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상속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는 23.5%였고,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전혀 도움 안 됨’이 1점, ‘매우 도움됨’이 4점일 때, 평균 2.99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약간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관련된 변수로는 현재 미혼인 이유를 세 가지로 카테고리화하

여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미혼인 그룹과 ‘학업, 취업, 주거문제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미혼인 그룹, 그리고 ‘그 외 다른 이유’로 미혼인 그룹으로 나누어 본 결과,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미혼인 경우는 29.5%, ‘학업, 취업, 주거문제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인 경우는 39.7%, ‘그 외 이유’는 30.8%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을 위한 조건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본 결과,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결혼을 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14.7%, ‘그 외 다른 조건’이 결혼의 조건인 경우는 85.3%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성교제 중인 경우는 44.7%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교육정도, 거주지, 연령, 취업 여부, 본인과 부모님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을 포함하는데 취업을 한 경우는 85.1%였다. 기타 변수들에 대한 분포는 다음 표에 제시되었다.

〈표 6-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변수	범주	사례 수(명)	비율(%)
결혼 의향	없음	634	21.1
	있음	2,368	78.9
주거 관련 특성			
부모님과 동거 여부	비동거	1,064	35.4
	동거 중	1,938	64.6
본인 명의 주거 유무	없음	2,151	71.7
	있음	851	28.3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꼭 필요하지는 않음	326	10.9
	꼭 필요함	2,676	89.1
신혼집 마련 가능성	어려움	1,723	57.4
	마련할 수 있음	1,279	42.6
희망 신혼집 유형	아파트	2,371	79.0
	그 외	631	21.0
희망 신혼집 점유 형태	자가	2,217	73.9
	전세	772	24.0
	월세 등	63	2.1
적정 신혼집 비용	1억 원 이하	1,406	46.8
	1억 원 초과	1,596	53.2
주거비용 지원·상속	기대 없음	2,295	76.5
	기대함	707	23.5
주거 지원 정책 도움 정도	1: 전혀 도움 안 됨~4: 매우 도움됨	2.99(평균)	

〈표 6-1〉 계속

변수	범주	사례 수(명)	비율(%)
결혼 관련 특성			
미혼 이유	아직 결혼할 마음 없음	886	29.5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192	39.7
	기타 다른 이유	924	30.8
결혼의 조건	기타 다른 조건	2,560	85.3
	주거 마련 해결	442	14.7
이성교제 여부	교제 상대 없음	1,659	55.3
	이성교제 중	1,343	44.7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성	1,708	56.9
	여성	1,294	43.1
교육정도	고졸 이하	264	8.8
	대졸	2,320	77.3
	대학원 이상	418	13.9
거주지	수도권	1,656	55.2
	광역시	598	19.9
	그 외 시도	748	24.9
연령	평균 초혼 연령 미만	1,778	59.2
	평균 초혼 연령 이상	1,224	40.8
취업 여부	비취업	448	14.9
	취업	2,554	85.1
본인 주관적 경제수준	하: 1~상: 5	2.15(평균)	
부모님 주관적 경제수준	하: 1~상: 5	2.50(평균)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2. 전체 분석 결과

본 분석에서 핵심 독립변수인 주거와 관련된 특성들의 효과가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유효한지 또는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으로 모형을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단, 본 분석은 온라인 조사의 결과를 활용한 결과로 조사 참여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주거 관련 특성 변수의 영향을 알아본 모형 1에서는 내 집(자가) 마련에 대한 생각, 신혼집 마련 가능성,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과 점유형태, 주거비용 지원 및 상속 기대와 주거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가 조사에 참여

한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그룹에 비해서 반드시 내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을 마련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련하기 어렵다는 준거집단과 비교해서 마련할 수 있다는 그룹이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희망 신혼집에 대해서는 그 유형이 아파트인 그룹과 비교에 그렇지 않은 그룹이 결혼 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희망하는 신혼집 점유 형태가 자가인 그룹보다는 전세인 그룹이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결혼한다면 주거 마련 비용을 지원받거나 상속받을 기대를 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결혼 의향 있을 확률이 높았다.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결혼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특성들을 투입하였는데,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미혼인 그룹과 비교해 학업이나 취직, 주거 마련 등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미혼이라고 응답한 그룹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미혼인 그룹이 결혼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각각 7.78배, 9.93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성교제 중인지 아닌지가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제하는 이성인 경우보다 없는 경우 결혼 의향이 약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관련 특성에 결혼 관련 특성 변수를 더했을 때 모형 1과 비교해 희망하는 신혼집 점유 형태의 영향이 사라졌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신혼집 비용이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본인 명의의 주거가 있는지 여부가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모형 1에서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 및 상속 기대가 가졌던 영향이 약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모형 3은 주거 관련 특성 변수와 결혼 관련 특성 변수에 더해 인구사회

학적 특성 변수를 모두 투입한 결과이다. 새로 더해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교육정도, 취업 여부와 부모님 경제수준이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e.g., 김중백, 2013; 박주희, 2016)에서 나타났듯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 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았고, 취업을 한 경우가 비취업의 경우보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그룹보다는 대졸 또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룹에서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경제수준은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보다는 부모님의 경제력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에서는 모형 2의 결혼 관련 특성의 영향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모형 2에서 미미하게 나타났던 본인 명의 주거 유무와 주거비용 지원·상속 기대에 대한 영향은 모델 3에서 사라졌고, 나머지 주거 관련 특성 변수의 영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 관련 특성 변수 중 자가인 내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신혼집 마련 가능성 여부,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 적정 신혼집 비용에 대한 생각,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 등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주거와 관련된 특성에서는 현재 부모님의 집에 같이 사는지, 자가 소유는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있는지와 같이 현재의 상태보다는 신혼집에 대한 조건들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가 결혼 의향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제 상대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결혼 의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6-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변수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Exp(B)	B	Exp(B)	B	(S.E.)	Exp(B)
주거 관련 특성							
부모님과 동거 여부(비동거)							
동거 중	-0.12	0.88	0.06	1.06	0.10	(0.14)	1.10
본인 명의 주거 유무(없음)							
있음	-0.20	0.82	-0.27 ⁺	0.77	-0.24	(0.15)	0.79
내 집 마련(꼭 필요하지는 않음)							
꼭 필요	0.74 ^{***}	2.09	0.50 ^{***}	1.64	0.50 ^{***}	(0.16)	1.66
신혼집 마련 가능성(어려움)							
마련할 수 있음	0.63 ^{***}	1.87	0.53 ^{***}	1.70	0.38 ^{***}	(0.13)	1.47
희망 신혼집 유형(아파트)							
그 외	-0.46 ^{***}	0.63	-0.45 ^{***}	0.64	-0.36 ^{**}	(0.13)	0.70
희망 신혼집 점유 형태(자가)							
전세	0.27 [*]	1.31	0.11	1.11	0.15	(0.13)	1.16
월세 등	0.12	1.12	0.18	1.19	0.21	(0.37)	1.23
적정 신혼집 비용(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0.12	1.13	0.33 ^{***}	1.39	0.26 [*]	(0.12)	1.29
주거비용 지원-상속(기대 없음)							
기대	0.35 ^{**}	1.42	0.25 ⁺	1.29	0.14	(0.15)	1.15
주거 지원 정책 도움 정도	0.39 ^{***}	1.48	0.30 ^{***}	1.35	0.29 ^{***}	(0.07)	1.34
결혼 관련 특성							
미혼 이유(아직 마음 없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2.05 ^{***}	7.78	2.17 ^{***}	(0.14)	7.91
기타 다른 이유			2.30 ^{***}	9.93	2.25 ^{***}	(0.14)	9.49
결혼의 조건(기타 다른 조건)							
주거 마련 해결			0.32 ⁺	1.38	0.32 ⁺	(0.18)	1.37
이성교제 여부(교제 상대 없음)							
이성교제 중			1.08 ^{***}	2.95	1.02 ^{***}	(0.13)	2.78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남성)							
여성					-0.26 [*]	(0.11)	0.77
교육정도(고졸 이하)							
대졸					0.43 ^{**}	(0.17)	1.54
대학원 이상					0.46 [*]	(0.23)	1.58
거주지(수도권)							
광역시					0.20	(0.15)	1.23
그 외 시도					-0.01	(0.13)	0.99
연령(평균 초혼 연령 미만)							
평균 초혼 연령 이상					-0.21 ⁺	(0.11)	0.81
취업 여부(비취업)							
취업					0.41 ^{**}	(0.15)	1.51
본인 주관적 경제수준					0.11	(0.08)	1.12
부모님 주관적 경제수준					0.15 [*]	(0.07)	1.16
N	3002		3002		3002		
-2 log likelihood	2929.181		2301.103		2260.950		
$\chi^2(df)$	165.870 ^{***} (10)		793.949 ^{***} (14)		834.101 ^{***} (23)		
Nagelkerke R ²	0.084		0.361		0.377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제2절 성별 분석 결과

결혼 의향은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e.g., 김중백, 2013; 박주희, 2016)를 통해 밝혀져 왔고, 그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 의향 관련 연구들(e.g., 김혜영, 선보영, 2011; 문선희, 2012)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앞선 분석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형을 구분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거 관련 특성 변수에서 남성은 내 집 마련 필요성, 신혼집 마련 가능성,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 신혼집 비용,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만이 결혼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본인 명의 유무와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이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특성과 결혼 의향 사이 연관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주거 지원 정책의 도움이 남녀 모두의 결혼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제외하고 주거 관련 특성 변수에서는 여성의 결혼 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 관련 특성 변수에서는 성별에 따라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미혼 이유에서 남성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인 경우만, 여성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와 기타 다른 이유인 경우가 결혼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남성은 연령 증가가 결혼 의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여성은 취업과 부모님 경제수준의 상승이 결혼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여성 모델과 달리, 남성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주관적 경제수준 상승이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을 높여 주는 결과를 보였다.

〈표 6-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녀 구분

변수	남성			여성		
	B	(S.E.)	Exp(B)	B	(S.E.)	Exp(B)
주거 관련 특성						
부모님과 동거 여부(비동거)						
동거 중	0.09	(0.19)	1.09	0.09	(0.21)	1.10
본인 명의 주거 유무(없음)						
있음	-0.12	(0.20)	0.89	-0.38 [†]	(0.22)	0.69
내 집 마련(꼭 필요하냐는 없음)						
꼭 필요	0.63 ^{**}	(0.22)	1.88	0.36	(0.24)	1.43
신혼집 마련 가능성(어려움)						
마련할 수 있음	0.47 ^{**}	(0.18)	1.60	0.26	(0.18)	1.29
희망 신혼집 유형(아파트)						
그 외	-0.38 [*]	(0.18)	0.68	-0.34 [†]	(0.19)	0.71
희망 신혼집 점유 형태(자가)						
전세	0.12	(0.19)	1.13	0.17	(0.60)	1.18
월세 등	0.07	(0.47)	1.07	0.51	(0.61)	1.66
적정 신혼집 비용(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0.39 [*]	(0.17)	1.47	0.16	(0.16)	1.17
주거비용 지원-상속(기대 없음)						
기대	0.19	(0.20)	1.21	0.09	(0.23)	1.09
주거 지원 정책 도움 정도	0.26 ^{**}	(0.09)	1.30	0.33 ^{**}	(0.10)	1.39
결혼 관련 특성						
미혼 이유(아직 마음 없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2.15 ^{***}	(0.18)	8.62	2.06 ^{***}	(0.23)	7.89
기타 다른 이유	2.47	(0.21)	11.43	2.08 ^{***}	(0.20)	8.02
결혼의 조건(기타 다른 조건)						
주거 마련 해결	0.36	(0.23)	1.43	0.19	(0.28)	1.21
이성교제 여부(교제 상대 없음)						
이성교제 중	0.95 ^{***}	(0.19)	2.60	1.10 ^{***}	(0.17)	3.02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정도(고졸 이하)						
대졸	0.50	(0.22)	1.65	0.40	(0.29)	1.50
대학원 이상	0.46	(0.31)	1.59	0.46	(0.35)	1.58
거주지(수도권)						
광역시	0.16	(0.21)	1.17	0.31	(0.21)	1.36
그 외 시도	-0.10	(0.18)	0.91	0.05	(0.19)	1.06
연령(평균 초혼 연령 미만)						
평균 초혼 연령 이상	-0.40 [*]	(0.16)	0.67	-0.01	(0.16)	0.99
취업 여부(비취업)						
취업	0.32	(0.20)	1.38	0.52 [*]	(0.21)	1.68
본인 주관적 경제수준	0.20 [†]	(0.11)	1.22	0.00	(0.11)	1.00
부모님 주관적 경제수준	-0.06	(0.10)	0.95	0.35 ^{**}	(0.10)	1.42
N	1682			1320		
-2 log likelihood	1156.429			1086.676		
$\chi^2(df)$	420.584 ^{***} (22)			398.187 ^{***} (22)		
Nagelkerke R ²	0.362			0.388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제3절 지역별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은 주거비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지역별 구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다(e.g., 권현주, 이현정, 2015; 문소희, 이현정, 2017; 정희주, 오동훈, 2014). 앞서 실시한 전체 분석에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주거 관련 특성이 주요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 관련 특성 변수 중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도권의 경우 내 집 마련의 필요성,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 신혼집 비용, 주거 지원 정책 도움에 대한 생각이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내 집 마련의 필요성, 신혼집 마련 가능성, 주거 지원 정책 도움 정도가 결혼 의향과 관련이 있었고,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부모님과 현재 동거 여부, 신혼집 마련 가능성, 주거 지원 정책 도움 정도가 조사 대상 청년의 결혼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세 지역 모두 공통적인 결과였고,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결혼 의향이 있는 경향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나타났다. 내 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나타났다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서 비용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내 집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이 아파트인 경우보다는 그 이외의 유형인 경우에 결혼 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와 적정 신혼집 비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 원 이하로 생각하는 경우보다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에서만 나타났다. 가장 집값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신혼집 유형과 비용 등 신혼집 마련에 대한 조건이 결혼 의향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혼 관련 특성에서는 역시 미혼인 이유와 이성교제 여부가 결혼 의향과 강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외 지역 모형에서 결혼의 조건이 미미하게($p < .01$)이지만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결혼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마련이 해결되면’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그 외의 조건을 응답한 경우보다 결혼 의향이 높을 확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거 지원을 했을 때, 또는 가족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결혼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룹일 수도 있다. 신혼집 비용이나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이 결혼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외 지역’에서 주거문제 해결이 결혼의 조건으로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 결과는 지역에 따라 정책 지원의 내용도 달라져야 함을 시사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성별, 교육정도와 광역시에서는 취업 여부, 부모님 경제적 수준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도 결혼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차이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6-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역 구분

변수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	
	B	Exp(B)	B	Exp(B)	B	Exp(B)
주거 관련 특성						
부모님과 동거 여부(비동거)						
동거 중	-0.04	0.96	-0.18	0.84	0.53 [*]	1.70
본인 명의 주거 유무(없음)						
있음	-0.15	0.86	-0.59 ⁺	0.56	-0.23	0.80
내 집 마련(꼭 필요하지는 않음)						
꼭 필요	0.58 ^{**}	1.78	0.92 [*]	2.51	0.08	1.09
신혼집 마련 가능성(어려움)						
마련할 수 있음	0.23	1.26	0.61 [*]	1.83	0.58 [*]	1.78
희망 신혼집 유형(아파트)						
그 외	-0.56 ^{***}	0.57	-0.17	0.85	-0.21	0.81
희망 신혼집 점유 형태(자가)						
전세	0.17	1.18	0.25	1.28	0.04	1.04
월세 등	-0.08	0.93	0.50	1.65	0.73	2.06
적정 신혼집 비용(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0.33 [*]	1.39	0.23	1.25	0.10	1.11
주거비용 지원·상속(기대 없음)						
기대	0.03	1.03	0.46	1.58	0.17	1.18
주거 지원 정책 도움 정도	0.25 ^{**}	1.29	0.42 ^{**}	1.52	0.31 [†]	1.36
결혼 관련 특성						
미혼 이유(아직 마음 없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2.05 ^{***}	7.77	2.35 ^{***}	10.50	1.99 ^{***}	7.32
기타 다른 이유	2.51 ^{***}	12.27	1.71 ^{***}	5.51	2.26 ^{***}	9.55
결혼의 조건(기타 다른 조건)						
주거 마련 해결	0.36	1.44	-0.24	0.78	0.69 ⁺	1.99
이성교제 여부(교제 상대 없음)						
이성교제 중	1.03 ^{***}	2.81	1.17 ^{***}	3.21	1.10 ^{***}	3.0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남성)						
여성	-0.36 [*]	0.70	-0.10	0.90	-0.13	0.88
교육정도(고졸 이하)						
대졸	0.66 ^{**}	1.94	0.54	1.71	0.06	1.07
대학원 이상	0.65 [*]	1.92	0.28	1.33	0.37	1.45
연령(평균 초혼 연령 미만)						
평균 초혼 연령 이상	-0.28 [†]	0.76	-0.07	0.94	-0.19	0.83
취업 여부(비취업)						
취업	0.33	1.39	0.69 [*]	1.99	0.38	1.46
본인 주관적 경제수준	0.18 [†]	1.19	-0.08	0.92	0.15	1.17
부모님 주관적 경제수준	0.04	1.04	0.43 [*]	1.54	0.19	1.21
N	1672		593		737	
-2 log likelihood	1207.134		405.332		611.081	
$\chi^2(df)$	464.181 ^{***} (21)		181.556 ^{***} (21)		219.372 ^{***} (21)	
Nagelkerke R ²	0.385		0.419		0.379	

주: 1) [†] $p < .10$, $p < .05$, ^{**} $p < .01$, ^{***} $p < .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제4절 경제수준별 분석 결과

주거문제는 지역에도 영향이 있지만 경제상황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미혼인구가 결혼으로 이행할 때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혼인구 특성상 사회초년생일 가능성으로 자산 축적의 기간이 짧은 반면, 주거는 그 특성상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스스로 주거비용을 마련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나 가족 등의 지원이 주거 마련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미혼인구의 주거 관련 특성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에 있어서 경제상황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상황별 분석에서는 앞서 전체 모델에서 부모의 주관적 경제상황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님의 주관적 경제상황을 상, 중, 하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부모님의 경제상황이 '상'이라고 생각하는 모형에서는 희망하는 신혼집 점유 형태를 '자가', '전세', '월세 등'의 세 카테고리로 나누었을 때, 비정상적으로 큰 숫자의 오즈비(odds ratio)가 나타나 '자가' 또는 '전세 등'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다.

결과를 보면, 부모의 경제수준이 '상'인 그룹에서는 신혼집 마련 가능성,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인 그룹에서는 본인 명의 주거 유무, 내 집 마련 필요성, 적정 신혼집 비용, 주거 지원 정책 도움 정도가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경제상황이 낮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는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만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님의 경제상황에 따라 주거특성과 결혼 의향 사이 관계에 차이를 보였다.

결혼 관련 특성에서는 역시 미혼 이유와 이성교제 여부가 결혼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지역별 분석에서 나타났던 결혼의 조건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미미한 영향($p < .01$)이 경제수준별 분석에서는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중'인 그룹에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이 '중'과 '하'인 그룹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 의향이 없을 확률이 약하게 나타났지만 '상' 그룹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교육정도와 취업 여부의 영향이 부모의 경제수준이 '상'과 '하'인 그룹은 제외하고 '중'인 그룹에서만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그룹보다 광역시에 거주할수록 결혼 의향이 있는 경향은 부모의 경제수준이 '상'인 그룹에서만 나타나는 등 부모님의 경제상황에 따라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 좋거나 나쁜 경우에는 주거 관련 특성이나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이 별로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 정도인 그룹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결과와 주거 마련 해결이 결혼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중간 정도인 그룹에서 나타났다. 이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별로 필요 없는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과 비교적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이 아니라 중간 수준 그룹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 있다.

〈표 6-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부모님 주관적 경제상황 구분

변수	상		중		하	
	B	Exp(B)	B	Exp(B)	B	Exp(B)
주거 관련 특성						
부모님과 동거 여부(비동거)						
동거 중	-0.42	0.66	0.09	1.09	0.44	1.54
본인 명의 주거 유무(없음)						
있음	-0.02	0.98	-0.46**	0.63	0.24	1.28
내 집 마련(꼭 필요하냐는 않음)						
꼭 필요	0.73	2.08	0.51**	1.66	0.70 ⁺	2.01
신혼집 마련 가능성(어려움)						
마련할 수 있음	1.60***	4.94	0.26	1.29	0.51	1.66
희망 신혼집 유형(아파트)						
그 외	-1.05 ⁺	0.35	-0.21	0.81	-0.76 ⁺	0.47
희망 신혼집 점유 형태(자가)						
전세	-0.06	0.95	0.11	1.11	0.53	1.69
월세 등	-	-	0.14	1.15	0.03	1.03
적정 신혼집 비용(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0.32	1.38	0.26 ⁺	1.29	0.02	1.02
주거비용 지원-상속(기대 없음)						
기대	-0.04	0.96	0.19	1.21	-0.25	0.78
주거 지원 정책 도움 정도	0.32	1.38	0.32***	1.37	0.24	1.27
결혼 관련 특성						
미혼 이유(아직 마음 없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74***	5.71	2.08***	8.02	2.31***	10.05
기타 다른 이유	1.87***	6.46	2.27***	9.69	2.60***	13.51
결혼의 조건(기타 다른 조건)						
주거 마련 해결	-0.10	0.90	0.36 ⁺	1.43	0.37	1.44
이성교제 여부(교제 상대 없음)						
이성교제 중	0.96 ⁺	2.61	1.10***	3.01	0.88**	2.4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남성)						
여성	-0.04	0.96	-0.23 ⁺	0.79	-0.55 ⁺	0.58
교육정도(고졸 이하)						
대졸	0.07	1.07	0.53**	1.69	0.32	1.37
대학원 이상	-0.50	0.61	0.77***	2.16	-0.44	0.64
거주지(수도권)						
광역시	1.57 ⁺	4.81	0.19	1.20	-0.12	0.89
그 외 시도	0.30	1.35	-0.01	0.99	-0.29	0.75
연령(평균 초혼 연령 미만)						
평균 초혼 연령 이상	-0.49	0.62	-0.17	0.84	-0.18	0.84
취업 여부(비취업)						
취업	-0.78	0.46	0.44**	1.55	0.53	1.71
본인 주관적 경제수준	-0.14	0.87	0.15 ⁺	1.16	0.45 ⁺	1.56
N	327		2276		399	
-2 log likelihood	188.302		1687.413		336.000	
$\chi^2(df)$	74.753*** (22)		628.911*** (22)		150.311*** (22)	
Nagelkerke R ²	0.369		0.378		0.446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제5절 소결

미혼 청년의 주거와 관련된 특성과 결혼 의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적인 모델에서는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혼집 마련이 가능한 경우,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희망하는 경우, 적정 신혼집 비용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의 이유나 이성교제 여부 또한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 고졸 이하보다는 대졸 이상, 미취업보다는 취업한 경우,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거 관련된 특성 중 현재 부모님의 집에 같이 사는지, 자가 소유는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있는지와 같이 현재의 주거 상태보다는 신혼집에 대한 조건들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와 교제 상대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혼 의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남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각기 다른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주거와 관련된 특성 중에서 남성은 내 집 마련 필요성에 대한 생각, 신혼집 마련 가능성,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 신혼집 비용,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은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만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의 경우는 주거 지원 정책 도움 이외에는 결혼 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여성 결혼 의향은 남성의 결혼 의향보다 주거 관련 변수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특성 중 부모님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여성 모델에서와 달리, 남성은 $p < .10$ 수준에서 유의미

하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주관적 경제수준 상승이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분석 결과 또한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그 외 시도 사이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는 내 집 마련의 필요성,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 신혼집 비용, 주거 지원 정책 도움에 대한 생각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쳤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의 필요성, 신혼집 마련 가능성, 주거 지원 정책 도움 정도가 영향을 미쳤다. 그 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부모님과 현재 동거 여부, 신혼집 마련 가능성, 주거 지원 정책 도움 정도가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향은 주거 지원 정책 도움 된다고 생각할수록 결혼 의향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는 내 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용 측면에서 내 집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나타난 특징은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적정 신혼집 비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혼 의향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 점이다. 즉, 가장 집값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신혼집 유형과 비용 등 신혼집 마련에 대한 조건이 결혼 의향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그 외 시도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한 번도 떨어져 살지 않고 지낸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즉, 결혼이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 이벤트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서 나타난 특징 중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결혼의 조건이 미미하지만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다. 결혼의 조건이 기타 다른 조건인 경우보다 주거 마련이 해결되면 결혼하겠다는 그룹이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적인 측면이나 가족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결혼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룹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신혼집 비용이나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이 결혼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외 지역’에서 주거문제 해결이 결혼의 조건으로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 결과는 지역에 따라 정책 지원의 내용도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부모님의 경제상황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경향을 보였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은 주거 관련 특성 중 신혼집 마련 가능성,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쳤고,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중간인 그룹에서는 본인 명의 주거 유무, 내 집 마련 필요성, 적정 신혼집 비용, 주거 지원 정책 도움 정도가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은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이 아파트가 아닌 그 외 유형인 경우 결혼 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희망하는 신혼집이 아파트인 경우가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은 주거 관련 특성이나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이 별로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중간인 그룹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중간인 경우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결과와 주거 마련 해결이 결혼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별로 필요 없는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과 비

교적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보다 중간 수준 그룹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최근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또는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지적되면서 그중 하나로 주거 마련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주거와 결혼이 연관이 있는지, 주거가 결혼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청년 주거에 대한 자료나 결혼에 대한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주제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청년의 주거와 결혼 사이의 관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 제공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를 위주로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조사의 결과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이지만 온라인 조사의 결과라는 특성상 패널에 속한 청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청년들이 결혼 자체에 대한 의향이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에서는 조사 참여 청년 중 80% 가까운 응답자가 결혼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여성은 약 74%가, 남성은 약 83%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남녀 간 차이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혼인 연령에 가까운 미혼 남녀에 대한 결혼 의향을 알아본 것인데도 기존 연구 및 조사(김중백, 2013; 박주희, 2016)에서 나타난 남성의 결혼 의향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여성의 결혼 의향이 낮은 경향을 다시 한

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혼 의향은 어쩌면 주거 마련보다 선행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 통념상 이해되고 있는 취업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기도 했다. 결혼 의향은 취업을 한 경우 더욱 높고, 일하지 않는 경우는 의향이 없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결혼 의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혼인 이유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여성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미혼인 경우가 많고, 남성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상황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성별과 연령을 조합해 보면, 남녀 모두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이 되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직 적절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미혼인 경우의 비율이 평균 초혼 연령 미만일 때보다 높아지는 공통점이 있었다. 동시에 미혼인 이유의 차이점은 여성의 미혼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이 되면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즉, 여성은 흔히 말하는 결혼 적령기를 넘긴 상황이 되면 자발적으로 미혼을 택한 이유가 더욱 견고해 지는 현상을 볼 수 있어 남녀의 미혼 이유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미혼 남성의 미혼 이유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관계가 있었지만, 미혼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상황적인 요인에 결혼할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인 것을 부분적으로 시사하며, 우리 사회에 결혼 지연이나 포기의 이유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혼인 이유에서 나타난 여러 차이들을 바탕으로 결혼 지연 및 포기의 이유를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본인의 가치관에 따른 결혼 지연 및 포기가 아니라 상황적 요인 때문에 결혼 지연이나 포기가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장애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상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그중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본 결과는 약 70%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황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경우라면 흔히 이야기되듯이 주거 상황이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못 하는 상황이라면 주거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중 소득이 어찌면 주거 마련보다도 선행하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 중 본인의 소득은 남성이 월 300만~400만 원, 여성은 월 200만~300만 원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상대방의 적절한 소득으로 여성은 월 300만~400만 원, 남성은 월 200만~300만 원을 가장 많이 꼽아,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가 남성과 여성이 본인 각자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소득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청년들이 결혼하기에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주거환경 마련에 대한 조건은 조사 응답자의 16% 정도이고, 결국 결혼의 조건으로는 결혼할 상대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적절한 이성을 만나는 것과 달리 여러 환경적인 조건 중 주거라는 단일 조건이 16% 정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임에는 틀림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주거환경 마련 조건에 대한 비율이 높은 그룹은 남성과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으로, 결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거 마련이 부담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결혼의 조건에서 적절한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듯이, 결혼 의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현재 이성교제 상대 유무일 것이다. 현재 이성교제 상대가 있음에도 결혼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신혼집 마련과 관련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로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 역시 다른 많은 이유 중 주거 마련 문제가 단독으로 차지하는 비율

로 생각하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생각되고, 결국 주거문제는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하거나 이행하는 데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난관 중 큰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부모님의 집에 아직 함께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 일부는 독립해 분리된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도 했다.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는 부모님 명의의 집인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주거환경 마련이라는 것에 대해 기초 자금이 아직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을 것이다. 청년 중 주택 명의를 본인인 경우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전세, 자가 순이었다. 명의를 청년 본인인 경우는 절반 정도는 본인이 주거비용을 마련하였지만, 나머지는 일부 또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경우로 나타나 청년 스스로 완벽하게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년 본인이 명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으며, 수도권 거주, 주택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대출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주거비용 지불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청년이 느끼고 있어 독립을 하거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은 꼭 신혼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이미 주거환경 마련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비용 부담 경험은 결혼 시 신혼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어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청년들이 현재 경험하는 주거환경이나 주거비 부담이 결국 결

혼과 연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청년의 경제적인 여건 또한 고비용이 드는 주택 마련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결혼 시 ‘신혼집’이라는 것을 마련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 시 어떠한 주거를 마련하기를 원하는지 또한 결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와 결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만큼 결혼 시 기대하는 주거에 대한 조건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시도했다. 결혼 시 마련하는 주거에서 중요한 사항 1순위에서는 주택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이 주택위치, 점유 형태, 거주환경, 주택 유형, 주택상태 및 구성, 교통환경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2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주택위치, 교통환경 순이고, 주택 유형과 거주환경이 그다음으로 동일한 비율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매우 중요하지만 청년들은 결혼 시 구매 혹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으로 주택위치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주택가격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교통환경이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요건이고, 주택위치, 거주환경, 주택상태 및 구성은 동일한 수준에서 약간 타협이 가능한 사항이다. 신혼집 마련에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 주거비용은 각자 가능한 수준이 정해져 있다면, 교통환경과 주택위치, 거주환경 등 주택 자체에 대한 조건보다 주택 주변의 편의 및 환경과 관련된 여건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신혼집 조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주택가격과 유형, 점유 형태는 오히려 타협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나타나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희망하는 신혼집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했으며, 특히 결혼 의향이 있는 여성,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여성, 부모님 경제수준이 높은 여성이 아파트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주택 유형에서도 아파트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기는 했으나,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결국 청년들이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희망하지만 그중 절반 정도만 희망하는 유형 그대로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 절반은 다른 유형의 주택이 가능하다고 응답해 희망과 현실 사이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 점유 형태에서도 희망은 자가를 많이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전세가 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아 희망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집 비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과 실질적으로 들어갈 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모두 약간씩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주지에 따라서도 비용은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신혼집 비용에 대해 대부분 일부 부담하거나 전액 부담할 의향이 높았는데, 전액 부담에 대한 의향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고, 실질적으로 부담하겠다는 금액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혼집 마련 시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부담 비율은 약 6: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러한 견해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신혼집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평균 금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현재 마련된 금액은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의 절반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집 관련 비용에 대해 남녀가 함께 필요한 것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남성은 신혼집 마련, 여성은 혼수 마련이라는 전통적인 결혼준비 방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인이 신혼집에 부담할 금액 중 현재 마련된 금액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남성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금액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그룹들은 마련하고자 하는 주택비용이 높은 지역에 있거나, 주택에 대한 기준 또한 그만큼 높기 때문에 준비된 절대적인 금액이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청년들의 과반수 이상은 현재 수준으로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응답했고, 부모님의 지원이나 상속도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남성 그룹은 주택비용에 대한 부모님의 지원이나 상속을 기대하는 경우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많은 청년들이 결혼 시 주거 마련을 위해 부모님의 지원이나 상속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신혼집 사이에 차이가 극명하고, 청년 스스로 주거비용을 충분히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 등 결혼과 함께 꿈꾸는 신혼집 마련이라는 것이 많은 청년에게 쉽지만은 않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거나, 내 집을 꼭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고 집 장만 및 확장을 해 나가고 하면서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었던 과정들이 현재 청년들에게는 자의에 의해 원치 않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는 타의에 의해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리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혼 의향이 없는 그룹에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결혼 의향이 없어서 내 집에 대한 포기나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내 집을 포기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결혼 의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집과 결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청년들이 주거 마련 자체에 어려움이 있고, 홀로 사는 것보다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신혼집 마련에 대해서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직접적인 생각을 보면, 현재 주거 지원 방식인 주택공급과 금융 지원에 대해 청년들이 대부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행복주택과 같은 신규주택공급 방식은 잘 알고 있는 반면, 전세임대와 같이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은 인지도가 높지 않아 보였다. 주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주택자금대출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 방식에 대한 이용 경험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모든 방식이 골고루 높게 나타나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높은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행복주택과 같은 신규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인 청년들을 제외하고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임대비용이 그리 저렴할 것 같지 않다거나 경쟁률이 너무 높아 선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주택이 소규모인 점이 이용 의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수도권 경우에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용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 방식의 지원 역시 이용할 필요가 없는 청년을 제외한다면, 주택상태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용할 의향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대출 방식의 정책에 대해서는 대출 등 빚지고 사는 것이 싫어서, 또는 대출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거나 대출받을 형편이 안 돼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들이 있어 주택 지원 방식이 인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 공급이 부족한 면을 알 수 있고,

금융 지원 방식에서는 대출 자격에 대한 제약이 제도 이용에 한계로 다가옴을 알 수 있다.

주거 지원의 큰 방식인 주택 지원과 금융 지원은 비슷한 비율로 청년의 결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진행 중인 두 방식 모두 필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결혼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높게 나타나 정부가 청년들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상황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미혼 청년 결혼 의향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혼의 이유나 이성교제 여부가 결혼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력, 취업 여부, 부모님의 경제수준 또한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주거와 관련된 특성에서는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현재 상황에서 신혼집 마련이 가능한 경우,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희망하는 경우, 신혼집에 드는 적정 비용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생각하는 경우,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관련된 특성 중 현재 부모님의 집에 같이 사는지, 자가 소유는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있는지와 같이 현재의 주거 상태와 관련된 요인보다는 앞으로 마련할 신혼집에 대한 조건들이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인구가 신혼집으로 생각하는 조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주거 관련 특성과 결혼의 연관성에 대해 남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주거와 관련된 특성 중에서 남성은 내 집 마련 필요성에 대한 생각, 신혼집 마련 가능성, 희망하는 신

혼집 유형, 신혼집 비용,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은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만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 여성 결혼 의향은 남성의 결혼 의향보다 주거 관련 변수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 모델에서는 부모님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 모델에서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주관적 경제수준 상승이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남녀 사이의 차이가 분명함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상황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청년의 주거 관련 특성과 결혼 의향 사이에는 지역별 차이 또한 존재했다.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향은 주거 지원 정책이 도움 된다고 생각할수록 결혼 의향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 경우는 내 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집값이 높아 내 집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적정 신혼집 비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혼 의향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가장 집값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신혼집 유형과 비용 등 신혼집 마련에 대한 조건이 결혼 의향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그 외 시도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한 번도 떨어져 살지 않고 지낸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외 시도에서 여전히 부모님과 동거 중인 청년은 결혼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일정 시기가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서 결혼의 조건이 기타 다른 조건인 경우보다 주거 마련이 해결되면 결혼하겠다는 그룹의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나 정책적인 측면이나 가족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결혼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혼집 비용이나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이 결혼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외 지역’에서 주거문제 해결이 결혼의 조건으로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 결과는 지역에 따라 특정 지원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라 정책 지원의 내용도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청년의 주거 관련 특성과 결혼 의향의 관계는 부모님의 경제상황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경향을 보였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은 주거 관련 특성이나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이 별로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중간이라고 생각한 청년 그룹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중간인 그룹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결과와 주거 마련 해결이 결혼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과 비교적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교해 경제수준이 중간인 그룹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년의 결혼할 마음 또는 의지를 가지고 이행하는 데에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주거와 관련된 특성과 미혼인구를 집중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 의향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다양한 이유, 결혼의 가능성과 가까워 보이는 이성교제 상대의 유무 등 결혼과 직접 관련된 요인들이 결혼 의향과 연관되어 있고, 환경이나 여건 등의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못 하는 경우라면 그중 주거문제는 다소 무겁게 결혼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혼 시 마련하고자 하는 주거에 대한 조건들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주거특성과 결혼 의향 간의 관계는 단순 패턴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성별이나 지역 차, 또는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자원 정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다.

전체 미혼인구 모두 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그룹은 결혼할 의향이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의 그룹일 것이다. 이러한 미혼 청년들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러 분석에 있어서 여유롭지 않은 측면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결혼 시 마련하고자 희망하는 주거 조건과 실제 현실에서 마련 가능한 주거 조건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경향과 부모세대로부터 지원이 부족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그만큼 이 그룹이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택공급이나 주택자금 대출 방식을 모두 중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용 의향도 매우 높았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매우 된다고 생각하는 등 정부로부터의 도움에 크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타깃 집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정책적 제언

1. 주거특성에 대한 세분화된 니즈 파악

본 연구에서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을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인 미혼인구의 결혼에 대한 의향과 연관성 파악을 위해 특히 결혼 시 마련하고자 하는 주거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 살펴보았다. 주거특성과 결혼 의향 사이에 전반적인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거주하는 곳의 주거비용이 각기 다르고, 우선순위를 두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그룹별로 주거와 관련된 욕구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거주지와 각자 가진 자원의 크기,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 더 다양한 특성이 존재할 것이다. 도움이 되는 지원이나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면밀한 욕구 파악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에서 결혼 이행을 하고자 하는 청년은 생애주기상 가족형성기로 1인 위주 생활에서 2인 공동생활에 적절한 환경을 마련하는 주거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이다(정소이, 조승연, 박준영, 조상희, 2016). 이 변화에 있어서 청년 본인이 가진 변화 계획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높은 상태는 결혼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변화의 과정인 결혼 이행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욕구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거특성에 대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욕구를 알릴 수 있는 장(場)이나 계기가 청년들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 이는 연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신혼집을 마련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교통환경, 주택위치, 거주환경 등이었던 것, 그리고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를 매우 많이 선호했던 것 등 청년들의 욕구는 주택공급방식 지원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정책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나 청년들이 직접 주관적으로 제시한 여러 정책적 아이디어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 공유 계기를 통해 청년이 한 그룹이 아니라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다른 조건을 가진 세부 그룹이 있음을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니즈를 기본 정보로 파악한 후에 가장 시급하거나, 실현 가능한 욕구를 풀어 나가는 방식으로 결혼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장애가 되는 주거환경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 주거 자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결혼하고자 하는데 주거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주거 요건과 신혼집 등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하는 청년들의 문화나 가치관을 함께 이해하면서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 다차원적 상황을 고려한 주거 지원 방안 마련

이러한 세분화된 니즈 파악이 이루어지면, 그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개인 차원의 상황과 국가 차원의 상황, 즉 미시적, 거시적인 차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 차원 중 하나인 부모님의 경제수준을 고려해 보면, 부모님 경제수준이 중간 그룹만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확률이 높다거나 부모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은 얼마든지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 등의 결과는 개인이 가진 경제적 자원에 따라 결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남성이 여

성보다 신혼집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는 경향이 있는 등 개인적 차원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물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주거 지원 방안보다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남녀가 함께 준비하는 결혼문화 등이 보다 안정화되는 과정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희망하는 신혼집 유형이나 비용 등이 다른 시도에서는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결혼 의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거특성이 지역에 따라 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획일적인 지원 방안이 어디에서나 효과를 나타내기는 힘든 구조이다. 행복주택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에서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 선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공급이 남는 경우도 있다. 금융 지원 시에도 수도권의 경우 대출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지방과 비교해 매우 높은 서울의 주거 비용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값이 상승하는 속도에 비해 정책에서 커버하는 지원 비율 확대의 속도가 다르다면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대를 반영하는 감각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청년 개개인의 경제적인 자원 수준마다 적절한, 그리고 필요한 방안과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적인 차원의 상황이 고려된 지원 방안, 또는 지역에 자율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마다 다른 환경을 활용해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3. 기존 정책 강화, 기준 완화 및 정리

현재 주거 지원 방식인 주택공급 방식과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둘 다 매우 필요한 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결혼 의향과 긍정의 관계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성은 결혼 의향이 있으나 현재 상황상 결혼을 미루고 있는 특징을 가진 미혼인구 사이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 지원 정책 방식은 모두 중요하고 균형 있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하나의 방식을 확대하기보다는 두 방식 모두를 적절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에는 한계가 있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신규주택공급은 지원해도 경쟁률이 높아서 선정되지 않을 것 같거나, 임대 비용이 그리 저렴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택자금대출 지원 활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대출받을 형편이 안 되거나 대출 상품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등 지원이 필요하고 정책이 존재하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벗어난 상황들이 발생한다.

현재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은 청년과 신혼부부 사이에 수요가 높은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주거 공간으로 경쟁률이 높아 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어렵기까지 하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찾아 지원을 확대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둬 지적되어 왔던 금융 지원에 있어서의 조건 완화는 개선되고 있지만, 더욱 현실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주거환경 어려움과 결혼에 있어서의 장애 등 주거문제가 부

각되면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늘어나고 여러 명칭으로 발표되었다. 다양한 대상에 대해 지원 방식의 다각화 시도와 함께 정책이 마련되다 보니 주거 지원 정책 자체가 시민이 이해하기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기존주택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지도가 낮은 경향도 있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주거 마련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4. 타깃 그룹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통한 맞춤 지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상황 때문에, 특히 주거문제로 인해 현재 결혼을 미루고 있거나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이 결혼 지원 정책으로써의 주거 지원 정책의 타깃일 것이다. 이 타깃(targeted) 그룹에 대해 적절하게 맞추어진(tailored)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할 의사가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미혼 청년의 경우,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 지원 정책을 이용할 의사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공급 방식과 대출 방식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주택공급 방식 중 기존주택활용 방식 정책에 대해서도 결혼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 그룹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수준의 주거를 확보해 공급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의 타깃 대상을 그룹별로 선별해 그룹마다 더욱 상세한 환경과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5. 결혼으로 구분 짓는 경직된 대상자 선정 재검토

청년 대상, 특히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의 강화는 생애주기상 가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의 청년들이 그 이행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것에 대한 방지를 위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여전히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환경이 충족되지 않아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어려움의 강도를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못 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 생애주기에 따라 이루어지던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과거에 현저하게 낮아졌다. 결혼을 못해서라기보다, 또는 상황이 극복되면 결혼을 할 것이기보다는 젊은 미혼층 사이에서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제도가 자신이 속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 또는 당연히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닌 경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이벤트 없이도 얼마든지 결혼생활이 가능한 시대에 미혼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결혼 의향은 변동하는 것이고, 반드시 혼인제도에 들어오는 결혼에 대한 의향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주거 지원에 있어서 신혼부부에 대한 자격이 7년까지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법률 혼인을 했을 때의 인정이다. 제도권에 들어오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면 당연히 연계져 왔지만,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에 있어서 지원은 시민의 권리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해 유연해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청년층을 위한 지원을 마련할 때에는 기성세대의 시각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대상 세대에 알맞은 문화와 트렌드 등 현실을 분명하게 파악해 기존의 틀 안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닌 유연성을 겸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더욱 다양한 정부의 지원과 개선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포기 대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함께 생각하는 신혼집은 그 유형, 점유 형태, 비용 등에서 희망하는 조건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불일치가 많고 클수록 신혼집에 대한 포기가 일어날 것이고 이 결과가 결혼 의향이나 이행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정부 지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결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은 결과와 특히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견해의 비율이 높은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청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희망하는 수준의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신혼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만큼 집값이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자칫 지원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해질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원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다는 비율이 높은 결과, 특히 부모님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결혼에 도움이 되는 주거 관련 정책을 주관적으로 기록한 결과에서 다른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 부동산 안정을 꼽은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지원 이전에 근본적인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여러 환경과 상황을 적극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꼭 결혼할 대상에게만이 아니라 삶의 기본이 되는 주거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청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부정적인 경험의 반복은 청년 세대를 상

징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포기(拋棄)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이 어려워진 사회에서 나타난 결혼 후 출산하는 자녀수를 줄이는 경향에서 결혼 후 출산을 전혀 하지 않는 경향으로, 그리고 현재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성교제, 친구 교류 등 계속해서 무언가를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이 기본이 되는 경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일부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청년들이 원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원을 하려 해도 지원이 어려운 영역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포기가 일상이 되어 버리는 고리를 끊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 청년들 사이에서 포기가 쉽게 일어나는 영역 중 하나인 주거 관련 상황에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정구, 마강래. (2017). 지역의 주택가격이 초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 29(2)**, 97-110.
- 고선강, 어성연. (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14호. 2018.5.17. 일부개정.
- 관계부처 합동. (2018. 7. 5.).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1018에서 인출.
- 국립국어원. (2015. 3. 25.). 국립국어원, 2014년 신어 조사 결과 발표. **국립국어원 보도자료**, https://www.korean.go.kr/front/board/boardStandardView.do?board_id=6&b_seq=523&mn_id=19에서 인출.
- 국토교통부. (2016. 4. 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3&id=95077373에서 인출.
- 국토교통부. (2017. 10. 26. a).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실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1&id=95079842에서 인출.
- 국토교통부. (2017. 11. 29. b).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1&id=95079992에서 인출.
- 국토교통부. (2017. 11. 29. c).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 참고자료**(주거복지 로드맵 설명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1&id=95079992에서 인출.
- 국토교통부. (2017d).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8. 1. 25. a).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0289에서 인출.
- 국토교통부. (2018. 9. 28. b).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 폭 개선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378에서 인출.
- 권소영, 강시은, 엄세원, 박지수, 이재림. (2017). 청년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21(4), 3-25.
- 권현주, 이현정. (2015). 한국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관 군집에 따른 가구 및 주거 특성.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6), 43-52.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배진우, 손원빈. (2016).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원, 배민경, 박승훈. (2016). 수도권과 광역권의 청년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2016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2), 210-215.
- 김승권, 박종서, 김유경, 김연우, 최영준, 손창균, 윤아름. (2012).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중백. (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24.
- 김혜영, 선보영. (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25.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 대한민국정부. (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문선희. (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

- 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5-25.
- 문소희, 이현정. (2017).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청년 1인 임차가구의 가족 지원 및 주거비 부담에 따른 주거 실태 및 주거 기대.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8(3), 11-22.
- 박미선. (2017a).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박미선. (2017b). 청년의 주거지원 필요성과 정책지원 방향. **국토**, 432, 26-32.
- 박주희. (2016). 가족가치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남녀 대학생의 결혼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4), 21-35.
- 박주희. (2017).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지원정책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4), 1-15.
- 배병우, 남진. (2013).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서울도시연구**, 14(1), 23-38.
- 배호중, 한창근. (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보건사회연구**, 36(3), 204-238.
- 보건복지부. (2015). 2015년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 원아름, 박정운. (2016). 이성교제 중인 미혼남녀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이성교제 관계의 질과 결혼이미지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4(1), 145-166.
- 이무선. (2017). 다항 로짓모형을 이용한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영향요인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6), 469-481.
- 이삼식, 최효진. (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포, 노정현. (2017). 주거환경이 신혼부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5(1), 273-289.
-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정. (2015a).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청년 임차가구의 지역별 주거 실태 비교.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81-90.
- 이현정. (2015b). 수도권 사회진출초기 임차자의 주거비 실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71-79.
- 임덕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 (2017).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
- 임선영, 박주희. (2014).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가 결혼의 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지**, 18(3), 177-193.
- 정소이, 조승연, 박준영, 조상희. (2016). **생애주기별 주거수요 대응형 공공주택 공급방향 연구**.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
- 정의철. (2012).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학연구**, 18(2), 19-31.
- 정윤태, 이훈희, 김하만. (2012). 계층분석방법(AHP)을 활용한 저출산 대응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6(3), 55-79.
- 정희주, 오동훈. (2014). 청년세대 1·2인 가구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2), 95-113.
- 진미정, 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 (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82호. 2016. 9. 5. 타법개정.
- 탁현우. (2017). 저출산대책-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지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2036.
- 통계청. (2000-2017). **인구동향조사: 시도별 평균초혼 연령**.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

- onn_path=K1 에서 2018. 9. 26. 인출.
- 통계청. (2000-2017). **인구동향조사: 시도/인구동태전수 및 동태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 에서 2018. 9. 26. 인출.
- 통계청. (2018. 3. 21.). 2017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673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태전수 및 동태율 추이**.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conn_path=I2 에서 2018. 9. 26. 인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09&conn_path=I2 에서 2018. 10. 20. 인출.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2018. 6. 14. 인출.
-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2018. 6. 20. 인출.
- 주택도시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2018. 6. 20. 인출.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분석시스템 홈페이지 청년패널조사 조사개요(<https://survey.keis.or.kr/yp/yp01/yp0101.jsp>)에서 2018. 6. 14. 인출.

〈데이터〉

- 국토교통부.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주거실태 조사 원자료.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조사 조사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조사 연구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결혼 연기나 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에 대한 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부 정책 수립과 추진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요시간은 약 15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의 주거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가 정부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응답 도중에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 및 거절, 참여 중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홍식

연구책임자 : 인구정책연구실 변수정 연구위원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응답자 일반사항, 이성교제 및 결혼의향, 주거 현황, 희망하는 신혼집, 정책육구

[개인정보 수집 목적]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의향, 정책 육구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및 보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18년 월 일

조사대상자 : _____

A2. 귀하는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① 현재, 결혼할 의향이 있다
 ② 현재는 없지만 언젠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
 ③ 현재도 앞으로도 결혼할 의향이 없다
 ④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A2-1. 귀하는 몇 세가 결혼하기 적절한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가이드>

- * 만 연령으로 응답
- * 부모님 동의 없이도 혼인 가능한 만 19세 이상으로 응답
- *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일반적으로 몇 세에 결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
 - 여성은 여성 기준, 남성은 남성 기준으로 응답

만-----세

A2-2. 귀하가 결혼한다면 본인과 결혼할 상대방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가이드>

- *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 상대의 소득에 대해 응답

본인: _____

상대방: _____

- ⑥ 소득 상관없음 ① 1원~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7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이상

A2-3. [A2의 ①, ②, ④ 응답자만] 귀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결혼하실 생각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본인(또는 상대)의 직장이 안정되면
 ② (주거마련까지는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결혼자금에 모이면
 ③ 결혼생활을 위한 주거마련이 해결되면
 ④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⑤ 결혼하기에 적절한 나이가 되면
 ⑥ 기타()

A3. 귀하는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86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A3-1. [A3의 ① 응답자만] 현재 교제하고 계신 분과 결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이 있거나 준비 중이다
- ② 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교제 상대와 결혼할 생각이다
- ③ 아니오, 현재 교제 상대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
- ④ 잘 모르겠다

A3-2. [A3의 ① 응답자만] 현재 교제하고 계신 분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 중 신혼집 마련(누가 준비하든 관계없이)과 관련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일니까?

<응답 가이드>

- * 신혼집 마련을 본인이 하건 상대가 하건 둘이 함께 하건 관계없이 그 주거 마련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고 응답
- * 구체적으로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그 과정에서 신혼집 마련과 관련된 문제의 비율 응답
- * 0~100 사이 숫자로 응답

----- %

A3-3. [A3의 ① 응답자만] 현재 교제하고 계신 분은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A3-3-1. [A3-3의 ① 응답자만] 현재 교제하고 계신 분이 하시는 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파트타임이 아닌 전일제근로 ② 시간단위 파트타임/아르바이트
- ③ 재학 중 실습 또는 기업 인턴쉽 ④ 기타()

A3-3-2. [A3-3의 ① 응답자만] 현재 교제하고 계신 분이 하시는 일의 종사상지위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응답 가이드>

- *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경우임

-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자영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A3-4. [A3의 ① 응답자만] 현재 교제하고 계신 분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1개 선택]

<응답 가이드>

- * 수입은 근로, 사업, 부업소득(일해서 버는 수입)과 재산, 금융소득(부동산 임대료,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원금은 제외), 주식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하며, 세전 소득 기준
- *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정부 지원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은 제외

- ① 수입 없음 ① 1원~50만원 미만 ② 50만원~100만원 미만
- ③ 100만원~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400만원 미만
- ⑥ 400만원~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⑨ 모름

A3-5. **[A3의 ① 응답자만]** 현재 교제하고 계신 분은 본인 명의로 소유(자가)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까?

〈응답 가이드〉

* 공동 명의인 경우에도 있는 것으로 선택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A3-6. **[A3의 ① 응답자만]** 현재 교제하고 계신 분의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은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⑥ 모르겠다 ⑦ 부모님(길러주신 분) 안계심

A3-7. **[A3의 ① 응답자만]** 현재 교제하고 계신 분은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으로부터 주택비용을 지원받거나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① 기대하고 있다
② 기대하지 않는다
③ 이미 상속/지원 받았다
④ 모르겠다
⑤ 부모님(길러주신 분) 안계심

B. 주거 관련 사항

※ 이후 질문에서 부모님 관련 응답시 부모님 두 분이 따로 살고 계시면, 성장 과정에서 주로 본인을 길러주신 분이냐 현재 본인의 생활이나 앞으로 결혼에 조금이라도 더 영향을 미칠(것 같은) 분을 기준으로 응답

B1. 귀하는 현재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1개 선택]

〈응답 가이드〉

- * 과거 독립 경험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경험만 포함
 - 중고등학교때 학업을 위해 따로 살았던 것은 포함하지 않음
 - 대학진학을 위해 따로 살게 된 것은 포함
- *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 안되는 경우 그 정도 나이(만19세) 이후를 생각해 응답
- * 남성의 경우 군입대로 인해 떨어진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① 한 번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과 함께 살고 있음
- ② 과거에 따로 나와 살았던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과 함께 살고 있음
- ③ 현재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음
- ④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이 모두 돌아가셨거나 안계심

B2.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모두 선택]

- ① 혼자 살고 있음
- ② 아버지/어머니
- ③ 할아버지/할머니
- ④ 형제/자매
- ⑤ 친인척
- ⑥ 친구, 동료 및 지인
- ⑦ 이성친구, 애인, 파트너
- ⑧ 기타()

B3.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1개 선택]

- ① 아파트
- ② 단독주택(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영업겸용단독 등)
-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 ④ 오피스텔
- ⑤ 고시원 및 기숙사
- ⑥ 기타()

B4.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집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모두 선택]

〈응답 가이드〉

- * 자가인 경우 소유자, 전세나 월세 등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계약자)으로 응답
- * 공동 명의인 경우 해당되는 사람 모두 선택

- ① 본인
- ② 아버지/어머니
- ③ 할아버지/할머니
- ④ 형제/자매
- ⑤ 친구, 동료 및 지인
- ⑥ 기타()
- ⑦ 사택, 관사 등에 살고 있어 해당 없음

B4-1. [B4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이며, 주택의 시가 혹은 임차비용은 얼마입니까?

1) 점유형태	2) 시가 혹은 임차비용	
① 자가	⇒ 시가 금액	_____만원
② 전세(월세 없음)	⇒ 전세보증금	_____만원
③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 보증금	_____만원
	월세	월 _____만원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월세	월 _____만원
⑤ 사글세, 년세, 일세 등	⇒ 월세(한달분)	월 _____만원

B4-1-1. [B4-1의 ①, ②, ③ 응답자만] 주거비용 마련은 누가 하셨습니까? [1개 선택]

〈응답 가이드〉

- * 주거비용은 자가인 경우는 구입 비용,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을 말함
- * 대출이 있는 경우는 그 대출을 누가 갚느냐를 기준으로 응답

- ① 전부 본인 스스로
- ②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 등이 일부 도움
- ③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 ④ 전부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 등이 마련해 주심

B4-1-2. [B4-1의 ③, ④, ⑤ 응답자만]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으로부터 월세를 지원받고 계십니까?

- ① 월세 전체를 지원받고 있음
- ② 월세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
- ③ 전혀 지원받고 있지 않음

B4-2. [B4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살고계신 집을 마련하기 위해(자가, 전세, 월세 등 지불을 위한) 대출을 받았다면(개인에게 빌린 것 포함), 대출금 이자나 상환액으로 매달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응답 가이드〉

- *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빌리거나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원금 상환액 등 본인이 매달 평균적으로 빌린 돈의 대가로 지불하는 총 비용 응답
 - 일시상환 계획으로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달 지출하는 이자 금액만 응답 (단, 일시상환을 대비하여 매달 적금을 넣거나 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저축 금액 포함)
 -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달 지출하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응답

- ① 해당없음(대출 없음)
- ② 월 _____만원

B4-3. [B4의 ① 미응답자 & ②~⑦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집에 어떤 형태로 얼마의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응답 가이드>

- * 주택 명의자에게 주거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서 주거비 명목으로 따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것 등) '⑤ 무상'에 응답
- * 어떤 형태로든 주거 비용을 주택 명의자에게 지불하고 있다면, 그와 가장 가까운 형태와 비용 응답

1) 주거형태		2) 주거비용
① 전세(월세 없음)	⇒	전세보증금 _____ 만원
②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	보증금 _____ 만원
		월세 _____ 만원
③ 보증금 없는 월세	⇒	월세 _____ 만원
④ 사글세, 년세, 일세 등	⇒	월세(한달분) _____ 만원
⑤ 무상		

B5. 현재 귀하가 살고 계신 집 외에 귀하 명의로 소유(자가)하고 계신 집이 있으십니까?

<응답 가이드>

- * 공동명의로인 경우에도 '① 있다'에 응답

- ① 있다 ② 없다

B5-1. [B5의 ① 응답자만]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마련은 누가 하셨습니까? [1개 선택]

<응답 가이드>

- * 대출이 있는 경우는 그 대출을 누가 갚느냐를 기준으로 응답

- ① 전부 본인 스스로
 ②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 등이 일부 도움
 ③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④ 전부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 등이 마련해 주심

B6.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자가, 전세, 월세 등 상관 없음)이나 그 외 본인 명의로 소유한 집에 대해 매월 임차료나 대출금 이자(또는 상환액)를 지불하는 것이 귀하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됨 ② 조금 부담됨 ③ 거의 부담되지 않음 ④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⑤ 해당없음(지불하는 임차료가 없거나 상환할 대출금 없음)

B6-1. [B6의 ①, ②, ③ 응답자만] 그 주거 비용 부담은 귀하가 현재 결혼하지 않은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② 조금 영향을 미침
 ③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B7. [B1의 ③ 응답자만] 귀하의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께서는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B8. [B1의 ③ 응답자만] 귀하의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께서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이며, 주택의 시가 혹은 임차비용은 얼마입니까?

〈응답 가이드〉

- * 주택 명의자에게 주거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예를 들어 부모님이 조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서 주거비 명목으로 따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것 등) '⑥ 무상'에 응답
- * 주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관사나 사택에 사시면 '⑥ 무상'에 응답
- * 어떤 형태로는 주거 비용을 주택 명의자에게 지불하고 있다면 그와 가장 가까운 형태와 비용 응답

1) 점유형태		2) 시가 혹은 임차비용	
① 자가	⇒	시가 금액	_____만원
② 전세(월세 없음)	⇒	전세보증금	_____만원
③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	보증금	_____만원
		월세	월 _____만원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월세	월 _____만원
⑤ 사글세, 년세, 일세 등	⇒	월세(한달분)	월 _____만원
⑥ 무상			

B9. [B1의 ①, ②, ③ 응답자만] 귀하의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이 본인들의 명의로 소유(자가)하고 있는 집은 총 몇 채입니까?

〈응답 가이드〉

- *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집이 자가이면 그 집을 포함해서 응답
- * 어머니, 아버지께서(또는 길러주신 분) 모두 계신 경우 두 분이 소유하고 있는 집의 총합으로 응답
 - 아버지 1채, 어머니 2채 소유하고 계시면 총 3채로 응답
 - 어머니와 아버지 공동명의로 1채, 어머니 1채 소유하고 계시면 총 2채로 응답
- * 자가인 집이 없으면 0으로 응답
- * 공동명의로 포함해서 응답

채 _____

B10. 귀하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응답 가이드〉

- *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이 아무도 안계시면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이 살아계셨을 때나 남기신 유산 등을 생각하고 응답
- * 현재 부모님 두 분이 따로 살고 계시면, 성장 과정에서 주로 본인을 길러주신 분이나 현재 본인의 생활이나 앞으로 결혼에 조금이라도 더 영향을 미치실(것 같은) 분을 기준으로 응답

-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C2-2.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신혼집의 점유형태는 각각 무엇입니까?

희망하는 신혼집: _____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신혼집: _____
-----------------	------------------------------------

- ① 자가 ② 전세(월세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년세, 일세 등
 ⑥ 무상(부모님 등 소유의 덕, 관사, 사택 등)

C2-3.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신혼집의 주택규모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희망하는 신혼집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신혼집
_____ m ² 또는 _____ 평	_____ m ² 또는 _____ 평

C3.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는 얼마 정도의 비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가이드〉

- * 자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구입 비용을 응답,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응답
- *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 년세, 일세, 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0원으로 응답

_____만원

C4.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가이드〉

- * 자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구입 비용을 응답,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응답
- *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 년세, 일세, 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0원으로 응답

_____만원

C4-1. [C4의 '1만원 이상' 응답자만] 예상하신 신혼집 마련 비용 중 귀하께서는 얼마를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전액 ② 일부 : _____만원 ③ 부담할 의향 없음 → C5로 이동

C4-2. [C4-1의 ①, ② 응답자만] 그럼, 신혼집 마련에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 중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개 선택]

〈응답 가이드〉

- * 저축한 자금, 대출, 가족 지원 등 현재 본인이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응답

① 전액 ② 일부 : _____만원 ③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294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C5. 만약 귀하가 지금 결혼한다면 신혼집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개 선택]

- 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신혼집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②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별도의 신혼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 ③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 가족 등)의 지원을 받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 ④ 본인 스스로(결혼 상대와 함께)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 ⑤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6. 귀하는 신혼집 마련 시 남성과 여성이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비율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가이드>

* 남성과 여성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

남성: _____%, 여성: _____%

C7. 귀하는 향후 결혼할 때 본인의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 가족 등)으로부터 주택비용을 지원받거나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① 기대하고 있다
- ② 기대하지 않는다
- ③ 이미 상속/지원 받았다
- ④ 상속해주시길 부모님 등이 안계신다

C7-1. [C7의 ①, ③ 응답자만] 신혼집 마련에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 가족 등)의 지원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 가이드>

* 0~100 사이 숫자로 응답

* 이미 받은 경우는 그 비율을 응답

-----%

C8.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다면 내 집 마련(자가 소유)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경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충분할 때
- ② 결혼할 때(무리해서라도)
- ③ 아이가 생겼을 때(아이를 낳을 준비를 할 때)
- ④ 기타 ()

C9. 귀하의 내 집(자가 주택) 마련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1개 선택]

- ① 내 집(자가 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 ② 내 집(자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
- ③ 내 집(자가 주택)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 ④ 기타 ()

D. 정책육구 관련 사항

D1. 다음의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정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D1-1-1.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응답 가이드>

- * 행복주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신규로 소규모 주택을 지어 일정 기간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월세)하는 주택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D1-1-2.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다소 필요 ③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D1-1-3. [D1-1-1의 ① 응답자만]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응답 가이드>

- * 행복주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신규로 소규모 주택을 지어 일정 기간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월세)하는 주택

- ① 이용 경험이 있다 ② 이용 경험이 없다

D1-1-4. 귀하가 결혼한다고 생각했을 때, 행복주택(신규주택공급)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응답 가이드>

- * 행복주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신규로 소규모 주택을 지어 일정 기간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월세)하는 주택

- ① 결혼할 때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② 결혼할 때 이용할 의향이 없다

D1-1-4-1. [D1-1-4의 ② 응답자만] 행복주택 등 신규주택 공급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⑥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자원이 필요 없거나, 이미 집이 마련되었거나, 부모님 집에 살 계획 등)
- ①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서(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 ②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웃주민)과 어울리기 싫어서
- ③ 주택의 상태나 인테리어, 단지 내 각종 시설 등이 안 좋을 것 같아서
- ④ 주택의 규모가 작을 것 같아서
- ⑤ 주택의 위치(입지)가 안 좋을 것 같아서(도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것 같아서)
- ⑥ 임대 비용이 그다지 저렴할 것 같지 않아서
- ⑦ 경쟁률이 너무 높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⑧ 기타()

D1-2-1. 청년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응답 가이드>

*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일정 소득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일정 규모 및 금액 이하)을 물색하면 정부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월세)하는 주택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D1-2-2. 청년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다소 필요 ③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D1-2-3. **D1-2-1의 ① 응답자만** 청년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응답 가이드>

*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일정 소득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일정 규모 및 금액 이하)을 물색하면 정부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월세)하는 주택

- ① 이용 경험이 있다 ② 이용 경험이 없다

D1-2-4. 귀하가 결혼한다고 생각했을 때, 신혼부부전세임대(기존주택활용)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응답 가이드>

*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일정 소득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일정 규모 및 금액 이하)을 물색하면 정부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월세)하는 주택

- ① 결혼할 때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② 결혼할 때 이용할 의향이 없다

D1-2-4-1. **D1-2-4의 ② 응답자만**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신혼부부전세임대와 같은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지원이 필요 없거나, 이미 집이 마련되었거나, 부모님 집에 살 계획 등)
 ② 임대 비용이 그다지 저렴할 것 같지 않아서
 ② 주인이 거부하게 되면 또 다른 집을 찾아야 해서 번거로울 것 같아서
 ③ 집에 문제가 있을 때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아서
 ④ 주택 상태나 위치가 좋지 않은 주택만 가능할 것 같아서
 ⑤ 기타()

D1-3-1. 주택자금대출(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응답 가이드>

- * 주택자금대출은 일정 소득 이하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월세·전세·구입비용 등에 대해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D1-3-2. 주택자금대출(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다소 필요 ③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D1-3-3. [D1-3-1의 ① 응답자만] 주택자금대출(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한 경험
이 있으십니까?

<응답 가이드>

- * 주택자금대출은 일정 소득 이하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월세·전세·구입비용 등에 대해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 ① 이용 경험이 있다 ② 이용 경험이 없다

D1-3-4. 귀하가 결혼한다고 생각했을 때, 주택자금대출(버팀목·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책
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응답 가이드>

- * 주택자금대출은 일정 소득 이하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월세·전세·구입비용 등에 대해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 ① 결혼할 때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② 결혼할 때 이용할 의향이 없다

D1-3-4-1. [D1-3-4의 ② 응답자만]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금 대출 지원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가
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⑤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지원이 필요 없거나, 이미 집이 마련되었거나, 부모님 집에 살 계획 등)
- ① 대출받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서
- ②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서
- ③ 회사 혹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서
- ④ 대출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서(대출받을 형편이 안되어서)
- ⑤ 대출/융자 등 은행으로부터 빌리기 싫어서(빚지고 사는 게 싫어서)
- ⑥ 대출 상품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연소득, 주택 면적 등)
- ⑦ 대출해주는 금액이 적어서
- ⑧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 ⑨ 기타()

298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D2. 귀하는 다음의 주거지원 정책 중 어느 유형이 청년들의 결혼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주택마련 및 전세/월세금 대출 등 자금 대출 지원
- ②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
- ③ 기타()

D3. 귀하는 정부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만이 모여 살 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응답 가이드>

*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 결혼한다는 가정 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년 특화 주거단지	① 이용 의향 있음 ② 이용 의향 없음
2) 신혼부부 특화 주거단지	① 이용 의향 있음 ② 이용 의향 없음

D4. 정부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 주거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혹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약간 도움이 된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D5. 귀하는 청년들의 결혼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주거 관련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기술)

E. 응답자 일반사항 및 취업 관련 사항

E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응답 가이드>

*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을 기준으로 응답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재학 중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원 석사 재학 중 ⑥ 대학원 석사 졸업 ⑦ 대학원 박사 재학 중 ⑧ 대학원 박사 졸업

E2. 귀하는 현재 일을 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E2-1. [E2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하시는 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파트타임이 아닌 전일제근로 ② 시간단위 파트타임/아르바이트
 ③ 재학 중 실습 또는 기업 인턴십 ④ 기타()

E2-2. [E2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하시는 일의 종사상지위는 무엇입니까?

<응답 가이드>

*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경우임

-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자영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E2-3. [E2의 ② 응답자만] 귀하는 지금까지 취업한 적이 있으십니까?

<응답 가이드>

*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씩 2개월 이상 일한 경우를 취업으로 생각하고 응답

- ① 취업 경험 있음 ② 취업 경험 없음

E2-3-1. [E2-3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처음으로 취업한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응답 가이드>

*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씩 2개월 이상 일한 경우를 취업으로 생각하고 응답

만 _____ 세

E2-3-2. [E2-3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처음 일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취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 가이드>

*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씩 2개월 이상 일한 경우를 취업으로 생각하고 응답
 * 취업과 취업 사이 공백이 있어 일을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더하지 않음

_____년 _____개월

300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E3.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응답 가이드>

- * 수입은 근로, 사업, 부업소득(일해서 버는 수입)과 재산, 금융소득(부동산 임대료,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원금은 제외), 주식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하며, 세전 소득 기준
- *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정부 지원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은 제외
- * 소득이 없으면 0으로 응답
- * 월평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지난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응답

- ① 수입 없음 ① 1원~50만원 미만 ② 50만원~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E3-1. E3의 ①~⑧ 응답자만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만원

E4. 귀하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응답 가이드>

- * 동산과 부동산 모두 포함
- * 부동산의 경우 대출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응답
- * 전세 및 보증금 있는 월세는 보증금 중 본인 소유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동산으로 포함해서 응답
- * 재산이 없으면 0으로 응답

-----만원

E5. 귀하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응답 가이드>

- * 부채는 갚아야 되는 모든 돈을 의미함
- * 부채가 없으면 0으로 응답

-----만원

E6. 귀하의 경제 수준은 또래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제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